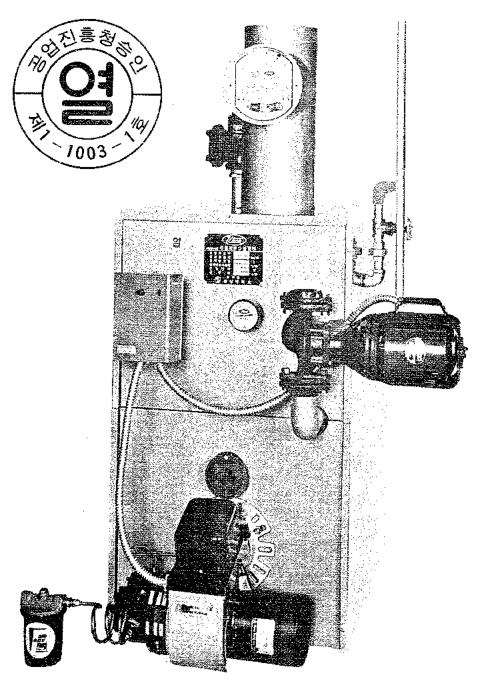


Cast ron Boiles

놀라운성능 • 연료비절감 • 영구적인수명



製造元:三成製作所

위 보 商 事

식물特別市 中区 忠武路4街 126-1호

進洋商街 1층2동 나열 109호

TEL: 26-2807 · 26-8015



韓國弁司工業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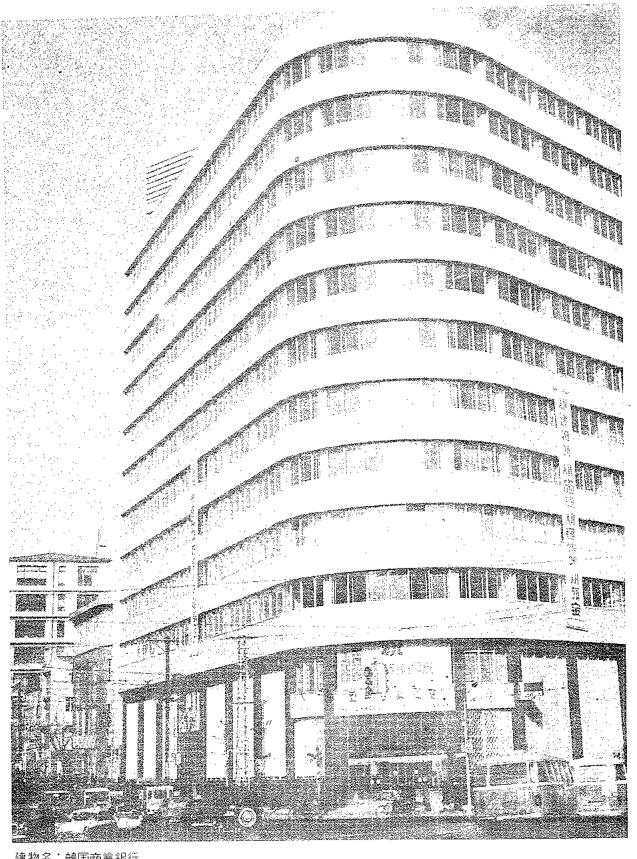
-제 품 안 내---

⊙ 맑은유리 ⊙ 무늬유리

⊙ 강화유리 ⊙ 색 유 리

◉ 厚板유리 ◎ 유리블록

国内建物들(刈口| △Ⅱ)



建物名:韓国商業銀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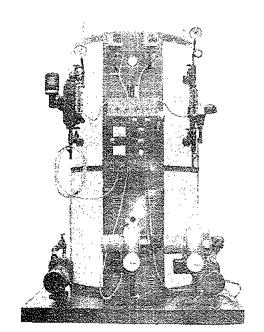


Rocket Boiler 연료비40% 절약/

로켓트

工産品 品質管理法에 依한 優秀商品 指定

燃料 使用器機大會 商工部 優秀賞受賞



□ 사우디아라비아·일본으로 수출되는 ROCKET BOILER

ROCKET BOILER =

증기용전자등보일러

0.5는, 0.2는소성선가동증기보일터가 필요하 선(업목3.5kg/cm²)실유공장의 증기마라며, 첫 당건소, 압찍기, 세탁, 기독자 1,000명이상 위 사용, 와박반응기 등에 저렴한비용으로설치할 수 있으며 선사동이므로 관리원이 필요되었으 디 앤드비의 관리비는 설약할 수 있습니다.

선박용 보일러

1.500 TON 이 칸의 선박난방및 용수 공급용전자 또 보험된

건조용 보일러

선조실의 온도를 자유 자재로 소절할 수 있는 전자동건축용(증기, 온수) 보일더(피혁공상, 심유공상, 식중공장, 화학공장)

공장 난방용 보일러

전병20병~600명까지 난방용全自動 증기,은수 (관리자가 필요없음) 보일러

음 료 수 용 보일러

시간당 20TON 막반의 순수한온수(보일러내수 찬전도금)가 필요한공장 등에 온수공급용 전 자 등 온수보일러

가정용 윤수 보일러

자 등 온수보일러 가성용난밤 설팅 성용 선자등 온수보일러

전자동 오일 버어너

이국 하니엘 자동,선도 스탠드 펀프 등, 부품 을 직수임하여 제작된 전자동 오일바이너

연 탄 보 일 러

원수, 난방, 위사 심용한 20명이만의 소형연 탄 보일러

※ 관리 유지배가 없고 소고의 안전도 저렴한 시설비, 연료비40%를 절약하지 려면 Rocket Boiler에 問議하십시요.

※ Rocket Boiler의 모조품에 유의하시고 Rocket 상표를 확인하십시요.

Rocket Boiler 는 영하40℃의 북양여신 선실난방부터 국내공 장 산업시설, 동남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여러분의 안방까 지 우순한 성당으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옵니다.

※ 건축사를 위한 로켓트 보일러 특성표※

TYPE	· 루		로 첫	! <u>F</u> '	! 鬃 点	8 B	1 (7)	정 용	공 정	왕 동)		로 켓 스팅브	[일러 [트	로 췟		보일	러
ITEM	드 위	XA-40	k8-60	KB-80	KR-100	KA-150	X R- 200	KF1-259	K2:300	KR-400	VR-500	KR S-200	KRS-\$00	KR-191	KR-∶92	KR-193	KP-194
발 열 항	Keal/lic	20,000	30 030	50 020	20 990	100 900	150.000	176 800	200 100	320,009	410 000	120 000	320,000	3.110	6220	9330	17,440
난방가능평수	Heating Area	20-30평	30-58	611-80	80-130	¥015-150	158-200	200-250	750-3 00	390-460	400-500	290	480-600	3-4	6.9	12-15	18-20
관 수 용 량	ų	105	177.9	166 E	178	398	396	573	674	925 8	1780	-	-	35	BI	105	130
연료소비 링	C/HR	3.5	5-9 5	65.8	3-11	11-15	15-70	20-24	74-27	37-33	44-56		1	19공탄	19공항	19공탓	19공한
수 압 시 행압력	kg/em²	5 25	5 25	5 25	5 25	5 25	5 25	5 25	5 25	5 25	j 5 25	5 25	8	2	2	2	2
배광 구격	m/ /m	50	50	35	65	75	75	75	75	100	100	65	75	32	48	40	50
연통 규격	" %	150	150	200	200	25D	250	300	300	350	400	?5 0	360	100	100	100	100
바 나	111	1/8	1/8	1/4	У	И	И	74	У	1/2	1/2	*	1/3	<u> </u>			
외형 첫 수	Ü	470	6±0	BID	610	690	800	909	3060	1300	1400	808	1100	430	650	950	1,250
외형 짓수	11	1150	1150	1390	1450	1600	1750	1750	1850	70 DO	2,300	1750	2200	59B	590	590	590
중 량	hg	320	340	420	440	460	570	590	629	720	900	720	2400	780	138	203	269
로켓트 보일러이딸가격	공장도	159,400	202,000	266,900	301,400	4:6.800	512,400	690.700	692,990	1 145.600	1.276 400			59,400	82,400	109,000	148,500
로켓트 바다이딸가격	공장도	184 300	194,300	194,300	245,800	246. B9 0	246.800	246 BOO	778,399	312, 9 0B	312 900				<u> </u>	<u> </u>	
보일러 ·바다 함계 급	공장도	353,700	396,300	46:.200	548.200	657 6 0D	759 200	337 500	965 200	462 700	589,460						



ROREA STEEL PRODUCTS CO., LTD. M 1 공장: 서울·영등표구 외발산등 288 - 1

전 화: 27 -9358 · 26 · 1135 ~ 6 · 66 -1363 · 66 -2810

人造石 물갈기가 必要없게 되였읍니다.

内装・階段・外装・歩道用으로 새로 開発한



전도송다월 ……

大理石・大造大理石(데라조) 과 一般타일類의 材質・特性・経済性

施工上의 長点만을 뽑아 바닥과 階段用으로 製造한大型타일 입니다.

用 途

内装用(빌딩・銀行、病院・介勁印製、工場・玄関 等의 바닥用)

階段用(빌딩・0) 파ー트・대파ー트 等 高層建物의 階段用)

外装用(門柱·外壁等 外装用)

歩道車道用(一般歩道・駅構内・地下道・駐車場・ 置場 等의 바닥用)

特徵

스 堅固한 規格製品 입니다.

스 施工이 簡便하여 工期를 短縮시킵니다.

△ 冬寒IT專에 가장 適合 합니다.

스 表面이 完工水平이고 筆麗 합니다.

스 工事後의 補修가 容易 합니다.

스 바닥됐대가 必要 없읍니다.

스 施工上公害가 없읍니다.

規 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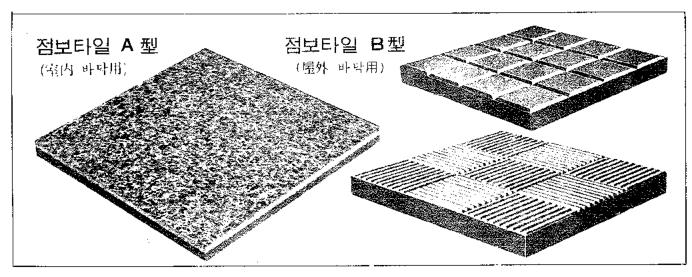
型別 コ、オ	두세 [校当重量	地当枚数	m² 当枚数
A型・300×300%	28%	6 kg	約36枚	11, 11 枚
A型 400×400‰	30%	11kg	約20枚	6.25枚
B型 300×300%	3071/m	6 kg	約36枚	11.11枚

色相……需要者가 願하는 色

施 工

모루탈을 깐 위에 시멘트 溶液을 뿌린뒤 전보타일을 깔거나

組立하면 끝납니다.



製造元: 条442建材工業株式會數(日本国株式会社 北陸地所와合作会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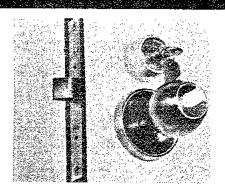
総 販 代42 建対販売商社 서울特別市中区水標洞27-1

青少年会館606号室 電話 27 - 3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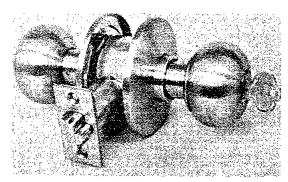
韓國最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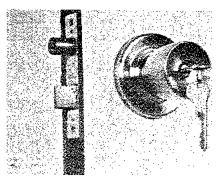
表示許可獲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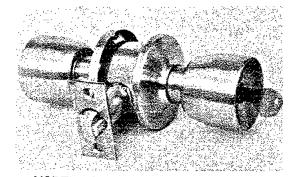
MODEL + 160 SWS, 현관 사무실용



MODEL 5600. 호텔 · 현관 · 사무실용



MODEL 1840. 현관 · 사무실용



MODEL 5000. 침실 - 사무실용

國際水準의 海外輸出品

1. 最新機械와 優秀한 資材를 사用하여 精密度가 높음니다.

特

- 2. 操作이 간단하고 円滑합니다.
- 3. 핀·텀불러실린더로서 키種類가 78, 125가지나되며, 각 3개의 열쇠가 있읍니다.

徵

- 4. 開閉動作실험 결과 200,000회이상으로 性能을 保障합니다.
- 5. MASTER KEY, GRAND MASTER KEY는 주문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화도아목그는 전국의 有名철물店에서 購入할 수 있읍니다.



正和金屬株式會社

本社製工場:서울特別市永登浦區塩倉洞45의15

TEL:63-4515~6

連絡事務所: 付置特別市中區乙支路4街310-68

三 豊 빌 딩 10屬(1008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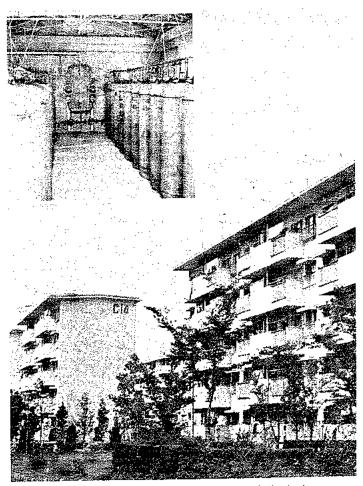
直 通:26-0966:0967

交換:26-1181~9 26-31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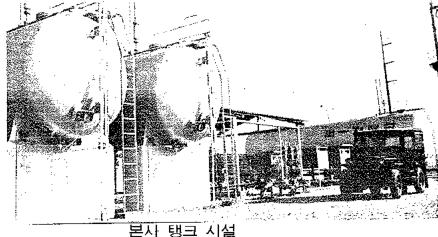
25-8601~6

構内 243 番

國内L.P.GAS開発의 先駆者!



당사시공 아파트 집단공급 저장설비



- 1. 제반 까소공사 설계, 시공, 감리 및 푸로판, 부탄까스 납품
- 2. 각종 까스 기구 취급
- 3. L.P.G 자동차 총진

※당사는 15년간의 천통을 가진 국내最古 最大의 까스제조, 설비 및 납품업체 로서 일류기술진이 상시 대기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당사가 시공한 주요 까스 사용업체 및 기관을 열거하면,

- (1) KIST
- ② 국정교과서
- ③ 국립보건연구원
- ④ 청담아파트
- (5) 한일전기
- ⑥ 삼화제관
- ⑦ 현대양행
- ⑧고려병원
- ⑨신 양촌
- ⑩자연농원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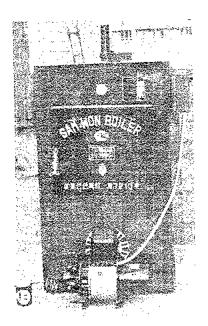
오늘도 건축업계의 일익을 담당코자 . .

▶高麗까凸工業株式会社

(大韓石油公社 代理店)

営業所・技術部: 서울 종로 2 가56 - 10 Tel. (25) 8176 (25) 8177

本社 및 充填所 : 서울 성동구 마장동 766 - 6|Tel.(53) 2588 (54) 1685 (52) 4095



삼원기름보일러

미국SBI 규격書

실용신안특허 제7210호 공업진홍청 형식승인필

특 징

※완전자동

※횡영관특수식 3 - PASS

※연료비 20% 절감 ※급탕 겸용

※보일러청소간편 ※수명 15년 보장

원 보 일 러

그분~~	-	-iγ;	- '현식	S- 2	9— 3	S- 5	5 2	S- 10	S— 15	S- 20	9 − 30	S 40	5 ~ 50	2 90
발양		링	Keol/Mr	20,000	3.0000	50, 000	70, 000	ECD. 000	150 000	200,000	300, 300	406, 006	500, 000	660,000
<u>로 한</u> 연료소			L/Hr	2. 4	3 6	6	B. 4	12	17. 5	24	35	48	40	70
수입시:	_		kg/sm²			6	- 6	6	7	7	7	7	I	7
<u>코티쓰</u> 전 열	년 년	_		2. +5	2. 69	3.71	5.62	7.4	11 57	16.26	22	30	38	44
<u>연</u> 돌	걸	_	mn %	200	200	250	250	250	250	300	400	450	\$ 00	500
배관	7	_	mer A	50	sc sc	65	65	80	80	SO S	160	100	100	100
H 0		ᅜ	T+pe	GUN	20N	GUN I/B	GUN I/4	30N	GLN 1/4	69N 1/3	Калагу 1/ 2	Relaty 1/2	Rotary 1/2	Perary 1/2
	1	w	F ∠m	/₽ 52	52	57	61	81	80	90	112	122	136	136
외	ŀ	н-	cm cm	91.5	91,5	105	122	122	140	152	190	500	210	2!0
 평 기 수	ŀ		cm	5.5	70	82	92.5	123	120	150	170	200	220	250
	녚	<u>.</u> 1 적		30 40	40~60	60'-100	100140	140 200	200-300	300~ 400	400~ 600	აე0~ B00	800~1, 0 00	t, 000~ 1, 200
<u>년 방</u> 사 용	2			25 SS	경 字	경 유	경우	경 유	경유	병기 C무 경 유	\$131.000 24.000	数から	라 하 한	평가 CB
가	2	: <u>노</u> 견	- E	130,000	160,000		-		440,000	\$50,000	별도	병도	별	뷀두

삼원 보일러 연탄용



징

스 마 일 보 일 러

※내부표면특수처리제작 ※수명 일반품의 3배

※상부 복사열 100% 흡수 ※상하부 2 중가열 특수식

※탄재가 밑으로 처리됨 ※철저한 아프터 써비스

연 탄 보 일 러

형 식	SB 12	\$8 22	SB 22A	\$B 134	SB 23A	SB 33A
→ Æ	2 탄 난로고정식	쌍 2 탄 난로교정식	쌍 2 탄 난로고정식	3 탄 난로고정식	SB13A 2 조조림식	\$B13A 3 조조링식
평균발열량 Keal/Mr	2, 500	5, 000	5, 000	3.800	7. 600	11,400
난방 면적 평	3 5	<i>6</i> ⊷ 10	é~ 10	5~- 7	10 14	15~- 21
사용연탄종류			22	공탄		
수압시험압력 kg/ cm²	3	3	3	3	3	3
배관구경 mm	25	32	32	32	32	40
연동구경 mm	65	75	75	75	90	90
탄재처리구조	재 6	개 식	반	X)	동	식
가 겪	30, 000	60 000	70,000	48, 000	90,000	125, 000



실용신안 특허출원 1845 · 1846

용도: 주택, 아파트

병원, 여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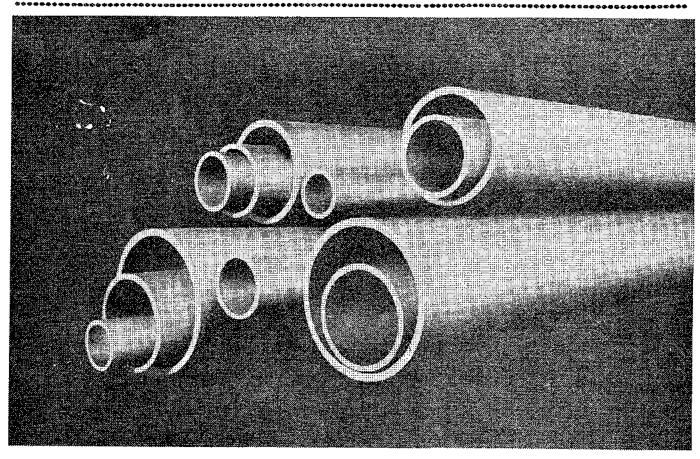


臺灣 全 第 7 1 7 4 1

서울 영등포구 등촌동 148 TEL. 63 - 8872. 전시장 42 - 8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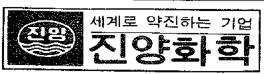


●반영구적수명●용이한가공배관●저렴한 가격



ZISP.V.CIIOII

결질 관매과 (73) 0121~ 9 ●●●





U. D. C. 69/72(054-2):0612(519)

月刊「建築士」 (通巻91号)

1976

目 次	(1)
	1.7

■ 서울시의 민폐대상 업무 새사례 채택 및 추진 지시에대한 건의 …(2)

◎〈論 文〉 □ 都市 속의樹木……… 尹 澄 五…(3) ■ ENERGY 절감율위한 CAVITY WALL의 참된 構造 와 施工 : 吉 正 天 ... (8) □ R. C. 바닥 슬래브의 所要 두께 小考 ………………………… ④ 平 坤···(25) 〈會員 코-너〉 住宅建築許可 制度 改善策 実施에 対한 小考…………… 姜 奉 辰…(34) 圓〈會員作品〉⋯⋯⋯⋯⋯⋯⋯⋯⋯⋯⋯⋯⋯⋯⋯⋯⋯⋯⋯⋯⋯⋯⋯⋯⋯⋯⋯⋯⋯⋯⋯ 가. 김동규 라. 정정차 나, 김창서 마. 조성만 다. 김형석 바. 황일인 住宅 建設 促進法 施行規則 改正令 ………………… 建 設 部……(53) ■〈海外作品〉····(独)····BAUEN+WOHNEN(Building+Home)··········(67) 建築法 質疑応答……………… 建 設 部…(79)

編纂委員会 委員長 金 斗 燮 委員 金仁錫 金 眞 一 辛兹植 俞 景 哲 李 璟 會 李 文 輔

龍 雛 燮

発行人兼 編輯人・李圭福 / 登録番号・第斗-1251号 登録日字・1967年 3月 23日 / 月刊「建築士」 発行日字・1976年 9月30日 / 通巻 第91号 発行所・大韓建築士協会 / 住所・斗き特別市 錐路区 瑞麟洞89番地

復元佛国寺 泛影樓 및 左経樓 包詳細 ①・②

表紙説明

〈非売品〉 電話・73-9491~2

서울시의 민폐 대상 업무 새사례 채택 및 추진 지시 에 대한 건의

- 1. 서울시는 구청, 출장소등 산하 기관과 본 협회 서 울시 지부에 시달한 76. 8. 31 "빈폐 대상 업무 재사례 채택 및 추진 철저"지시에서 별첩 공문 사본 내용과 같 이 행정 업무 수입 단체에 의한 부조리가 형성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그 예로서 건축사 협회가 행정 기관 또는 공 무원을 빙자하여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 례를 채택하고 그 조치 사항으로서 착공, 중간 준공 검사 신청은 건축사 협회를 경유치 말고 민원인(건축주)이 직 접 우송하도록 하고 건축 허가 신청 대행에 따른 금품 요 구 사례가 없도록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 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서울시가 어떤 근거로 전축사 협회 가 공무원을 빙자하여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가 있다고 지적하였는지 본 협회 산하 11개 지부와 각분 소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전무할 뿐 아니라 건축 행정을이 용한 부조리를 척결하려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 하여 다음에서 설명 드리는 바와 같은 서정쇄신 업무를 강력 히 추진하고 있는 본 협회 측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뿐 더러 본 협회의 명예 및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바이오니 철저한 진상 조사등으로 이 같은 본 협회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시는 조치를 강구 해 주시기를 우선 간망 하나이다.
- 2. 관계 당국에 기히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 협회 및 산하 11개 지부는
 - 가. 서정쇄신을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
 - 나. 전축사는 충실한 작품 활동등으로 성실한 봉사를 생활 신조로 하여 자기 주변을 정화하며
 - 다. 건축사의 비위와 건축주의 부당한 요구등 부조리를 척결 한다는 등.

1976년도 서 정쇄선 3대 목표 및 실천 계획을 수립 하고 그간 수십차에 결친 서정쇄신 관계자 회의 및 교육등을 실시하는 한편 본부 및 각시도 지부의 감사 기능을 거의 총동원하여 서정쇄신 추진 사항을 수시 점검하는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한 결과 일부 비위 건축사의 적발 징계 조치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3. 더우기 정부가 건축 행정의 합리화 및 건축 행정을 이용한 부조리 최결을 목표로 한 "주택 건축 허가 제도개선 방안"이 1976년 1월 1일 부터 전국 33개 시에서 실시되었을 때 이 방안이 건축사 업무의 본질적인 편에서 볼때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한 법적 뒷받침이 결여된 행정조치이며 아울러이 방안실시 요강에 의한 건축사 연내 채임 조편성, 합동 사무소 설치등에 사실상 많은 애로와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협회와 산하11개 시도 지

부에서는 정부가 목적하는 부조리척 결을 선두에서 실천 하려는 의욕과 사명감 하나만으로 일부의 거센 비판까지 도 억누르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방안이 순조롭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했고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으 며.

- 4. 한편 본 협회 산하 서울특별시 지부에서는 서울시 당국의 행정 지시에 순응하여 공사 감리 대상 건물이 아닌 건축물의 현장 조사, 착공 중간 검사 및 준공 검사복명서 제출 업무까지도 사실상 무료 봉사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1975년 9월부터는 서울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점단 직원 5명을 배치하고 연간 8.800.000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하면서까지 건축 허가 신청서등을지부 및 분소에서 일괄하여 허가청에 제출하는 제도를 실시함으로서 건축 허가청 창구와 민원인 등의 접촉 차단등사당국이 건축 행정을 이용한 부조리를 근절하려는 의도에 부응하여 사실상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 5.,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협회 및 산하 각 지부에서는 건축 부조리 근절과 자체 정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당국이 건축사협회가 공무원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예등 새로운부조리의 사례를 채택한 것은 본 협회로서는 아연 실색할수 밖에 없읍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당국이 건축 허가 신청 대행에 따라 새로운 부조리가 형성 되었다고 판단한 다면 본 협회로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타당하다고생각 하여 이를 정식 전의 합니다.

- 가. 서울시의 행정 지시에 따라 서울시 지부 소속회원 이 수 행하고 있는 착공, 중간 검사 및 준공 검사 조사 복명서 제출 제도의 폐지.
- 나.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 지부가 실시하고 있 는 건축 허가 신청서의 일괄 제출제의 폐지
- 다. 건축사가 사실상 전축 허가 신청 업무를 일부대행 하고 있는 "주택 건축 제도 허가 개선 방안"에 대 한 전면적인 재검토 또는 폐지
- 6. 금번 서울시 당국이 새로운 부조리의 사례로 채택한 건축사협회의 금품 요구 운운은 본 협회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도 없고 묵과 될수도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사료하와 이러한 사례가 채택된 연유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전기 제 5 항에서 요청한 3 개항의 건의 사항을 신중히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를 거듭 간망하나이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 규 복

都市 속의 樹木

Zastatatatatatatatatatatatatatatat

尹 澄 五 綜合造景公社 研究室長

1. 都市와 植物

都市에서는 室内装飾이나 陳列窓 裝飾에 人工植物을 使用하고 있는것을 가끔 볼 수 있다. 이것은 自然植物이 都市속에서 生育하는데 많은 障害을 받고 있다는 것을 暗示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新聞이나 雜誌에서도 가끔 自然植物의 枯死에서 오는 視覚的 不快感을 덜기 위하여 人工植物 특히 Plastic 製品인 人工樹木의 代替에 関한 記事를 掲載하고 있는데, 이런 生覚은 樹木에서 얻어지는 美的要素의 機能만을 다루는데서 생긴 動機가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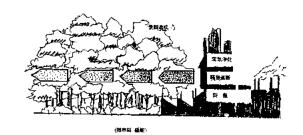
그러나 都市에 있어서의 樹木은, 이번 美觀的인 機能 만이 全部가 아니라 이밖에도 더 重要한 機能을 지니고있 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1) 樹木은 空氣量 浄化시켜 준다.

樹木들은 濁한 都市空気를 濾過시켜서 맑은 空氣로 更新하는 한편 空氣를 冷却시켜 주며, 光合成을 통해서 空氣속의 CO2를 吸収하는 反面에 O2를 放出하여 空氣속의 O 量을 増加 시키는 重要한 機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 研究調査의 統計를 들어 보면, 40~50年生 느티나무(Zelkowa serrata) 12그루는 12名이 1日에 必要로하는 空氣를 浄化시켜 준다는 것이다.

(2) 樹木은 騷音을 遮断해 준다

各種 要因에 의해서 생겨지는 騷音을 吸収하여 遮断내지는 軽減시켜 주는 機能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3) 樹木은 바람을 막아 준다.

强風을 막아주는 防風, 바람이 몰고오는 먼지를 막아주는 防塵등 바람에 의해서 생겨지는 各種障害를 緩和내지는 防止해 주는 機能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4) 樹木은 景観을 造成해준다

樹木은 樹種에 따라서 特有한 樹型을 보여주는 한편 新緑과 丹楓, 꽃과 열매 등 色感과 質感을 季節의 変化에 따라서 보여주며 언제나 調和된 景觀을 造成해 주는 美 的機能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樹木이 人間에게 미쳐주는 影響은 많다. 그러므로 都市속의 植物을 人工植物로 代替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人間이 都市에 살고 있는限自然植物은 現在도 必要한 것이지만 앞으로도 永遠히 絶対不可欠의 都市構成 要素로서 重要한 位置을 차지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오히려 都市人들은, 豊饒한 「푸름」을 都市속에 갖추어 야 한다는 宿題를 받고 있다는 것을 自覚해야 할 것이다.

2. 樹木의 社会性

都市속의 樹木이나 街路樹를 孤立된 生存体로 보기 위우나 이 植物들은 絶体로 孤立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植物社会를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植物의 社会는 生態型과 立地的 特性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이며 立地的 特性으로는 光, 温度, 물, 흙 그리고 다른 植物들 사이에 일어나는 生存競爭등을 들 수 있다.

都市의 出発은 原始林이나 野山을 背景으로 하여 形成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都市속의 樹木들은 原始林 이나 自然野山에서 얻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自然山林에서는 各種 樹木에 의해서 一定한 安定된 林型을 形成하고 있는데 比하여 都市의 街路樹는 現在孤立되어 있는 狀態이라 山林속에서 받고 있었던 多樣한 惠択과 協助를 잃고 있는 形便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都市속의 樹木은 生育에 많은 支障을 받고 있는 까닭에 그 維持管理에는 特別한 留意가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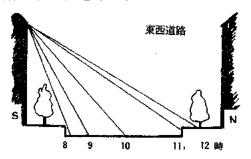
3. 街路樹의 生態学

都市속에서 자라고 있는 植物의 立地條件과 그 障害條件을 들어 본다는 것은 都市植物이, 山野의 自然環境 속에서 生育하고 있는 植物의 立地條件과 比하여 얼마나 悪條件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가름 해 보는 좋은 契機가 될 것이다.

(1) 日照要素

植物의 光合成은 光에네르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光合成에서 얻어지는同化産物을 営養으로 하여 生育해 가는 것이다.

都市에 있어서는 各種의 空気污染程度와 拡散程度 如何에 따라 日照減退는 約 10~40% 內外의 폭을 나타내고 있다. 都市의 日照減退는 反射가 强한 建設材料를 使用하므로서 얻어지는 反射光線을, 植物이 活用할 수 있지 提供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一部에 지나지 않으며 絶体量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根本的인問題는 道路 空間沿辺을 따라서 세워진 建物로 因하여水平線이 妨害되는 까닭에 総日照量이 減少되어 樹木에의 光供給이 顕著하게 低下 된다는 事実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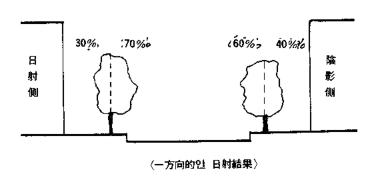


한 例를 들어보면 東西道路에서는 北側이 南側보다 日 照量이 많으며, 南北道路에서는 日照와 그늘의 程度가同量이 된다는 研究 報告가 있다.

이러한 事実은 樹木에 対한 日照供給에 있어서 建築線으로부터 樹木까지의 距離가 決定的인 要因이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距離가 좁으면 좁을수록 道路 空間 속의 樹木은 非対稱的인 生育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都市에 있어서의 日照量의 滅退는, 樹木의 生長前提條件의 滅退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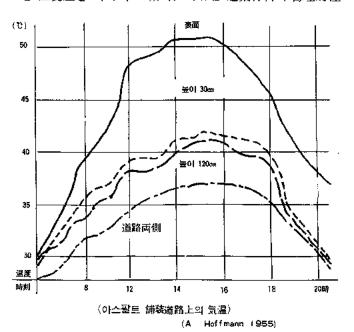
다음 그림은 一方向的인 日射結果가 보여 주는 영주나 무 (Tilia megaphylla)의 樹冠変化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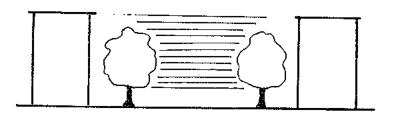


Grochalskaja의 報告에 따르면 日射側에 植栽된 植物은 道路空間쪽으로 70%의 生長幅을 나타내며 · 反対側인 陰影側에 植栽된 植物은 道路空間 쪽으로 60%의 生長幅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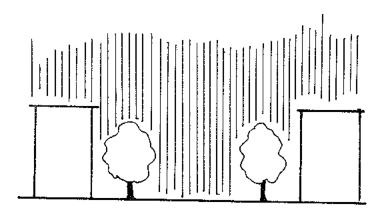
(2) 温度要素

都市속의 温度는 그 都市의 크기, 位置등에 따라서 多少 差는 있지만 大体로 近郊보다 年平均 0.5~2.0°C의 높은 温度差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建築材料의 物理的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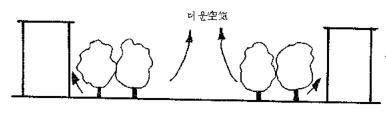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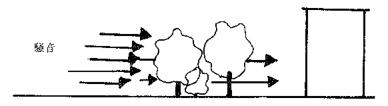
먼지의 住居 侵入**을**防止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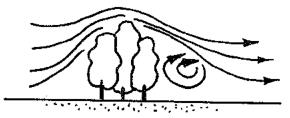
발에는 降下하는 먼지를 吸収한다.



더운空氣를 冷却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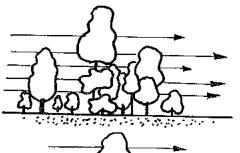


騒音을 遮断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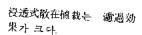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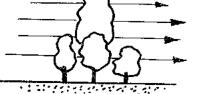
摩察音을 遮断해 준다. 두터운 植栽는 爐過効果를 잃는다. 汚濁한 空気는 浄 化되지 않고 樹冠上部로지

나간다.



植栽巾 25 m





植栽印 15 m

質에도 따르겠지만, 投射되는 日射의 角度如何에도 깊은 関係가 있는 것이다. 즉 投射角度가 急하면 急할수록 熱 量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스팔트로 舗装된 都市道路 表面은, 植物에 의해서 地被된 近郊의 地表보다 쉽게 뜨거워지며, 建物自体도 空気에 比해서 심하게 뜨거워지는데, 이것들이 吸収한 熱気는 밤사이에 서서히 放出된다. 이 現象을 焼窯効果라고 부르며 이 現象에 의해서 都市空間의 空気温度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단단하게 舗裝된 道路表面에서는 그 熱気가 더 - 層 깊은곳까지 浸入하므로 深層에 많은 熱量이 貯臟되 게 된다. 그러므로 熱量의 放出도 서서히 進行하는 結果 가 된다. 이러한 埋由로서 都市空間의 空気는 急激한 冷 却이 있을 수 없게 되며 그 反面에 空気의 乾燥度를 높 혀 気温의 上昇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都市空間의 空気가 빨리 뜨거워 진다는 事実과, 温度가 높아진다는 事実, 都市에는 降霜이 늦어진다는 事実등은 都市内 樹木의 生育期間을 延長시키는 結果가 되는데 이 現象은 植物日体에 対해서는 十要因이되는 反面에 一要因으로 作用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즉 夏節에는 樹木에 対해서 過暑要因(一要因)으로 作用하여 熱交換機能을 잃게되어 앞이 타는 日焼現象이 일어 나게된다.

(3) 水要素

지의 大部分이 鋪裝되어 있는 都市에 있어서와 물의供 給은 참으로 重要한 뜻을 지니게 된다. 그 까닭은 樹木 이 自由롭게 水分을 腦取할 수 있는 領域이 極히 制限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鋪裝되어 있는 都市 空間 에서는 兩水에 의한 水分供給만으로는 生育에 必要한 水 分量을 充當할 수는 없다.

成木이 必要로 하는 水分量을, U.Ruge (1972)의 研究 結果에서 들어 보면, 1日当 約 40½/生育 期間이다.

즉, 生育期間을 6個月間으로 볼 때, 約 7 m³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都市空間에서 生育하고 있는樹木들은 果然 어떻게 하여 必要水分量을 調達하고 있는 것 일까? M.Trenel (1954)은 「土壤温度가 周囲気温 보다 낮을 때에는 土壤의 含水量은 凝結에 의해서 增大된다」고 研究論文에서 発表하고 있는데 이것을 빌린다면 다음과 같은 事実을 説明 할수 있다.

都市의 鋪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小鋪石이나보드브럭등과 같은 출눈을 가진 道路表面에서는, 土壤에서와 같은 凝結與象을 期待 할수 있는 可能性을 갖는다. 書間 道路表面에 强한 日射가 直接 있었을 때는, 土壤에 가까운空気層과 土壤空気 사이에 심한 温度差가 생겨나 凝結現象이 나타나게 된다.

이 事実은,極端的으로 乾燥한 立地에서도 樹木은 生存 할 수 있다는 것을 証明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水分取得方法은 바람직한 方法이 될 수 없는 까닭에 都市에서는 適時에 灌水를 해 주므로써 水分平衡이 維持되도록 管理하는 길밖에 별다른 方法이 없다. 樹木들은, 必要로 하는 水分量을 充分히 供給받았을때 비로서 모든 機能을 発揮하여 人間에게 福祉的 効果를 가져다 주는 때문이다.

(4) 空気要素

都市空間의 空気汚染度는 空気中에 混合되어 있는 固形 物質과 가스物質에 의해서 짐작할 수 있다. 葉上에 降下 하는 塵埃는, 葉上에 停滯하는 時間이 길면 결수록 受光 에 障害를 미치게 되는 것이다.

固形의 空気混合物質은 때에 따라서 化学的으로 作用하는 加害物質로 変하는 경우가 있어 葉도 化学的被害을 받을 可能性이 많아진다. 죽 葉上에 停滯된 化学的 物質이 비, 안개, 이슬 등에 의해서 溶解되어 葉組織이 破壞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된다. 勿論 葉面이 매끄러운 樹種에 있어서는 溶解되는 化学的 物質이 씻겨 내려가는 까닭에 이러한 被害는 없다.

가스体의 空気混合物質은 特한 有害하다. 無實酸 가스(SO₂), 弗素化合物(HF), 室素酸化物(NO) 동의 被害는 특히 실하다. 이 가스体는 모든 植物의 生理過程속에 浸入하여 葉綠素를 破壞하게 된다. 葉綠素를 破壞당한 植物은 同化能力을 잃게되어 生存할 수 없게 된다.

이 與象은 非正常的인 生育狀態에 있는 植物에서 特히 심하게 나타난다. 都市 空間속에 生育하는 植物들은水分不足과 常養失調로 시달리고 있기때문에 더 큰 被害을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都市人들은 누구나가 다 非正常的 環境속에서 살아가는 植物을 아끼고 사랑하며 保護해야 **並義務**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5) 土壌要素

都市속의 街路樹는 自然的인 土壤에 植栽되는 경우가 가의 없다. 전부가 非生産的인 土壤에 심겨진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山野나 山林에서는 養苗나 苗木의 養生 以外에는 거의 거름을 준다는 것을 생각할 必要가 없으리 만큼 自然의攝 또에 의해서 自然土壤에는 適当한 営養이 갖추어져 있다.

흙 속에서 攝取한 営養은 植物의 組織을 形成하며 植物体의 一部인 葉은 落葉되어 地上으로 떨어져 서서히 分離하여 그 成分이 흙 속으로 還元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自然狀態에 있어서는 営養은 언제나 均衡된 狀態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都市의 경우는 落葉을 그대로 放置해 둘 수 없다. 이것은 営養이 還元될 수 없는 條件이 되므로 施肥라는 手段을 生覚 아니할 수 없게 한다.

4. 樹木에 対討 機械的要因

끊임없이 일어나는 路辺工事는 都市空間 속의 植物에 많은 被審률 주게 된다.

이러한 各種 工事는 特히 樹木의 根系에 집한 被害를 주며, 그 밖에도 交通 車輌에 의한 枝條의 損傷, 交通事 故로 因한 樹幹의 傷害등은 機械的인 要因으로 되며 이것 들은 樹木에 対해서 致命的인 影響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5. 結 言

以上 앞에서 説明한 바와같이 都市空間 속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植物은 不適合한 生活環境 속에서 生育하고 있 음을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都市人은 文化人으로서의 矜持를 가지고 樹木을 아끼고 사랑하여 人間 에게 없어서는 안될「푸름」이가득 찬 都市景觀을 造成하는데 다 같이 参与하여 住宅에는 勿論이지만 住居地域, 公共機関, 河川敷地, 工場, 工团地域등 人間이 生活하는 모든 環境에 各種 樹木을 심어가꾸어 꽃과 緑蔭과 丹楓과 結実의 自然攝理를 몸으로 느끼면서 健康과 休憩을 享有할 수 있는 福見 生活의 터전을 都市 속에서도 마련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一参考文献一

- 1. 韓国綜合造景公社、1975、工場造景
- 2. 日本公園緑地協会、1975、公園緑地
- 3. 高原栄重 . 1976. 都市緑地의 計画
- 4. Landscape Architecture. 1976. 美国
- 5. Garten und Landschaft. 1974. 西独

誤植訂正

회지 88호에 게제된 建築法 施行令中 誤植된 部分을 아 래와 같이 訂正합니다。

(편집자)

페이지	集 文	誤	īE.
41	法第55條第3号	······規定에 違反한建築者	·····-規定에 進反한者
59	施行令制定日	1962. 4. 20.	1962. 1. 20
. 143	令 第108條第1	持別避難階段斗	
	項第1号	有效幅의 介計문	>=====================================
		地下層에 있어서는	地上層에 있어서는
147	令 第113條第1	行政区域앞에서	h.se.de
	項	地下層의 延爾航	地上層
		(同一)	**!************
182	令 第171 條第 1	第171條(建築委員会)	第171 條(建築委員会)
	項	서울特別市	①서울特別市
183	*	法第44條의第1項의	法第44條斗2第1項의

ENERGY 절감을 위한 Cavity Wall의 참된 構造 와 施工

吉 正 天 東国大学校 工大教授

1. 用語

Cavity wall을 흔히 二重雙 또는 空間쌓기 壁 이라고들 하는데 그 壁体에 随件되는 構造上의 用語를 関聯시키면 "접벽"이라 하는 것이 가장 摘切한 表現이라 본다. 이에 따라서 Solld wall은 "외겹백"이라 하면 겹벽과 用語의 概 念이 分明하게 된다.

먼저 構造的 理解를 돕기 위하여 접벽체와 이에 対随되는 用語로 부터 定義한다. (그림 2 참조)

검병(Cavity wall): 2重壁 또는 空間 쌓기벽. 따라서 가령 시멘트 벽돌을 쌓고 그 外部에 돌을 붙이거나 붉은 벽돌을 쌓드라도 "겹새"(흔히 말하는 空間 다음 참조)가 없으면 어디까지나 외겹벽이지 겹벽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안겹(Inner leave): 2重으로 된 겹벽체의 內壁. 바깥겹(Quter leane): 2重으로된 겹벽체의 外壁 양겹: 안겹과 바깥겹

겹새(Cavity) : 안겹과 바깥겹과의 떨어진 空間

연결쇠(Wall tie): 壁体의 强度를 높이기 為하여 안 경과 바깥경을 연결하는 쇠붙이

방습켜(Damp Proof Course): D.P.C.로 略記되며 수평 방습켜와 수직 방습켜로 나누어진다.

수평방습켜 : 방슙재료를 水平으로 놓아 水分이 上下移

動을 막는 켜

수직방습켜: 방습 채료를 垂直으로 두어 水分의 水平 動을 막는켜

Ⅱ 겹벽의 壁体

(1) 일반사항

접벽은 일반적으로 外壁쌓기에 쓰여나 防音効果가 크기 때문에 內壁을 접벽으로 해도 좋다.

겹벽은 材料 및 두께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材料上으로 보면 (1) 양겹을 모두 블록으로 쌓는 경우,② 양겹을 모두 같은 벽돌로 쌓는 경우 ③ 바깥겹은 붉은 벽돌, 안겹은 블록이나 시멘트 벽돌로 쌓는 경우 ④ 바깥겹은 돌, 안겹은 블록이나 시멘트 벽돌로 쌓는 경우 인데이 中 가장 간단하고 흔히 하는 경우는 바깥겹을 붉은벽돌, 안겹을 시멘트 벽돌로 하는 것이다.

壁두째上으로 보면 ① 양겹의 두께를 서로 같게 하는 경우, ② 바깥겹은 얇게(예를 들어 0.5B)하고 안겹을 두껍게(예를 들어 1B 또는 그 이상) 하는 경우와 반대로 ③ 바깥겹을 두껍게 하고 안겹을 얇게 하는 경우이다.

안검을 바깥검보다 두껍게 하는 ②의 경우는 마루等의 積載荷重이 클 경우에 適会한 構造이고 ③의 경우는 防 寒防温的 構造에 重点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施 工만 조심해서 잘 하게 되면 후자의 경우로도 充分한 耐力壁的 構造가 되기 때문에 양겹의 두깨를 서로 달리 할 경우에는 ③외 경우 쪽을 권한다.

(2) 결새: 접새는 5~8 cm로 하는데 英国 示及書에서는 약 8 cm를 최대 검새로 하고 있다. 実験에 依하면 검새 8 cm를 두고 바깥겹 시멘트 벽돌 1B 쌓기에 모르타르 뿜칠 마감, 내겹 0.5B 시멘트 벽돌 쌓기에 모르타르마감한 一部 검벽체 住宅의 洋式 便器가 瞬房設備가 없음에도 不拘하고 約 一週日間 계속된 零下 17°C의 강추위에도 아무런 事故없이 그 機能을 維持하였음을 確認하였다. 검색를 5 cm 미만으로 하면 벽돌의 크기에 있어서의 不均一性과 검병 機能의 原理를 모르는 施工者의 잘못施 工으로 因하여 검병 自体의 効果를 期待하기 어려울뿐만아니라 올바른 構造의 검병施工이 힘들게 된다.

(3) 연결되는 현결되는 耐久的인 것이라야 하고 무엇보다 바깥겹에서부터 스며든 물이 이 연결되를 타고 들어와 안겹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모양이라야 한다. 그림(1)에 몇가지 예를 들었는데 ①과 ⓒ에서 철사의 양끝을 꼬아 중앙에서 늘어뜨린 것이나 ⓒ형에서 철띠의 中央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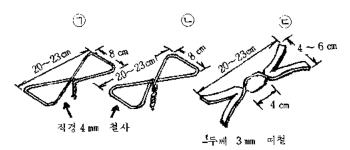


그림 1 연결쇠

을 비틀어 놓은 것은 바깥겹에서 스며든 물이 이 곳에서 모두 밑으로 내려가 겹새에 떨어져 안겹에 도달하지 못하 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点에서 보면 ①은 ①보다 만들기는 약간 쉬우나 구조상 물이 안겹까지 유도될 우려 가 多分하다. 卷間에서 흔히 굵은 못이나 철사를 단순하 게 U字로 구브린 것을 연결쇠로 많이들 쓰고 있는데 이 는 모두 연결쇠로써의 機能을 못하는 不充分한 것이다.

철사의 굵기는 B.W.G.10(직경 약 4 mm) 이상 것을 권하는데 철사로 만든 것은 값싼 工事에만 쓰이는 것이다.

© 형은 두께 약 3 mm, 폭 20mm 이상의 철사로 만든 것인데 製作도 別로 어렵지 않고 연결쇠로써의 機能을 充分히 갖춘 合理的인 것이라 본다.

어느 경우이건 접재에 노출되는 부분(안 밖접에 붙이자

않은 부분)은 녹이 쑬지 않도록 타알 등의 防錆済를 칠하 여 耐久性을 더 한층 높이도록 한다.

(4) 방습켜: 建物의 必須條件의 하나는 濕氣의 浸害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습켜는 이를 解決해 주는 役割을 하는것 中의 하나다. 壁体가 濕해지는 여러가지 原因中 으뜸가는 것은 壁에 接한 地面에서 主細管 形狀으로 스며 올라오는 濕氣인데 이를 막아주는 役割을 하는 것이 水平방습켜다. 이 방습켜는 地面에서 위로 10~30 cm 되는 높이의 壁体에 두도록 해야 한다. 10cm 미만으로 너무 낮은 곳에 位置하면 外壁面에 接한 흙이 혹시 이 방습켜 보다 높이 쌓이게 되면 이로부터 방습켜 위의 壁体에 水分을 伝하게 될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그림A 참조)

방습켜로서 쓰이는 材料

① 01스팔트 펠트: 방습처로서 가장 簡便한 材料는 아스팔트 팰트다. 되도록 두꺼운 것을 벽두께 폭으로 길게 깨끗이 오려서 시벤트 모르타르는 엷게 편 위에 깔게된다. 짧아서 잇을 때는 최소 10cm가 겹치도록 하고 모퉁이나 十字로 交叉되는 部分에서는 폭 전체가 겹치도록 해야 한다. 이 위의 벽돌쌓기는 모르타르를 펴고 쌓는다. 방습켜도 다른 줄눈과 같이 나중에 모르타르로 줄눈마감을 해야 한다.

아스팔트 델트에 Bitumen 이 잘 품겨 지지 않아 방습 켜로써 믿을 수가 없을때는 두장의 아스팔트 펠트 사이에 같은 폭의 비닐을 넣어 3장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비닐과 뫨트가 접하게 되는 面의 펠트에 묻어 있는 모래 는 제거하여 工事中 비닐의 破損을 막는 同時에 비닐과 펠트의 密着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아스괄트 펠트 방습겨는 돌쌓기 벽체에 해서는 않된다. 이는 거칠고 날카로운 돌면에 의하여 펠트가 쉽게 破損되 기 때문이다.

아스팔트: 아스팔트를 녹여서 두께 약 1 cm로 깔아 방습켜로 하는 수가 있다. 이 경우는 아스팔트를 外壁面보다 약간 들어가게 깔아 나중에 모르타르 줄눈 마감을하여 검은 아스팔트 때가 보이지 않게 함과 동시에 여름철 뜨거운 햇볕에 아스팔트가 흘러내려 壁面을 더럽히는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방습켜는 不浸透性이고 다소간의 不等沈下엔도 잘 상하지 않기 때문에 돌쌓기 벽체의 방습켜로써 좋다.

슬레이트: 이 방습커는 양겹의 각 겹과 같은 폭의 슬레이트를 1:3의 모르타르로 2켜 이상 짠 것이다. 모르타르를 벽돌 위에 펴고 첫 슬레이트를 맞댄 잇음으로 짠다. 그 위에 다시 모르타르를 되고 제 2켜의 슬레이트를 제 1켜 것과 같이 반이 겹치도록 놓아 잇음이 서로 앗갈리도록 짠다. 그 위에 모르타를 펴고 벽돌 쌓기를 계속한다. 슬레이트는 폭이 벽 두째를 충분히 덮고 길이가 최소 20cm를 넘는 것이라야 하며 나중에 출눈 마감을 깨끗이 하도록 한다.

注意할 것은 안접 것과 바깥겹 것을 独立시켜서 따로따로 깔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겹을 덮는 넓은 슬래이트는 오히려 水分을 伝達하는 다리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남: 高価이나 아주 効果的인 방습켜이다. 두께 1 mm 정도(이보다 다소 얇아도 됨)의 납판을 아스팔트 펠트깔기 때와 같이 잇음을 점치돈가 또는 땜질한다. 注意할 것은 이 경우의 모르타르는 石灰모르타르를 써야 하고 납판에는 자국을 잘 내어 모르타르가 잘 붙게 해야 한다. 石灰모르타르를 야 하는 理由는 멘트는 化学作用 으로 납을 腐蝕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鋼: 매우 우수한 방습켜이다. 동판은 최소 무게가 5 kg/m² 되는 것을 써야 하며 납 방습켜와 같이 겹치든가 때고 石灰이나 시멘트 모르타르로 깐다.

Ⅲ 결벽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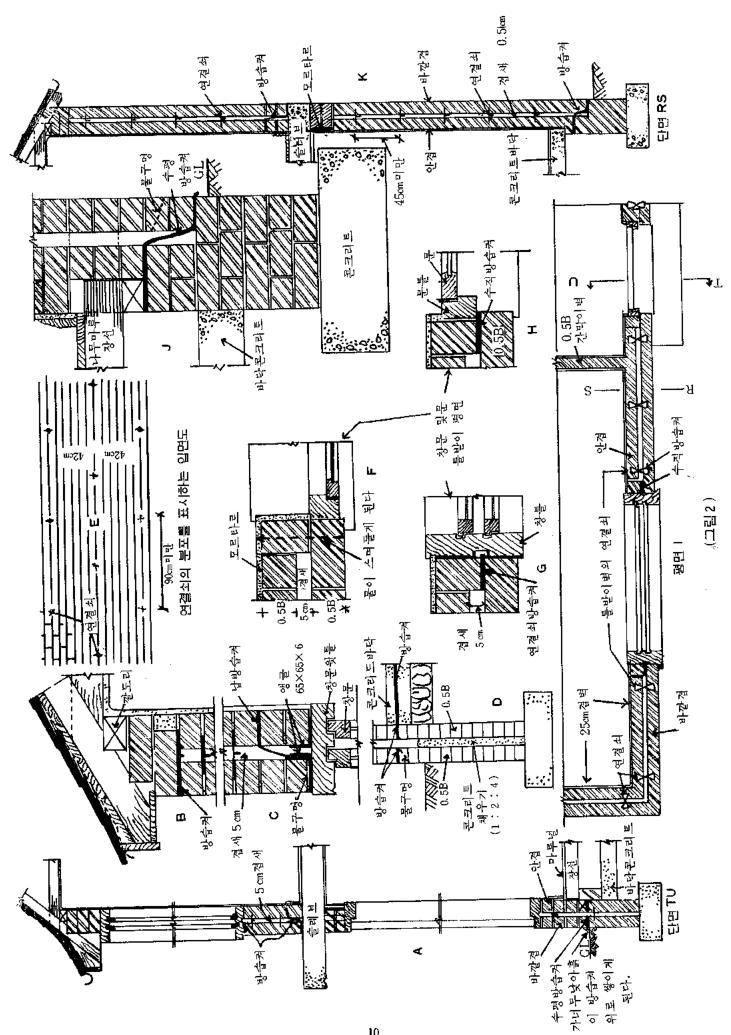
겹백체의 基礎는

- ① 그림 2의 A의 경우와 같이 겹새를 基礎版까지 연 장시키는 경우와
- ② 그림 2의 J또는 K와 같이 겹새를 방습켜 밑 15~ 30cm 까지만 연장시키는 2가지 경우가 있다.
- ①의 경우는 땅속의 바깥겹을 통하여 스며든 물이 겹새에 고여 안겹을 지나 建物 밑 바닥에 퍼지게 되어 建物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침새에 고인 물이 얼게 되면 팽창하여 基礎가 파괴될 우려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와같이 겹새를 基礎版까지 연장시킬 때는 그림 D처럼 겹새에 地面위 약 5 cm 높이 까지콘크리트를 채워 물이 고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의 콘크리트의 配合比는 1:2:4이고 粗骨材의 最大치수는 2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위 ①, ②의 어느 경우이건 방습켜 밑의 겹새에는 물이 고이지 못하게 하게 하든가 고이드라도 이것이. 방습켜 위의 壁体에는 미치지 못하도록 방습켜 바로 밑의 바깥겹 수직출눈에 그림 D나 J와 같이 겹새에 通風作用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작은 물구멍을 군데 군데 내두는 것이 좋다.

수평 방습처는 그림 A와 같이 바깥겹용과 안겹용을 完全히 分離시켜서 깔든가 그림 K와 같이 바깥겹에 깔리는 것을 안겹에 깔리는 것보다 벽돌일 경우 2~3켜 밑으로 까는 方法이 있다. 나중에 説明되는 겹새의 通風作用을 막기 위하여 後者쪽을 권 한다.

연결쇠는 水平간격 最大 90cm, 垂直간격 最大 45cm(벽돌일 경우 6켜마다)로 놓되, 그림 E와 같이 Zigzag가되도록 위 연결쇠는 밑의 연결쇠의 중앙에 오도록 놓아



야 한다. 또 壁体의 安全을 돕기 위하여, 그림 I에서 보는바와 같이 벽 양 모퉁이와 문이나 창문이 시작되는 벽 끝마구리에는 垂直간격 最大 45cm마다 반드시 놓아야 한다.

바깥겹을 벽돌 안겹을 불록으로 한 때와 같이 양 겹의 켜의 높이가 다른 때에는 높이 45cm 내에서 양겹의 높이 가 거의 一致되는 곳에 놓으면 된다. 이때의 연결쇠는 바 깥면 쪽이 수그러지게끔 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수병방습켜는 또 地面이나 2층 슬래브 위 뿐만 아니라 창문이나 문틀 바로 위에도 그림 C와 같이 두어야 한다. 이 경우의 방습켜 길이는 창문 폭이나 문폭보다 길어서 그 양 끝이 각각 10~15cm 가량 틀을 넘어가게 해야한다. 그리고 겹새에 고인 물도 빠질 수 있도록 물구병을 내야하는데 이 때의 물구병은 그림의 점선처럼 방습켜 바로위에 水平되게 낸다.

그림의 앵글은 인방役割을 하는 것이다. 앵글의 최소 단면 크기는 50×50×6 으로 하고 그 끝이 양壁에 각각 15cm 이상이 뭍히도록 해야 한다.

창틀이나 문틀이 서는 곳과 같이 양겹이 이어지는 부분 (틀받이 벽, Jamb)에는 그림 G나 H처럼 垂直 방습켜를 무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 된다. G는 방숩켜를 문틀에 판 홈에 끼우도록 한 것이고, H는 바깥겹을 약간 내밀어 방숩켜가 문틀과 바깥겹에 의하여 물리게 한 것이다. 그림 F는 이 垂直 방숩커를 안했기 때문에 이 部分에서 물이 스며드는 経路를 点線으로 표시한 것이다.

2층 슬래브 밑이나 처마 部分의 겹새 上部는 그림 A 나 K에서 보는바와 같이 바깥겹에만 방습켜를 두고 마구리쌓기로 겹새를 막아 슬래보나 지붕荷重이 양겹에 分布되도록 해야 한다. 이 때의 마구리 쌓기는 최소 벽돌 2 켜는 쌓아야 하는데 슐래브 콘크리트를 칠 때 콘크리트가 겹새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윗켜 벽돌은 밑켜 벽돌垂直출눈 中央에 오도록 놓아야 한다. 바깥 겹에 방습켜를 둔 理由는 이 방습켜 밑에서 젖은 壁体의 많은 물이 마구리쌓기 한 벽돌을 통하여 안겹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기 위합이다.

Ⅳ. 召백構造에서 注意할 点

1) 겹벽체의 効果를 높이려면 바깥겹과 안겹이 多孔性物質에 의하여 連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組積할 때 떨어지는 모르타르가 연결쇠 위에 쌓이든가, 벽돌의 不均一性으로 因하여 안바깥겹의 1部가 맞닿을 때는 이것이 水分을 안겹에 천달하는 역활을 하게 된다.

모르타 르가 겹새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겹새 5 cm보다 폭이 좁은 4~4.5 cm×6 cm 이상의 단면을 갖는 질이약 2 m 되는 角木을 이용하면 된다. 이 角木 양끝에 쇠

줄을 맨 후 연결쇠 위에 올려 놓고 벽물을 쌓아 올라가다 가 다음 연결쇠를 놓을 때 이를 끌어 올리면 겹새에 떨어 저 쌓였는 모르타르를 끌어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겹 세에 빠져 나온 줄는 모르타르도 긁어 올릴 수가 있다.

가장 좋은 方法은 연결쇠 위에 떨어진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이를 호스를 이용하여 씻어 내려 바깥집 밑에 임시 로 내 놓은 구멍을 통하여 집새 밖으로 흘러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추기지 않고 쌓는 벽돌 壁体에 물 을 주게 되는 것이므로 壁体의 養生에도 좋다.

- (2) 겹새에 対流作用으로 因한 通風作用이 생겨서는 않 된다. 通風作用이 생기면 防湿効果가 極히 떨어져 겹벽 의 구실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欠如된 줄눈이 생기지 않게끔 특히 새로줄 눈에 모르타르가 꽉 차도록 쌓아야 한다. 바깥겁이 붉은 벽돌일 경우 이를 補充하는 方法으로 줄는 마감할 때 줄눈이 벽면보다 돌출되는 둥근 줄눈으로 마감 하면 좋다.
- (3) 천정마감이나 내벽 모르타르 바름할 때 角木발판을 고정시키려고 안접에 임시로 뚫어 놓은 구멍을 나중에 막는 경우 벽돌을 꽉 틀어 박아 바깥첩에 그 마구리가 닿게되게 하기 쉬운데 이는 지금까지 정성들여 만든 겹벽을 完全히 亡치는 것이니 바깥겹에 닿지 않도록 特히 注意를 要한다. 또 콘센트나 스윗치 등의 電気設備를 할때도 양겹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험에 의하면 연결쇠 役割로 시멘트 벽돌 1개를 써서 양겹을 모두 시멘트 벽돌로 쌓아 內外鑒面을 모르타르 마감 하였드니 그리 세지도 않은 30分 동안의 비에 內壁面이 直経 약 30㎝ 가량이나 젖어들어 왔음을 보았다.

以上을 要約하면 겹벽은

- (1) 可能한 곳이면 양결이 맞닿지 않게 할 것.
- (2) 겹새에는 모르타르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고연결 쇠 위의 쌓인 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 (3) 水平 방습켜는 안밖것을 따로 따로 独立시켜 두던가 바깥겹 것이 낮게 高底를 두도록 하고 겹새는 이로 부터 최소 15cm는 낮아야 한다.
- (4) 開口部 上部에도 납이나 적당한 材料의 방습켜를 두 어야 한다.
- (5) 문틀이 서는 틀받이 벽에는 垂直 방습켜를 두도록 해야 하고 외겹 벽체로 해서는 안된다.
- (6) 벽돌이나 돌의 突出된 部分은 따내어 겹새가서로연 결되지 않게 해야 한다.
- (7) 물구멍은 地上이나 슬래브 윗部分에서는 水平방습 켜 바로 밑에 두고 인방이나 문를 윗 部分에서는 水平방 습켜 바로 위에 두어야 한다. 겹새의 通風作用을 없애기 為하여 기타의 어떤 구멍도 있어서는 않 된다.
- (8) 연결쇠는 반드시 防錆處理가 되어 있어야 하며, 빗물이 伝達되지 않는 모양이어야 하고 또 그 위에 쌓인 것은 쉽게 除去시킬 수 있는 모양이라야 한다.

建築史의 意義

曹 建 永 付き市都市計劃委員

1. 西洋建築史가 우리나라의 建築教育에 있어서 当然한 커리큐럼으로 여겨지고 있는 지, 벌써 반세기가 넘게 되 었다.

또한 韓国建築史도 여러学校의 강좌로 등장되어 있고 現代建築論, 또는 近代建築論이라는 이름의 一次大戰 이후의 서양건축호름에 관한 近代建築史도 여러학교에서 강의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西洋建築史를 代表로 한 여러 建築史教育이 과연 意義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만일 意義가 있다면 어떠한 意義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의 강의方向과 方法은 직절한 것인지, 그리고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의 "愚問"같은 질문을 던져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러한 質問에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建築史教育 状況이어떠한 경과를 거쳐왔나를 살펴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 近代史 모든 部門의 性格에 그렇듯이. 建

2. 우리나라 近代史, 모든 部門의 性格어 그렇듯이, 建築史 또한 日本帝國主義의 強占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古代에 日本으로 中国文化를 건네주던 차넬이었듯이 近代의 日本은 우리에게 西欧文化를 건네 준 차넬이었다.

19세기 후반에 성립된 明治政府는 봉건적 여러 制度나 봉건적 思想의 타파를 為하여 유럽 近代文明의 積極的 수입을 도모했다. 철도의 개통, 전신 전화와 우편의 개시, 가스등의 사용, 벽돌로 만든 서양식 건축, 洋服의 도입, 쇠고기를 먹고 맥주를 마시는 洋食의 보급, 상투를 폐지하고, 이발을 하고, 또한 태양력을 채용하여 1 日 24시간, 週日制를 취하여 日曜日을 휴일로 정하는 등, 文物, 制度, 風俗, 習慣의 모든 面에 걸쳐서 改革이 実施되어 欧美風洋式이 판을 치게되었다. (*1)

이러한 内地(日本)의 洋風輸入은 時差를 두고, 그리고 약간의 曲解를 거친 채 半島(韓国)에 까지·고스탄히 전달 되었다.

우리의 建築史教育의 出発 또한 그러한 백락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日本의 建築史学的 확정과 우리의 그것이 거의 類似함을 意味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日本에 있어서의 建築史活動을 살펴봄 으로써 우리 자신의 建築史活動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는 期待는 별로 무리가 아닐 것이다. (*2)

3. 西欧諸国의 建築史 研究方法이 建築形態에 関亞 意匠

論, 또는 建築理論에 関한 芸術史로서의 傾向이 농후 하거나. 美学的 批評에 関한 芸術論史로써의 傾向, 또는 技術史論인 意図가 強하였다면, 日本의 建築史 研究方法 은은 대체로 歷史科学的 伝統이 強해 왔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傾向의 原因으로서 우리는 日本에서의 建築史学 이明治維新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시日本建築은 古代로 부터 江戸代까지 그야말로 木構造의건축뿐이어서 明治維新과 더불어 導入된 四洋建築術은 古来의 日本建築과는 엄청난 断層을 形成시킨 것이다. (*3)

日本이 近代国家라는 洋態를 보이기 위해서, 西欧가 20 00年 이상 発展시켜 온 建築術을 明治 30年동안에 消化시키려 들었다는 것은 곧 消化不良症勢를 일으킬 조점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무비판적으로 導入된 当時 西欧의 折衷主義的 建築術은 東洋人에게 어떤 面으로는 新鮮態을 주었고 自身들의 過去의 악몽같은 前近代的 歷史状況으로 부터 점점 脱出해 나간다는 느낌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西洋建築(崇仰의 대상인) 그 自体로써 與解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現代建築의 観点에서 볼 때 가장 創造性이 저조했던, 그리고 가장 많은 虚飾性을 지니고 있던 折衷主義 建築術의 豁 弱点 및 矛盾은 고스란히 東洋 땅에 移映된 것이다.

그리고 折衷主義 건축方式에서 가장 重要視된 建築史教育 또한 建築修業에 있어서 必須的인 코스로 看做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희비국은 明治維新代의 조급한 日本人들이 西洋의 절충주의 諸様式을 速成코스로 마스타하고 난明治中期晉, 이들의 核苦努力을 비웃가나 하듯이 西洋建築史가 코페르니스的인 転換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일어난다. 즉 西欧建築은 当時의 折哀主義를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철과 유리, 콩크리트등 새로운 材料와 各 部材에 対한応力解析方法의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能率과 効用이라는 機械美学에 基礎를 둔 近代建築의 時代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4. 이리하여 이들은 당황하기 시작한다. 建築家가 無日 構想하여 圖面化해야 하는 建築技術과 意匠術의 供給潮이 었고 西欧建築 그 自体이었던 折哀主義 建築이 한물 간것 이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즉 近代로 나아가는 模 做의 対象이 漠然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自身들의 伝統的 建築에로 돌아 잘 立場은 못되었고 돌아 갈 수도 없었다. 이런 영거주춤한 姿勢가 오늘날에 까지 그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동적으로 그 弊 書를 물려받게 된 것이다. 그 例로 日本예서의(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建築史冊을 보면, 工業高等学校교과서로부터 建築学大系, 내지 一般的으로 建築史라고 이름붙여진 어떤 채에도 日本建築史, 西洋建築史의 三区分이 되어 있다. 또한 美国建築学会誌의 教育特輯에 나타난세계各国主要大学 講座一覽表를 보면 近代建築史라는 講座가 있는데는 東京大学 뿐이다. (*4)이처럼 建築史가 세 살래로 나누어져야만 하는 與象의 根源을 우리는 明治代의 消化不良 증세가 극복되지 않고 固着化된 사실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5. 왜냐하면 建築史란 그 本質에 있어서 実際 建築活動 을 前提로 하고 있기때문이다. 日本의 建築史学이 이처럼 복잡하게 됐다는 것은 建築史가 建築実践과 正当한 관련 을 맺지 못하고 展開됐음을 意味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 는 "閑聠"은 보자르的, 折衷主義的 관계를 말하는 것은아 니다) 日本의 西洋建築史研究가 明治前半期에 있어서는 日本의 近代化를 상징하는 洋態의 具規이라는 확고한 目 的意識을 가지고 시작됐다가 近代建築의 동장과 더불어 " 建築史 自体量 為한 建築史"와 같은 고루하고 무기력한골 동품의 모습을 자니게 된 것은 建築史本然의 目的을 잃어 버린 데서 그 主要한 原因을 찾을 수 있을것이다. 이러 한 "化石化"과정 때문에, 当然히 이어져야 할 近代建築史 와 所謂 西洋建築史間의 맥락은 서로 끊어지게 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日本의 경우에 있어서나 우리 의 경우에 있어서나 西洋建築史와는 다른 명칭의 近代建 築史, 또는 現代建築論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런 明治 代의 西洋 建築史存在의 特殊性이 그대로 反映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特殊性 즉 建築의 実践的活動과 建築 史研究間의 乖離七 日本의 建築史学의 伝統을 歴史科 学 的 側面이 強한 性格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다. 建築 史家는 社会的実践과의 고리를 끊긴 채 "建築史 独自 의 領域"이라는 孤立主義的 경향을 구축하여 말하자면 一種 의 史学者가 되버린 것이다.

6. 日本에 있어서 西洋建築史의 上陸은 古字, 斉藤 共訳 의(世界的建築史)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5) 너무나도 有名한 이 Flefther卿의 A History of Architecture on the comparotive method는 1896年에 初版이 나온 이래 17版을 거듭할 程度의 세계的인 베스트셀라이다. 日本에 알려진 최초의 건축 모인 이 때은 유럽人 (이중에서도 특히 人英帝国)이 自身들의 建築史를 中心으로 世界建築史를 살펴본, 본질적으로 自身들의 建築史가 곧 世界建築史를 살펴본, 본질적으로 自身들의 建築史가 곧 世界建築史라는 意識下에 쓰여진 것이다. 이 때은 또 어디까지나 西欧人의 안목으로, 그것도 19세기 후반의 芸術史的 建築史観을 가진 절충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文化芸術的 立場에서 技法, 圖像(inconoqraphy), 文様등의 諸様式과 그것이 주는 象徵的 意味를 파악하려는 努力이 集中된다. 그리하여 建築史는 각

時代가 갖는 樣式들 간의 相互交流, 그리고 그 交流에 따른 発展관계로 파악된다. 한마디로 折衷主義的 様式論으로 파악된다. 이런 立場에서 보면 建築史는 18세기에 그 大団團의 막을 내린 것이 된다. 왜냐하면 近代建築의 様式은 그 以前의 建築史 様式 어느 것과도 연관되지 않은 전혀 不連續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相互交流에 의한 様式論의 立場으로 説明될 수 없는 近代建築은 建築史의 対象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近代建築家들, 또는 近代建 築 을 옹호하는 批評家들이 한결같이 이들 折衷主義 時代의 史観에 対해 혐오감을 나타내는 것은 오히려 当然 하다 할 것이다. (*6) 그려나 이 혐오감에 의해 形成된 建築 史의 断絶상태는 近代建築自身을 위해서 좋지않은 "不自 然스러운"事件이었다. 오늘날 現代建築이 보여주는 混乱 의 根源을 이런 歷史的斷絶에서 찾으려는 주장이 많은 것 은 그 断絶에 의해 近代建築이 야기되기도 했지만, 現代 建築이 자신의 歷史的뿌리를 잃어버림으로 해서 그 自体 가 歴史的 生成物인 社会生活 또는 価値観속에 安定된 위 치를 차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여하튼近代 建築과 절충주의 건축 両潮流가 자기들 나름의 신념에의 해 만들어 놓은 建築史의 断絶은 日本에서 無批判하게 반 아들여져 西洋建築史에서는 있을 수 없는 断絶이 日本에 저는 現在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不自然스러운" 단절상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自然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 지고있다.

7. 이렇게 "断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建築 **史와 意匠論 내지 建築論사이의 確然한 区分도 조금도 어** 상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낳았다. 이러한 態度 가 日本에서의 西洋建築史研究分野를 歴史科学的인 独自의 方向으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그 後 自身들의 建築史인 日 本建築史연구도 그런 方向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歷史科学的 因襲的 研究方法論 叫是에 在来式 日本 建築 史伝通은 年代의 考証과 遺構의 実測調査를 주된 目標로 삼게 되었다. 日本 建築史는 하나의 正当한 建築史가 아 니라 歷史科学의 한 支流로서 차라리 考古学 그 自体인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가 된다. 이런 態度는 고스란히 우리 의 경우에도 통용되고 있다. 이런 態度가 서서히 깨뜨러 지계 되기 시작한 것은 建築史와 建築実践과의 관계가 목 셔히 회복되기 시작한 때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日本 의 경우 戰後経済회복에 따른 住宅의 大量供給問題가 크 게 부각되면서, 日本建築史에서 버림받고 있던 民家分野 研究가 活発해 저기 시작한다. 民家研究는 이제까지 주로 民俗学, 또는 人文地理学의 学者에 의해 이루어져 왔던 것이 건축家들의 관십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7) 특히 취락공간의 地域的 양식, 階層分布의 分析, 外部 空間의 形成技法等 綜合的인 方向의 研究는 大規模 취락 조사 活動과 더불어 活発해 지고 있다:

西洋建築史 分野에 있어서도 以前의 因襲的인 양식 론 을 깨뜨리고 새로운 視覚으로 西洋建築史를 재구성 하려

는 시도는 日本建築이 世界的인 活動舞台를 가지게 되면 서 부터이다. 특히 中東과 아프리카쪽에서 많은 프로젝트 가 발주되면서 부터 世界건축사에 対한 재검토가 必要해 졌던 것같다. 熊本大学의 堀内清治教授를 중심으로 하는 하는 "地中海建築研究会"가 그 좋은 例이다. (*8) 이 들은 이슬람 건축에 중점을 두고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建 築伝統을 説明하기 좋게만 中近東과의 交流를 해석 하는 것을 반박한다. 즉 中近東建築에서 西洋건축, 中国, 日本 까지 海路로 연결된, 相互 密接히 연결된 文化圈을 생각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地中海라는 바다 연안 의 여러 영역,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북아프리카, 그 리스에서 멀리는 美国東北岸까지 이르는 지역을 하나의 交化圈으로 가정하게 된 논리이다. 그들은 이런 文化圈이 라는 前提下에서 유럽 건축伝統의 特性을 찾아보려 한다. 이들처럼 世界건축사를 새로이 바라보려는 시도는 아마 도 유럽人들로서는 갖기 어려운 視覚일 것이다. 아직 調 査작업만이 착수되었을 뿐이나 建築史家들에게는 대단 하 흥미있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8. 이러한 변모의 대체적인 흐름은 크게보아 建築史와意匠論(建築実践에 밀접히 관련된)간의 간격을 좁히는 方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시 이 両者는 不可分의 관계로 近代建築発生期에 깨뜨려 짐으로 해서 여러 混乱이 점접 악화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建築史研究도 이러한 視点에서 반항(Banham)이 지적하듯 "建築徒의 教養을 쌓는 対象"이 아니라 실제의 전축창조에 기여하는 전축方法의 一部가 되어야 할 것이다. (*9)

우리의 경험中,建築史강의가 건축도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강의보다도 가슴이 설레는 강의였다는 거억은 (물론 첫시간만 그렇고 점점 지리하고 재미없게 되어가긴 하지만) 建築徒에게 建築史강의가 매우 배력적인 것으로 될수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의 가슴이 설레는 이유는건축사강의에서 自身의 장래의 건축活動 또는 자신의 建築家像 을 상상해 낼 수 있고, 무엇보다 建築이 무엇인가에 対한 해답을 구체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는 点에서였을 것이다. 이런 상상은 매우 正当한 것으로서 懸像도 幻想도 아닌것이다. 이런 상상을 感像이나 幻想으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建築史教育方法의 오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브루는 제비(Bruno Zevi)가 새로운 建築教育의 展開를 위해,建築設計를 建築史的 方法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야만 한다고 수장한 것은 바로 건축史가 가진 매력을 充分히 活用하자고 한 것이라고 보아진다. (*10)

9. 제비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까지의 様式論은 오류를범하고 있는 바, 그것은 建築史를 静的이고 圖式的인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建築史의 순간순간을 "오늘"(modern)의 状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또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建築史와 建築論과 建築批評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全体가 되어야 하는 바, 그 것은 建築史의 存在 自体가 建築論과 建築批評을 前提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建築史강의는 教養的知 識의 전달파정이 아니라 状況의 自体的 演習이어야 하며 말로써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建築의 道具로서 경험되어 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建築史의 內容을 이해 하려 는 意図는 그것이 歷史的 理解가 우리들 時代의 건축活動 에 必須的인 어떤 信念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 다. 그것은 建築史가 보여주는 여러 状況에서 思考와 実 践간의 여러 잘등이 如何히 극복되었으며 또 如何히 좌 절되었는가를 우리가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 축사 강의가 훌륭한 方法論을 갖출 수 있다면 建築徒는프 랑크·로이드·라이트(F·L·Wright)보다 더 잘라이 트의 建築개념을 이해 할 수 있고, 르·꼬르부제(Le Corbusier)보다 더 잘 꼬르부제의 건축개념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11)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建築史의 方法 이 過去의 아카테막한 줄거리 대신 새로운 開放的인, 그 리고 動的인 줄거리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만 된 다면 반함博士 및 다른 건축교육가들이 얘기하듯(*12)

建築徒는 스튜디오에서 많은 時間을 고뇌하면서 디자인 능력을 기르는 것보다 훨씬 効果的인 方法으로 능력을 기를 수 있다. 建築史라는 풍부한 宝庫는 学生들에게나 建築家에게나 創造力의 개발에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는것이다. 이것을 제이콥스(Jacobo)는 統察力(insight)을 얻는 方法으로 設明하고 있다. 기디온(Giedion)또한 "歷史는 事実의 集積이 아니라 変化의 根本을 파악하는 統察力"이라고 말하고 있다. (*13)

10. 이러한 建築史의 有用性 또는 活用性은 다시말해 서 建築史家가 어떤 時代의 建築実践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 칠 수 있음을 뜻한다. 建築史家는 자신의 同時代人에게" 하나의 統一된 時代感覚과 場所感覚"을 구체화시켜 주고 또 거기에 歷史的 妥当性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建築史가 建築実践에 直接 영향을 끼쳐 줄 수있 고 또 끼쳐 주어야만 하는 所以然이다. 이러한 뜻으로 반 함(Banham)은 가까운 장래의 状況을 과거의 그라프에의 한 外挿法으로 측정하는 것이 肂築史家의 임무라고 말한 다. (*14) 그러나 그는 또한 이러한 推定이 命令的이어 서는 안된다고 附書한다. 이렇게 전문적인 建築人에게 미 치는 영향력 이외에도 建築史家는 "취향決定"에 영향 력 있는 非建築人에게 歷史的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함으 로써 건축活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도움은 매우 중 요한 것인 바 그 이유는 建築生産은 그 特性上 건축가들 의 独自的인 努力이나 能力도 중요하지만 建築消費者들의 "취향決定"의 태도에서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 建築消費者들과의 (過去에는 王、貴族、승려, 近代에 와 서는 브로주아, 대중) 直接的 관련성은 건축과 다른 造 形芸術 (가령 회화, 조차, 공예등) 과를 구분해 주는 特 性이기도 하다. 다른 어떤 장르의 조형芸術보다 建築 이 그 生產에 동원되는 経済的 物量이 크고 또 建築物의 効 用性이 미치는 범위가 넓다는 얘기는 (아마도 그렇게 때

문에 建築에 "ARCHI"라는 접두사가 붙었을지 모른다), 逆으로 建築家가 수많은 사람 (生産과 消費에 관련되는) 을 설득시킬 수 있는 能力이 必要함을 뜻하며 同時에 그 사람들이 建築家의 論理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뜻한다. 이 바탕을 형성하는데, 建築 史가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있는 것은 추상적 논리보다는 具体的歷史경험이기 때문이다

11. 따라서 建築史의 목적으로는 建築의 生産者에게나消費者에게나 同一한 "하나의 統一된 伝通"을 수립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伝通의意味는 폭터 (Potter)가 얘기하듯 人間의 앞날의 행동에 対한 下測判断基準을 뜻한다. (*15) 即 전통의 定立 이란 現在의 状況을 具体的으로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未来의行動을 예측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過去에 어떤 事実이 있었다는 것이 그 事実의 正当性과 아무 관계없듯이, 伝通 그 目体에는 아무런 權威가 있을 수없다. 따라서 전통은 어떤 권위있는 知識의 集積이 아니라 思想이나 価値을 바꾸어가는 有機体的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전통은 부단히 새로 修正,定立되어야 하는 바, 그 理由는 歷史가 항상 옛 전통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 들을 우리에게 던져 주기 때문이다. 이런 폿터의 얘기를 建築史의 경우로 置換해 본다면 우리는 建築史의 目的을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여기서 이러한 建築史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경우를 西洋건축사에서 찾아 보기로 하자. (*16)

유럽의 독일어 사용국에서 베렌스(P·Behrens) 미스 (Mies van der Rohe) 로스(A·Loos)등의 전축가들이 一連의 새로운 作品傾向을 보여줬을 때 이들의 作品은도 리아(Dorian)的 建築精神을 基底로 하고 있었다. 즉 이 들은 당시의 와르·누보(L'Art Nouvean)적 경향에 기 인한 皮相的 裝飾主義에 反溌한 것이다. 이것을 이들이 過去一切를 否定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当時 建築史家틀 의 과오였다. 近代建築의 선구자들과 建築史的 전통 사이 에는 당시 批評家들이 皮相的으로 얘기했던, 断絶이 있을 수 없었다. 가령 로스(Loos)는 쉼뷀(Schinkel)을 위대 한 건축가로 숭배했으며 파톄 (Gulien·Guadet : 당시 Ec ole de Beaux Arts 教授)는 80年前과 거의 같은 建築 体系를 폐례 (A: Perret) 나 가르니에 (T· Garnier) 같은 急進派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다. 말하자면 近代主 義 創始者들은 古典主義的 土壤에서 자라났던 것이다. 그 들은 아카데미즘에 혐오감을 表明하면서도 아카데믹한 新 古典主義的 道具를 자신들의 作業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 렇게 古典主義的 伝通은 애당초 近代主義건축안에 수립되 어 있어서 20세기조의 80여년 동안, 秩序나 規律개념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이다. 即 機械主義, 技術主義의 現代 状況 또한 그 나름의 秩序를 要求하고 있었고 新古展主 義는 그 供給源이 되었던 것이다. 꼬르뷰제가 冊에서(Ve rs Une Architecture)機械와 古典的 建築을 対比 시키

고 그리스조자가 피디아스 (Phidias)와 現代의 自動車 디자이너를 対比시키는 것도 그러한 近代建築과 古典主義사이의 連續性을 보여주는 한 例가 될 것이다.

建築史의 連續性이 깨뜨려지는 것은 1930年傾 기다운 (Giedion)이 새로운 視覚으로 近代建築을 해설하기 시작하고 1936年傾 평스너 (Pevsner)가 近代建築의 発生過程을 설명하면서 古典主義나 아카데미즘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부터이다. 게다가 그즈음 제네바 (Ceneva)국제연 맹本部 현상설계를 가지고 아카데미즘과 近代主義가 正面충돌되면서 古典主義는 当時의 反動的아카데미즘과 同一視되어 몰락하게 된 것이다. 꼬르뷰제의 近代主義的 突과 아카데미즘에 充実한 案사이의 正面충돌은 本質的인 対立이라기 보다 皮相的인 様式上의 対立이었다고 보는 것이타당할 것이다. 여하른 이 事件이후 古典主義는 建築史로부터 은퇴하게 되고 이것이 二次大戦후의 近代建築 東洋사이에 知的混乱이 일어나게 된 背景이 된다. 이런 그것의 근원은 建築史家 및 批評家의 活動이 그 응분의 분류를 완수하지 못한데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13. 建築批評의 영향력이 建築実践에 크게 미친 海포식 는 英国과 미국의 新古典主義 부활을 들 수 있다. 영국에 서는 1950年 以後의 미스(mies)에 対한 評価예절 正反 対의 두 立場이 충돌됐다. (*17) 영국의 急進的 기능수 의자인 데이버스(Hewelyn Davis)와 윗트코어(Rudolph Whittkowen)派 사이에서 I.I.T의 크라운·홀(Crown Holl) 회사도를 두고 벌린 論争이 그것이다. 데이비스는 그 훠사드를 "無限을 나타내주는"技術美学으로 설명한 反面 윗트코어派는 그것을 "패배적 左右対稱의 古典美字" 으로 해석한 것이다. 후자에 의한 이같은 새로운 해석은 機能主義에 対한 권태와 知的不毛性속에 허우적거리된 당 시의 여러 建築家들에게 큰영향을 주어 古典主義精神 의 復权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新팔라디오니즘 (Neo-Pallad ianism), 新형식주의 (New Formalism)등의 이름으로여 러 記念建造物설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요 한센 (Johansen)이나 스밋손부부 (Alison & Pater Smithson)의 50年代 作品이 그려하다.)

美国에 있어서는 그로피우스, 서트(H. L. Sert) 브로이어(Brewer), 미스(Miss)등의 支配下에서 기를 펴지 못하던 에끌 테보자르的 전통이 비평가 出身인 존순(Philip Johnson)의 노골적인 古典主義부활시도로 다시 活気를 되찾게 된다. 존슨이 建築家가 되기 前에 뉴욕 近代美術館(Modern Museum)의 건축부장으로서 建築史活動에 종사하였던 사실은 미국건축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최초의 작품인 "유리의 집" (1949 自宅)을 보면 그의 스승 미스의 영향이 두 럿이 보여지고 있으나 동시에 그것을 국복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 그로부터 5年간 의 독립운동(미스로 부터) 끝에 그는 古典主義的 전통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흔히 죤슨을 無節制한 折衷主義 作家로 공격하고, 또 사실 그러한 側面도 있기는 하지만, 그가 미국現代建築의 물파구를 열었다는 공로는 누구나인 정해 주어야반 할 것이다.

같은 古典主義的 정신의 作家로 알려지고 있는 칸(Louis Kahn)또한 40代까지 거의 批評活動만을 하여온작가이다. 에끌 데 보자르식의 建築修業을 받은 그는 末年에 即 50年이후 近代主義가 退潮하기 시작할 무렵 예일 대학교美術館, 필라델피아대학의 研究所등 作品活動을 시작하여 現代建築의 흐름에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된다. 그 외에끌 · 데 보자르的 伝通은 죤슨과 같이 노골적이지 않고미묘하고, 신중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념으로써 建築界는 물론 특히 建築져밀리즘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美国에서의 新古典主義 復权은 機能主義 建築家들의 規律이문한해지고 美国건축의 분위기가 進取的으로 되어가는시기, 즉 美国의 全体建築生産이 景気上昇과 더불어 팽창되었던 시기와 일치하며, 그로피우스가 하바드大에서 물러나는 시기와도 일치하다. 이 復权운동은 주로 建築史내지 批評活動에 종사하던 建築家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이후 죤손, 칸, 요한센, 루돌프, 야마사끼등 같은 계열의 作品活動이 두드러지게 되며 특히 60年代 이후의 建築져널리즘의 作品賞선정기준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18)

註

- *1:太極出版社:大世界百科事典. 5. 歷史祖 P464.
- * 2 : 왜 굳이 日本의 경우를 살펴야 되는 가를 묻는다면 할 말이 없다. 중요한 이유中의 하나는 日本에 있 어서는 建築史教育에 対한 反省이 活発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歷史的状況에 対한 정리가 비교적 잘 되 어 있기 때문이다.
- *3:現代の建築と都市編集委員会、編, "現代の建築 と 都市" PP433~436
- *4: ibid PP441~442
- * 5 : ibid P438
- *6:가령 바우하우스에서 그로피우스는 건축사강좌 자체를 빼버렸다. 바우하우스의 이념과 당시의 反動的史観과는 완벽하게 상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パ門人門ス"美術出版社刊, 1968
- *7:日本의 경우 1955年까지 研究協議会, 討論会, 合同 調査등 活動이 있어오다가 1962年 建築学会에서民 家調査의 基準이 作成되고 이에 따라 研究는 본 궤 도에 오르게 되었다.

"現代の建築と都市"op. cit. PP435~436

*8: 堀內교수 자신의 소개에 의하면 이 연구화가 이제 까지 서양건축사에 중요한 비중을 두는 것은 歷史 的으로 最古의 건축발생지이기도 하지만 東西洋건축의 접경지로서 세계건축史의 중심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bid PP443~444

*9: Reyner Banham: "Historical Stadies and Arch-

14. 이제까지의 建築史와 建築実践間의 관계가 밀접한관계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建築史는 우리自身의 문제를 파악하고, 제기하고, 그해결方向을 제시하는 意義 이외의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따라서 우리에게 必要한 자세는 우리自身의 地域이 요구하는, 그 地域에 意味있는 建築状況을 다룬다는 意識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슬라이드나 그림으로 보는 관광여행식의 皮相的자세가 거부된다. 우리의 建築史는 우리 自身의 地域的 伝通의 連續性을 강조하여야 히며 우리自身의 特殊한 문제와 그 문제의 特殊한 気候帯에서의 解決이라는 데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다. 建築은어디까지나 白紙의 状態에서 마음껏 自由롭게 제작될 수있는 彫刻的 造形物이 아니고 不毛地의 사막이나 建築雜誌속의 虚空에서 이루어지는 짓도 아닐 것이다.

建築은 항상 具体的 場所와 状況에서 具体的 人間 들의 具体的生活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建築은 섬머슨(J. Summerson)의 말과 같은(*19) 自身의 固有한 辦証法 的 論理로 전개되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孤立主 義로 나아갈려는 傾向을 깨뜨려 주는 것이 建築史 本然의 意義라고도 불 수 있을 것이다.

itectural Criticism" outtet (Bartlett School Magazine) No. 55 (1964). P46

- *10: Whiffen編: "The History, The any and Criticism of Architecture" P17
- *11:가령 Le Corbusier의 Soroge로 부터 Ronchamp 까지의 편력에서 꼬르뷰제자신의 変質을 엿볼 수있다. 즉 그의 초기에 科学的 実験정신에서 神秘的 경향으로 退化(?) 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이 관찰은 꼬르뷰제 자신의 입으로는 말해 질 수없는 성질의 것일 것이다.
- *12: ibid P68.
- *13: ibid P48.
- *14.: Reyner Banham. "The History of immediate Future" P252. A. R. 1960.
- *15: Popper에 対한 Stanford Anderson의 소개참조Whitten編: op. cit. P. 80
- *16: "Knaurs Lexikon Der Modernen Mrchitektur." 창성준訳 民音社刊 "現代建築事典" PP. 203~204.
- *17: ibid PP 204-205
- *18: ibid PP 165-166
- *19: Sir John Summerson "The case for a theory of modern architecture." RIBA Journed 1957 June. PP307~310

여기에서 섬머슨은 建築이 建築生産과 分離되어 自身의 固有한 변증법(dialectic)을 전개한다"고 말하고 있다.

未來의 定住環境-建築技術의 可能性 (2)

趙英武(定任芸房,建築家)

(줄거리) 한국 2,000년 국토계획상, 「G. I. A. P」의 미래적예견건축, 20세기 전반기 건축의 개혁적인 것을 논한 다음에, 1장 중추도시들 - 공중도시들의 1부분을 다룬데이어서 이번에는 1장 중추도시들 - 공중도시들의 남어지 부분, 2장 지하도시들 - 두더지도시들, 3장 여가도시들, 4장 농업도시들, 그리고 5장 교상도시들 등에 대하여 쓰고저 한다.

1章 中枢都市量一空中都市量

전번의 長城状都市, × 状都市, 気送動路回路를 가진 未来 都市 등에 이어 계속 중추도시들—공중도시들에 대 하여 쓰고저 한다.

[4] V. M. Tyler와 C. T. Asiat의 環状都市

(La ville modulaire circulaire)

環状基準単位都市는 직경 1,000英国式乘馬法의 환상주 위에 배치한 12쌍의 塔状建物群들로 형성된다. 이런 좁은 기준직경 내부에 있는 땅은 주민들의 오락활동등에 충당 되고 또 자동차들의 운행이 금지된다.

주거건물들은 약 100층이 되며, 그 전물들의 식별은 필 요에 따라 손을 쓸 수가 있다. 저층부분은 주차장으로 쓰 여진다. 공업활동들은 지하 또는 분리되어 있는 건물들속 에 분산된다.

서비스시설들과 일터들과의 주거들의 연결방법은 이동 구간의 확대를 줄일 수 있게 고려하고 있다. 대량교통은 3층에서 운행하고 있는 투명한 외벽과 공기조정 장치를 사용한 管状体속에 설치한 動路의 原理에 의하여 수행된 다. 지하교통수단들은 이 좁은 기준 직경주변에 배열하고 있는 12쌍(24개 탑상건물들)의 건물들간을 서로 연결하게 된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직경 외주의 교통에나 사용될 것이다.

이 예견적 계획안은 미국도시를 내부의 교통문제 들과 관련된 중요할만한 이상을 보여주고있다. 도시교통에 있 어서 자동차의 역활을 줄이기 위한 대량교통 수단들의 광 범위한 응용 및 시도는 주목할만 하다. 조금씩 속도가 빨 라지게 조종되어 있는 平行三列의 動路들은 제너럴·모터 스 회사가 제안한 「Futuram」모형을 응용한 것이다. 이 탑상건물군은 시카코의 Marina city의 실례를 연상 시켜 주고있다.

[15] Walter Jonas의 内向都市(L'intrapolis)

스위스의 전축가인 Walter Jonas가 계획한 内向 都市는 그 옥상대지들을 서로 공중가교로 연결한 漏斗体(Cite entonoire) 또는 漏斗体群(7개)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경우에는 逆円錐体라고도 부르고 있다. 이 漏斗体의台/座(socle)에는 점포들과 학교들이 배치된다. 7개의 漏斗体群이 人口 10.2万인의 한 도시단위를 형성하게 된다.

과거의 도시들에는 모든 주거들이 외향적으로 개방되어 있는데 비하여, W. Jonas는 모든 도시주거들이 일종의거 대한 内庭을 향하여 內向的으로 개방되어있는 도시를 구 성하는 착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編斗体는 약100 m높이의 아랫쪽 1/3까지는 인공조명으로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백화점들과 영화관 등을 위한 시설들이점하는 인 곡분지 또는 계곡을 가지고 있다. 이 아랫쪽 1/3부분 은 어느 면으로는 内向漏斗体의 台座部分(Socle)이다. 이台 壓部分은 초목들을 심은 중앙광장을 가진 상부구조에서 끝 나게된다. 첫째 환상대지에는 학교가 자리잡고, 그 다음 충의 환상대지로부터 아파아트 주거들이 자리잡게 된다. 이 내향도시는 여기의 꼭데기층을 점하고 있는 아파아트 에 이르기까지 각 평지붕들이 초목을 심는 정원들로 사용 되기 때문에, 아주 나무들이 많아진다. 경사에레베터, 에 스카레터, 그리고 계단들은 산책장으로 사용하는 옥상에 이르기까지 漏斗体의 각충들간의 교통을 보장하게 된다. 이 옥상 산책장은 인접해 있는 다른 漏斗体의 옥상 산책장 과 공중가교로써 연결된다. 그러므로 각 漏斗体는 漏斗体

들의 並置에 의하여 구성된 内向都市의 한 자치적 주거단 위를 이루고 있다. 이 漏斗状建築体를 밑에서 그릇 반침 대 모양으로 반혀주고 있는 지하층은 지하주차장들을 마련할 수 있게 만든다. 공업의장가 George Patirck은 지면을 고려하여 각 漏斗体들을 개성있고 다양하게 식별 할수 있도록 아주 多色化한 색칠을 구상하였다는 것을 부연하고 싶다. 이런 다음 内向都市를 조각할 때, 内向都市는 마치 선경과 같이 보이고 또 색칠한 漏斗体들은 커다란꽃들과 같이 땅위에 솟아있게된다.

주거용도의 누두체는 그로부터 멀지않은 곳에 있는 노동용도의 누두체와 분리되어 있다. 산업 또는 교역 등에 쓰이는 누두체는 아주 더 엄격하고 또 아주 더 고층 화되어있다. 휴양용도의 누두체는 내향도시 가운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교통하기가 쉬워진다.

内向都市는 대단히 다양한 형체들을 가지고 있다. 이형 체들은 八角漏斗体, 六角漏斗体, 円形漏斗体등이 될수도 있다. 최초의 것들은 인장철근콩크리트造로 만들어진 것이 있다. 그러나 그 다음 대나무줄기를 잘라서 나팔꽃모양으로 펼친 강철관들을 강철케이불을 가지고 결속 하여만들었다. 도시인공대지들을 형성하는 강철제 대지들이이 강철관 줄기들에 매달려 있게된다.

그려므로 이런 人工台地들이 이 신도시의 첫째 원리가되는 것이다. 과거와같이 단지 땅위에서 도로들과 직접 연결되는 단체건물들을 짓는 대신에, 우선 한 전체적인 도시구조체부터 건설하는 것이다. 도시는 우선 교통 체계인 것이다. 교통체계란 콩크리트와 강철로 만든 전체적인 도시골조 즉 골각인 것이다. 이 골각에다가 공급조직인 혈액체계와 교통조직인 중추체계를 체가하는 것이다. 주거, 상업, 업무, 공장 등 각종기관들이 그 다음에 여기에 갈라서 나가게된다. 틀림없이 이것은 과거에 생각하고있던 관점들과 정반대 과정이 되고만다.

이런 逆轉과정이 주거, 상업, 업무, 공장등 각종 기관 들의 充血 또는 貧血을 피할 수 있게 만든다.

16 Paul Maymont 의 円錐状垂直都市

(La ville verticale en cone)

인공대지들이란 바로 大門式住宅(porte-maison) 構造 이 것이다.

그 실례로서, 프랑스의 건축가 Paul Maymont은 철근 콩크리트로 만든 직경20m의 中央塔에 의하여 형성하는 피라 및状都市 또는 円錐狀垂直都市를 구상하였는데, 이 中央塔은 수직교통에레베터들과 더불어 이 中央塔에 가설한 거대한 거미줄 같은 鋼索들을 한꺼번에 수용 또는 지지하고 있다. 이 鋼索들은 한 円錐体의 人工台地들을 지지하고 또 모든 도시요소들을 이 인공대지상에 배치할 수 있게 만든다. 이 円錐狀都市는 바로 그 자체가 수평 및 수

직의 도로들을 가진 하나의 山일 수 있으며, 또 투명한 이 山은 높이가 125m가 되며, 1.5~ 2 만인을 군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Walter Jonas의 爛斗体와같이 각 鬥錐体는 도시의 한 자치적주거단위를 형성하게 된다. 주택들, 극장들, 학교들, 검포들 등을 층층히 쌓아 올리고 있는 50개의 이른바 에펠榕들과 같이, 이 공중가교들로써 서로 연결한 그리고 찬란한 색칠을 한 50개의 円錐体들만으로써 인구 100만인의 한 도시를 구성할 수 있게된다.

이 円錐状建築体들은 지상 50m위를 통과하는 메트로선 로들과 자동차도로들에 외해서 서로 연결되다. 그 결과로 이 수직도시의 지면은 넓게 녹지로 뒤덮히게 된다.

Paul Maymont은 이 밖에도 海上都市들, 빠리의 Seine강저의 技術都市(La ville technique), 그리고 달세계 위의 宇寅人都市 등을 계획하였다.

[17] Dan Giuresco와 Cointe의「α」都市 (La ville-alpha)

内向都市、円錐状垂直都市에 이어서, 건축가 Dan Giuresco와 공학가 Cointe가 계획한 「α」都市를 살펴보기로 한다. 円錐状대신에, 「α」都市에서는 내력구조들이円 弓体(Fuseau)모양이며 또 개인주택들을 공중에 걸어 놓는 인공대지들을 지지하는 2~4개의 塔身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 「內」都市들은 실제로는 개인주택에 대한소 망과 공중생활의 필요성이란 장차 공존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조정하고 있다. 양산되고 또 공동구조체속에 가설한 개인주택들은 서로 간격을 두고 있다. 양산한 개인 주택들은 경계벽 같은 것이 전연 없을 뿐더러 공용대지 조차없는 공중에 가설한 개인 주택들이며, 또 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개인주택들이며, 그리고 농가물보다 오히려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개인주택들로서 대단히 잘끝마감의 손질이 된 것이다. 많은 이런 집들은 총체적으로 색질한 프라스틱 재료로써 제작하게 된다. 공장에서 일관하여 만들어 낸 「勾」都市의 집들은 12톤의무게를 가지고 또 헬리콥터로써 格身와 인공대지위에 까지 운반되어 가설할 수가 있다.

그래서 또 이런 주택산업화는 싼 값의 시장을 창조시켜 줄 수 있다. 20세기에 벌써 싼 값으로 중고품 자동차들을 매매하듯이, 싼 값으로 거주하는 주택들과 필요한房들을 시장에서 살 수 있게된다. 사람은 영구적으로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집은 소보되어 버린다는 사상은 항상 집의 교환과 더 큰 집의 완성을 가능하게한다. 사람은 기분내키는 대로 집들과 방둘을 철거하게 되고, 그래서 현재 교외에 있는 폐차치분장에 추가하여 폐

가처분장들이 출현하는 것을 장차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강철과 특히 프라스틱 재료의 쓰레기 처분문제가 장차 행정당국을 괴롭히는 문제로 부각할 것이다. 프라스틱 재료는 당속에 묻어 버릴 수도 없고, 바다속에서도 녹아버리지 않는다. 어떤 이런 비판적인 예견은 지상과 바다가사람이 생산한 인공재료들로 말미암아 뒤덮혀 버리는 시대, 또 병들, 배판들, 상자들 등 소멸하지 않는 온갖 쓰레기의 해골들과 업데기들로 말미암아 침범당하는 시대,그리고 사람이 주말이면 산책하는 자리로 되어버리다 싶이 한 어떤 유성으로 피해나갈 수 밖에 도리가 없게 되는시대가 올 것을 예상시켜 주고 있다.

18 Yona Friedmann의 空中都市

(La ville spatiale)

또 다른 도시형식은 보다페스트태생의 프랑스의 전축가인 Yona Friedmann의 1960년에 계획한 空中都市이다. Yona Friedmann의 空中都市는 제단들과 에레베터들을 수용하며 또 50m간격을 두고 세운 空洞피로티들로써 지지되고 있는 거대한 공중입체가구골조(cage)가 문제된다. 그러므로써 지면은, 다른 대부분의 공중도시들과 같이, 거의 완전하게 해방되어버린다. Yona Friedmann의 공중도시의 창조성은 이 공중입체가구골조가, 하늘에서 조감하면, 서양 장기판과 같이, 텅비어 있는 50%의 칸들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항상 똑 같은 수의 빈 칸들을 가지고 있는 서양 장기판과 같이, 한결같이 똑같은 이 모든 칸들에는 필요에 따라고 칸들속에 주택들을 크게 만들어 끼울 수도 있고 또 작게 만들어 끼울 수가 있게 된다.

공중도시에 관한 도시화원리는 바로 고도의 원리이다. 옛날의 사례들과 같이 온갖 인간활동들을 서로 옆에 인접시켜 배치하는 대신에, 21세기초에는 온갖 인간 활동들을 충계별로 조직하게 된다. 주거, 공공생활, 보행교통, 여가 등 고유한 인간활동들은 상부 충계에 배치된다. 또, 노동, 보급, 창고, 기계교통 등 공공활동들은 하부 충계들에 마련된다.

Yona Friedmann은 예건건축의 침단적인 사람들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개념들은 많은 의문점들을 보여 주고 있다. 그의 기본원리는 「지상높이 피로타들 위에 올려놓은 다층의 3차원적 표준격자」의 창조였다. 이것과 비슷한 원리는 교통의 관점을 만족하게 해결한다는 면에서 많은 도사중심 지구들 안에서 실현되었었다. Yona Friedmann으로서는, 건물들의 복합체같은 것을 문제삼지않고, 도시주기지구들 또는 한 도시전체를 문제삼고 있다.

Yona Friedmann은 그의 이상들을 장차 몇천억인으로 증가하게 될 미래의 인구를 위하여 세계적차원에서 응용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아주 예견적인 계획안의 주제토론 을 해볼 여지없이 틀립없이 이렇게 착상한 空中都市 내부에서는 수목들, 시민들, 집들이 쾌적하지 못할 것이 라고 느끼게 할지도 모른다. 그의 계획안에 대하여는 뒤에 다시 논하고서 한다.

「到 Nicolas Schoffer 의 方動空中都市 (La ville spatio-dynamique)

항가리태생의 프랑스 건축가 Nicolas Schoffer가계획 한 力動空中都市는 일면 휴식과 주거, 또 한 면온 산업들,

두 부분으로 구분되다.

이 반대되는 두 기능들은 採光驗과 人工頭腦彫糸刻(S-culpture cybernétique)의작가로 하여금 두가지 다른 도시형대들을 생성시키고 있다. Yona Friedmann의 空中都市와 같이, Nicolas Schoffer의 休息都市는 地面으로 부터 높이 떨어져 피로티위에 달려있고 또 수평으로 뻗어나가 있다. 그러나 그공중 구조체속에 병치된 기본주거들은 2층밖에 안된다. 그와 반대로, 노동도서들은, 마치서있는 사람과 같이, 수직이다. 노동도시들은 모든 행적적및 사회적 서비스시설들을 통합하고 있는 거대한 고층 건물들과, 학교들,박물과들, 도서관들, 병원들 등을 群化하고 있는 고층건물들을 가진 수직적인 것이다.

한정된 면적상에 집석되어서 신속한 접촉들을 촉진 시켜 주는 이 中枢都市体들은 수명적인 주거도시체들과 대립하는 점을 보여준다. 전파통제탑을 가지고있는 공항들은 항공교통의 중추중심들이 된다. 이 공항 격납고들은 기체검사와 수리공장들이 있는 지하로 항공기들을 운반할 수있는 대형에레베터를 시설한 [L] 형으로 고층화한 대형스라브로 구성된다. 공항격납고들의 옥상스라브는 수직착륙들에 쓰이고, 또 이륙을 위해 마련한 하부 이륙장들에 의하여 보완되고 있다.

20 Jean-Claude Bernard의 完全都市 (La ville total)

마지막으로 Jean-Claude Bernard의 完全都市는 層階 개념을 없에버린 많은 인공대지들로써 서로 관통할 수있 도록 건물들 상호간을 서로 연결한 한송이 포도송이처럼 建物群을 구성하는 일종의 迷路都市(La ville labirinthe)이다. 単体建物의 개념도 역시 각 건물이 동질적인 도시적인 建物群体와 합체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다.

完全都市에서는, 교통은 수직교통수단과 수평교통수단으로 수행된다. 기계보도 (pietons mechaniques)는 수직 연락탑에서 동력화한 수직교통이며, 또 수평동로 (moteplans)는 에레베터 원리에 의거하여 가동하나 수평 갱도속에서 가동하는 동력화한 수평교통체계이다. 화불운반에서 사용하는 기계적체계방법과 똑 같다. 이런 입체교통망조직에서 비롯하여, 시판하는 주택들의 부채들을 조립하는 자유는 입주자들 자신에게 맡겨진다. 完全都市도역시,

단지 고정된 공동시설들과 서비스시설들을 제외하고는, 아주 다양한 형상들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바벨탑들과 같이 하늘로 치솟아 우뚝서 있는 이 중추도서들, 공중에 매달려 있는 온갖 인공 대지들과 공중가구구조를 내부에 그대로 놔둔 빈 칸들 덕택에 낮에는 일광이 스며드는 이 빛의 도시들, 밤에는 입주자들에 의하여 인공조명을 조정하는 수많은 전동들 때문에 휘황찬란해 지는 이 공중도시들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도시들, 지하도시들, 두더지도시들, 그리고 지하도 시계획안들 등은 또 다른 도시형으로서 공중도시들과 대조적인 한쌍이 된다.

2章 地下都市壹一두더지都市들 (Les villes-taupes)

21 Max Abramovitz의 Pittsburgh地下都市

공중도시들은 낙관적인 예상의 산물들이다. 이것은 장 래의 세계가 평화로울 것이고, 또 최소한 核의 사용이생 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Stanley Kubrick 가 그의 영화[Folamour박사]에서 풍자적으로 묘사한적 이 있던, 미국의 불리학자인 동시에 수학가인 Herman Kahn,은, 오랫동안 核의 대이변이 일어날 공산이 있다고 고려한 다음에, 전세계의 지상의 재화를 20세기초까지 멀 리할 수 있다면 하는 가정아래, 그의 연구원들의 새로운 계산들의 결과에 따라 그의 의견을 수정하게 되었었다. 그러나 만약 21세기초까지 세계를 두 세력권으로 양분하 고 있던 미·쏘간의 힘의 균형이 파괴되고, 또 과거의 두 세계대전들 만큼이나 심한 3차대전이 발생함으로 말미암 아, 중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힘의 균형 이 파괴되어, 새로운 악몽이 21세기초에 되살아난다면, 만약 21세기초까지 예상이 비판적이 되어버린다면, 인류 는 地下都市計劃이 새로운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것을 경 험하게 될것이다. 고성능폭탄과 방사능으로 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두터운 콩크리트층으로 덮은 피난도시(La ville enfouie), 보이지 않는 도시가 앞서 말한 공중도시 들과 대치하게 될 것이다.

이미 1960년대에, 미국의 건축가 Max Abramovitz 는그 자신이 Pittsburgh를 위하여 계획하였던 地下都市計劃 案을「최초의 21세기 건축」이라고 불렀었다. 1960년쯤Pittzburgh는 Max Abramovitz에게 그 시내의 한 주거지구를 온통 지식인들과 그 가족들이 일하며 살 수 있는 地下都市를 착상 계획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Max Abramovitz는 깊이 파면 구뎅이 속에다가 연구실들, 사무실들, 백화점들, 아파아트들, 식당들, 극장들, 오락장들등 거주자들에게 필요하게 될 모든 것들을 찾아 볼 수 있는 1.5km길이의 地下都市를 계획하였다. 이 地下都市의 많은 층계들은 에래베터들, 에스카레터들, 그리고 계단들에

의하여 보장될 것이다. 깊은 구멩이 밑바닥 부분 에는, 動車시설과 정착자들의 자동차들을 위한 주차장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고속도로가 Pittsburgh기존도심과연락하 도록 관통하게 된다. 모든 기계장치들과 같이 反核裝置 는 地下都市안의 거주자들과 그 사업들의 필요를 만족시 켜줄 것이다.

사람은 그 용적을 조금도 볼 수가 없으므로 避難 都市를 상상하기가 늘 어려워진다. 그러나 그 피난도시의 전 구조체속에 그 크기가 똑같은 방들을 채우게 된다. 공원 으로 뒤덮히는 地下避難都市는 보이지 않게 될것이다.

이 Max Abramovitz의 Pittsburgh地下計劃条은 팬다 콘의 장군들이, 아마 Herman Kahn의 낙망적인 예언들때 문인지, Herman Kahn에 귀를 기우리는 식자들을 염려 하였기 때문에 그 건설이 포기되고 말았다.

[22] 턴넬構造와 地下生活의 開拓

그런데 영불해협의 해저턴넬, 마르셰이유 구항구의 해 저교통턴넬, 네델란드의 로테르담 항의 해저다층 교통턴 넬 등 그 밖의 중요한 토목공사들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 하고 있다.

현재는, 다 알다시피 고층건축시대가 있었던 것과 같이, 일종의 지하공사 시대이다. 턴넬은 마천루건축과 맞먹는 것이다. 1859년 굴착기와 화약으로 뚫은 Cenis산의 턴넬, 1872년 다이나마이트로 뚫은 Saint-Gothard턴넬, 1898~ 1905년 20km나 되는 세계최장의 Simplon턴넬, 1965년 Mo nt-Blanc산밑을 뚫은 턴넬등과 Marseilles구항의 해저턴 넬과 해면으로부터 33m깊이에 있는 43km 길이가 되는 영 불해협의 해저턴넬 등을 가지고 해저뿐아니라 산중을 판 통할 수 있는 지하교통로들에다가 도시지하의 교통로 턴 넬과 지하주차장들이 추가된다.

1941년 San Francisco 에 최초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이래, 수도관문들에서 일단정지의 대주차장들을기대하면서 Paris에 증설하고 있으며 실제로 Paris내부의개인자동차 운행을 금지시키고 있는 현재의 지하 주차장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 대도시들은 현재 자동차들을 지하속에 은폐시키고 있다.

세계안에는 아주 좁은 反原子彈第一反水素彈 피난처 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 아주 적은 사람들만을 위한 피난처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동물 보다 쉽게 보충할 수 없을 뿐더러 값이 비싼 기계장치들만이 점점 더공크리트로 업폐한 피난처 속에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 무기공장들이 독일과 스웨덴에서 건설되었었다. 적지 않은 지점들의 지하속에 발동기용연료탱크들이 잔되밭 밑에 흙으로 덮여있다.

Basses Alpes 산맥속에 한 공장을 계획 건설한 적이 있는 M Albert Laprade는 [사람은 그 지하에서 놀라울 만큼 잘 살고 있다. 사람은 거기에서 살 수 있다. 들판에서와 같이 밝고 아름답다]고 보증하고 있다.

현 대도시들 속에서 호흡하는 나쁜 공기와 비교하여 地下都市의 잘 조절한 공기와 기후가 훨씬 위생적일 것은확실하다. 물론 인류사만큼 오래 거슬려 올라가야 하는 지하생활에 대한 幽閉感과 공포감을 없어는 문제가 남아 있다.

현재까지 지하생활이란 바로 무덤이며 지옥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성들의 지하묘지들, 광신 밑바닥의 지하감옥들, Maginot요새에 있던 Vaubau 지하포대들 등지하 생활은 절대로 매력적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공중과 해서를 무서워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람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공중과 해서를 다니고 있다. 이런 것은 유성 들은 탐험하는 것보다도 흰씬 덮 위험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지하 깊은 것에서도 비슷하게 될지 모른다.

1963년이래 100만인 이상의 사람들이 도시의 가장 번화한 도로밑에 있는 넓은 osaka상업 중심에서 일하고 있으며, 장을 보러가고, 그리고 왕래하고 있다. 수백 만인의사람들이 Paris, London, Moscou, New York, Tokyo등의 지하철들 속에서 일하고, 거처하고, 목서하고, 연애하고, 그리고 단꿈을 자고 있을 것이다. 1960년대에 22개국들의 수백만인의 노동자들이 지하 공장들 속에서 그들의전노동 생활을 하고 있다. 수백만인의 노동자들과사업주들이 현재 그들의 생애의 일부분을 지하철들, 지하영화관들,은행및인쇄소 등과 백화점들의 지하총들 속에서 보내고 있다. 우리가 보는 바에 의하면 地下生活은 이미 개시되었다.

[23] Edouard Utudjian의 地下都市計画

지금까지 말한 것은 지하도시계획이아니라 지하 건축의 많은 사례들에 관한 것이었다. Arménia태생의 공학가 Edouard Utudjian이 1933년 28세의 젊은 나이로 「地下都 市計劃研究 및 調整그룹(GECUS)」을 결성한 것은 이런 여러가지 지하구조 사업들을 서로 연결하고 또새로운 지 하 세계를 조정하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Edouard Utudjian와 GECUS 그룹은 1937년 Paris万博때 지하도 시계획전시관을 차렸었고, 또 그때 이태리가 Apennins턴 낼과 쏘련이 지하철 때문에 지하사업에 대한 金賞을 땄 었다. GECUS 그룹은 이어서 地下劇場 건설을 착상하여 즉각 채택 되었었다. 이와 반대로 지하교통로들과 접속 되어 있는 많은 Paris 지하주차장 계획안들은 그 당시 채 택 되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 와서야 Edouard Utudjian의 참여없이, 지하주차장들이 건설되 었었다. 1856년이래 몇 예언자들이 Paris를 위한 지하철 건설을 주장한 선례에 비추어 하등 새로운 것없는 현상일

지 모른다. 이 지하철도, 예견자들의 참여없어, 40년후인 1900년 전후에야 착공되었었기 때문이다.

24 未來의 地下都市環境

지하도시를 추구하는 두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른바 안보이는 지하기반을 이루는 空中都市에 속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지중에 묻혀 있는 정기여객선과 같이 격리된 채 완전 독립된 방법이다.

많은 땅이 오늘날 창고들에 의하여 접유당하고있다.장 배는 지표면을 꼭 필요로 하저않는 모든 지하건축제 속에 은폐하므로써토지이용이 보다 더 풍경적이고, 또 보다 더는리적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와같이 도시는 地下, 空地, 등 세 관례로 밀도높게 결설될 것이다. 수직 교통 수단들이 이세 부분들을 연결하고, 지표면은 최대한 해방되고, 그리고 자연이 자연그대로 회복된다. 또 다시 말한다면, 21세기 도시환경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나무들, 꽃들, 풀들, 샘물들이 도시안에 남어나지않을 것이다. 왜 나하면, 실제로 지표면을 차지할 필요가 있는 건물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의 공중 부분과 지하부분을 연결하는 수직 에레베터들이 관통하는 피로티들에 의하여 지지되는 공중 도사와 보이지 않는 지하도시 사이의지표면에는 마치 도시 환경이 존재하지 않듯이 자연이 관통할 것이다.

지하 도시는 실제로 그 안에 큰 백화점들을 집결 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울수록 최대한으로 진렬 공간들을 넓혀주기 위하여 창문들을 없애 버리기 때문에 구태 여 고층으로 전설 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졌다. 지 하교통복합채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차고들, 주차장들, 정비공장들, 백시정류장들, 기동차역들, 그리고 대량 교 통역들 등을 포함하게 될것이다. 우편국들, 은행들, 도서 관들, 식당들, 필름도서관들, 또 많은 박물관들, 도매시 장들, 종합백화점들, 극장들, 그리고 소란한 공장들등이 런것들은 지하도시속에 설치하게 될 것이다.

21세가 되어 하루 6시간밖에 일하지않게 된다면, 인간생활의 약1/4은 지하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하생활에 대한 공포와 幽閉感같은 열등감들은 21세기가 되기전에 사라져버릴지도 모론다. 지하건축의 거주자는 마치그런 건물구조들을 강조하게 된 예언자처럼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유럽의 유행 분위기는 다채로운 香水들에 의하여 재현될 것이다. 어떤 환각제는 그 공간들을 땅위의 숲이나 들판의 냄새를 풍겨 줄 것이다. 색채들이 중요한 역활을 수행하고 또 방들의 비례를 변경시킬 것이다. 테레비전의 스크린들과 스피카들이 언제나 地下人을地上, 人와 연결하여 줄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초의 勞動都市는 대부분 地下가 될것이다.

明暗은 창공이래 자리잡고있는 定住都市보다, 또 다음에 말하고서 하는 余暇都市보다 별로 그 차이가 크지않을 것이다.

3章 余暇都市量

[25] 南佛 Coté d'Azur 海辺의 新休暇都市響

1885년에 비하여 오늘날의 프랑스국토의 약6%가 여 가란 새로운 요인 때문에 새로운 造化를 일으킬 것이며, 인구 1 만의 3,000개의 휴가 도시들의 신설될 것이라고 에 상하고 있다. 어떤 휴가도시들은 해수욕장들이고, 그 밖 의 것들은 스키장들이 될것이다. 파기 40만인 정도 이던 스키인구가 1968년 현재 100만인을 넘어서고, 또 25만인 이던 항해 인구는 1968년 현재 100만인을 넘어설 것이라 고 예상되었었다. 1976년 현재 프랑스의 스키 인구와 항 해인구는 그 보다 더 중가하였을지 모른다. 그래서 스키 도시들과 욧트항들을 신설하는 것이 긴급해졌던 것이다. 이제 Corse섬과 Sardaigne섬은 휴가섬들로 변하고 있다. 이미 외국으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쇠퇴한 이태리 남 쪽지방으로 피해가고 또 스페인과 그리스로 가고 있다. 항공요금이 싸질수록 더 많은 휴가지들을 마련해주고 있 는 항공여객기들이 검진적으로 휴가촌들을 도처에 확산 시키고 있다. Jērusalem, Tahiti, Agadir등도 1960년대 에 벌써 인기있는 휴가여행로정속에 끼어들고 있다.

프랑스에는 남불 Camargen에서 스페인에 이르기 까지 새로운 Côtê d'Azur휴가도시권이 탄생중에 있다. 따가운 태양이 밝게 빛우고 있는 약 135km의 남불해변들이 개최중이다. 약 100만인의 관광객들이 평균 12만인의 7개도시들에 수용될 것이다. 그 가도시들은 노동도시들과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건축가Balladur가 피라밋狀의 아파트들을 계획 하였기 때문이다.

Languedoc-Roussillon 정비사업은 Collioure 와 Banyuis처럼 기존항구를 확장하고, 또한 이 도시를 새로운 착면의 Cannes 를 만드는 Séte에 새 욧트항을 추가시키게 되는데, 이 욧트항들은 완전하게 신설된 것이다. Cape-d'Agde 욧트항은 약 1,000척의 유람선들을 위하여 깊이 준설할 것이다. Cape-d'Agde 욧트항 주위에는, Luno 저주지 부근와 같이, 새로운 휴가 도시가 건설될것이다. 약 1,000척의 유람선들이 역시 Grand Motte 신항에 기항할수있게되는데, 이 해수욕장은 Palavas-les-Flots 해수욕장보다 거대해질것이다.

이 휴가도시는 한꺼번에 항구와 저수지로 대면 하면서 사실상 Marseilles의 규모와 거의 비슷해질 것이다. La nguedoc-Roussillon 정비사업은 넓은 저수지들과 해변가 의 運河들의 기존부분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휴식과 여름 휴가를 보내는데 제공되는 가능성들도 역시 많아질 것이다. 피로티 위의 半水上村 (Vilage semilacustre)은人工성들과 더불어 저주지 안에 신설될 것이 다. 욧트타기, 수영과 잠수운동, 그리고 낚시 등은 여름 휴가를 지배하는 요소들이 될 것이다.

26 Nicolas Schoffer의 피로회복 및性余暇 中心地区

(Centres de relaxation ou de loisires sexuells)

21 세기초에는 휴가도시들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 또그 특수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항가리태생의 프랑스 건축가 Nicolas Schoffer에 외하면, 이 여가도시들은 노 동 및 주거도시들과 일체가 되는 것들과 자하도시들로 건 설한 것들 두가지 유형들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한다.

Nicolas Schoffer에 의하면, 노동도시들의 여가지구들은 피로제거중심지구(Centres de déconnexion) 그리고 주거도시의 여가지구들은 자극 중심지구(Centres de stimulants)라고 불리게 된다.

Nicolas sehoffer는 「개인에게는 노동시간 다음에 모든 피로를 털어버리고 피로를 희복하는 이행과정이 점진적이고 균형적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노동 장소를 떠나면서 노동자는 그 직위, 그 전문직종이 어떤 것이는 간에 빨리 단계적으로 피로를 희복할 수 있도록 특수장처들과 더불어 시청각, 조명들, 미각들 등이 있는 그대로의 분위기를 제공하는 종합피로회복 중심지구를 경유하여 통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논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도시와 주거 지구를 포함한 각 定住群은 진실한 예방치료 구역인 피로회복 자구들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반대로 주거도시 안에는 생기를 불어넣는 자극적인 주심지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Nicolas Schoffer는 대단히 아름다운 피로회복 중심지구들을 예견하였다. 거기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시청각, 미각, 분위기의 조절각본들이 방문객을 쾌감상태로 빠지게 한다.

18세기 Claude-Nicolas Ledoux파 똑같이, Nicolas S-choffer는 性余暇中心地区를 예견하였다. 이 구상은 이를 장차 건설하겠다고 공포한 한 Berlin의 발기인에 의하여 예약되었다.

27 Paul Maymont 의 Thalassa浮上余暇都市 (La cité flottante-Thalassa)

지금까지 검토한 여가도시들은 지상에 정착한 도시 들이었다. 그런데 Nicolas Schoffer도 역시 물위에 떠있는, 움직이는 여가도시들을 주목하였었다. 이 浮上 余暇都市는 과학소설속의 착상이 아니다. 어떤 약삭빠른 과학자들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전망실을 포함하고 또 해안들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인구 3,000인을 수용하는 浮島 건설에 열충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Paul Maymont,

스위스의 Walter Jonas, 그리고 미국의 William Kata-volos등 세 건축가들이 대단히 구체적인 부상도시 해결 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Paul Maymont이 모나코에 계획한 [Thalassa]라고불리우는 浮上都市는 한 고가교량을 가지고 단단한 연안의 땅과 매어져 있는 円形花壇(corbeille ronde)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들은 원형화단 모양의 인공대지들위에 樹 檣(espalier)모양으로 자리잡는다. 텅빈 원형 밑바닥은 욧트항, 해수욕장, 수영장들, 그리고 내정을 갖춘 水面을이루고 있다. 이 Thalassa浮上섬은 인장콩크리트로 만든 浮函들에 의하여 해상에 떠있게 된다.

[28] Waiter Jonas의 浮上漏斗都市

앞서 논한 Walter Jonas의 漏斗状都市로 浮上都市 전환할 수 있다. 또 한 Walter Jonas는 투명한 体球型지 붕 (coupole)을 씨운 浮上劇場을 계획하였었다. 넓은 한 출입경사로를 가지고 국장과 연결한 浮橋에서 가까운 해 안까지 두척의 고속추진 선박들이 관객들을 운반하게 된다.

29 William.Katavolo의 浮上海洋都市 (La ville marine flottante)

William Katavolo는, 그의 浮上都市를 위하여, 1962년 오래간만에 개발한 「化学建築(architecture chimique)」 원리에서 부터 시작하였다. 이 化学建築원리란 분말 또는 액체 모양으로 되어 있으나 그 물질들을 팽창시키거나 또는 공기접촉으로 응고시키므로써 거대한 공간 용적을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을 사람이 실재로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팽창시키면 球面과 도나스管形이 되어 버리는 프라스틱 재료들을 가지고 만드는 海洋都市의 천설추구를 막을 수가 없게된다. 夢幻的建築(fantacmagorique architecture)이 수정 지붕구조와 비슷한 지붕구조와 산호재료들을 가지고 만든 바닥총들을 출현시킬 것이다.

가구자체도 화학제품이고 또 사용후에는 포장상자처럼 버리게 된다.

William Katavolo의 浮上海洋都市는 완전한 可変性때문에 분리요소들을 분할하고 또 群化시킬 수가 있다. William Katavolo는 「하루 아침 사이에, 시외에 마을들이 모여 도시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밤이 되면이 도시가 음악처럼 멀리 사라져 가고 그리고 한 곳에 정박하러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고 논하였다.

「여가 건축을 위하여 이런 가변적이고 소멸적인 가정보다 무엇이 더 매혹적인 가정보다 무엇이 더 매혹적인 수 있을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액체분무기를 가지고 필요한 집과 가구들 그리고 도구들을 만들 수 있는 조화가 또

어디 있다 말인가 ! 고 Michel Ragon은 평하고 있다.

|30 Cousteau의 海底住宅 (La maison sous-marine)

여가를 위한 浮上都市들이 있는가 하면, 또 海底余暇都市들도 있을 수가 있다. 1962년 프랑스의 Cousteau가 M-Marseilles의항 해저 10m깊이에 최초의 집을 침하시켰을 때, 인류사의 획기적인 시대를 기록하게 되었다. 인간이 다른 유성으로 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같은 무렵에 인간이 지구의3/5을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미지의 해저를 탐험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좀 특이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酒 海底余暇都市(La ville sous-marine) 와 活海底生活의 開拓

1965년 110m의 海中에서, 30톤짜리 적경 6 m의 球体속에서 30일간을 생활하였던 6 시의 사람은 아시아대륙 만큼 넓고 大陸棚이라고 부르는 영토의 최초의 정착자들이 되었다. 海底労働都市들을 설치하자고

었었다. 이 정착자들은 지금 당장 해저여가도시들을 설치하자고 제의한 바 없지만, 海底労働部市들을 설치하자고 제의하였었다. 사람은 해저광산들을 개간할 것이다. 벌써 사람은 해저에서 석유를 채취하고 있다. 그 해저 깊은 곳에서 만강광석과 인광석을 캐낼 것이다. 사람은 해저에해 산물들을 묘판들을 경작하게 될 것이다. 왜나하면 1 ha의 해저경작지는 1 ha의 목조지보다 20배나 더 많은 해조류와 가축사료들을 생산할 수가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은 과거의 낚씨잡이 원리를 버리고 자유자재로 바다고기들을 해저양어장 또는 저장장안에 몰아 넣어 합리적으로 사육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양식활동들은 수 많은 해저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또 해저노동자들을 위하여 현재 잠수노 동자들의 피로회복을 가능케 하는 해저주거를 연구중이다.

당분간 해저도시들은 단지 관칙소들, 저장고들, 동력 회수장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해저도시에 산소물 절들과 산소통들을 저장한다. Cousteau가 사용한 것과같이, 태양이 없는 해저속의 도시는 円盤狀(Soucoupe) 에서 나온 도시체가 될 것이다. 이는 현재 모형상태들로 알려진 소형항해공장추락 또는 해저탱크들에서 비롯한 도시들일 것이다. 수중 항해, 낙씨, 수중운동 등을 즐길 수있기 때문에, 海底余暇 都市들이 매우 빨리 생겨 날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초 海底余暇都市는 물론 대단히 임시적인 휴가를 위한 것일테지만, 21세기말에는 커다란 성 공을 건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이다.

[32] Guy Rottier의 飛行休暇住居(La maison be vacance volante) 와 케이블카式 休暇住居村

水上 및 浮上住居들, 海底住居들이 있는가 하면 또 飛行 休暇住居과 케이블카式 休暇住居도 있다.

1964년 Paris가구공예 전시관에 전시된 飛行休暇 住居는 네데란트비생의 건축가 Guy Rottier가 제획 제작한 것이었다. Guy Rottier가 만든 飛行休暇住居은 한 조종실과 한 거실 그리고 한 육실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単体헬리콥터이다. 어른 2 인과 어린이 2 인이 이 카라반속에서 살 수 있으며, 또 헬리콥터의 항속거리안에서 착륙하는데 필요한 10m²정도의 착륙장만 있다면, 등산가들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예정지점까지 비행하여 내려 앉을 수 있게 된다.

그런가 하면 어름위를 이동하는 永上住居와 눈위를 미 끄러가는 雪上住居과 같은 형식의 휴가주거들이 Guy Ro ttier에 의하여 착상되었었다.

마침내 Guy Rottier는, 예를들면 바위산이나 벼랑들과 같이 해변과 山頂에 면하여 있는 기초공사를 도저히하기 힘든 그런 험악하고 또 경치가 좋은 휴가지들을 위하여, 케이불카式 休暇住居(La maison sur fi)의 휴가촌을 제안하였다. 케이불카式 休暇住居는 일종의 케이불카와 같은 것이며, 거미줄(araignée)모양의 케이불에 매달려 이동하고, 원하는 장소에 고정시켰다가 다시 회수하는 것이다. 거지줄과 같은 케이불조직망 중심부에 케이불카 式住居들을 운반하는 기계실, 또 일기가 불순할 때 住居들을 넣어 두는 격납창고들, 그리고 필수품들의 보고창고들 등 휴가촌의 중추부가 자리잡고 있다.

[33] James Guitet의 鐘状温泉都市

(La ville balméaire)

벌써 알다시되, 장래의 여가도시들은 매우 뜻밖의 형상들을 빌리게 될것이고, 또 공기, 물, 땅등의 자연요소들로 말미암은 鐘状半透明지붕을 온통 덮어버린 住居들로형성한 溫泉都市를 계획하였다. 이 温泉都市에서는 개별적으로 덮은 鐘状들도 문제려니와, 더 나아서 대형 測地線동이 전도시의 건물들과 도로망들을 덮어 全天候化하 는 것이 문제이다. 그뿐아니라 또 全天候化된 영역안의 주거들은 입주자들의 內容性 또는 완전절연을 위한 일종의 칸막이병 밖에는 소용이 없다.

이리하여 사람은 점점 중량재료들의 사용을 되하고, 또 非物質建築(Lárchitecture immatérielle)에 접근 하기에 여른다.

[34] 非物質建築(Larchitecture immadérielle)

이 非物質建築은 바로 몬트리올万博 美国전시관의 공하가 Buckminster Fuller, 카리포니아 Southern대학교 교수 Konrad Wachsmann, Ruhr지방의 유명한 Golsenkirchen극장의 건축가 Werner Ruhnau, 몬트레을万博 四独전시관의 건축가 Frei Otto, Paris건축대학 교수이며 Saint-L6병원을 설계한 미국건축가 Paul Nelson등의 건축들이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Werner Ruhnau는 그의 극장계획안들 중의 한 계획안에 관하여 실제로 [이 극장형태는 아마 고전적언어의 의미로서는 건축적 형태가 아닐 수 있지만, 오히려 사람자신이 분위기, 조명……등을 조정하는 능력은 가질 수 있는 공간, 소유주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경향은 나에게는전반적으로 장래 또는 건축의 위대한 경향인 것 같이 여겨지며, 사람이 완전히 분위기를 조정할 수 있는 대공간들을 창조하는 가능성인 것이다]고 논하였었다.

1957년, Konard Wachsmann은 「支持台座는 거의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또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사람은 별로 支持台座들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벽돌, 창들, 그리고 문들도 역시 심각한 변형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투명하거나, 불투명하거나 또는 可変的인 外面들밖에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어졌다」고 단연하였다.

마지막으로, Frei Otto는 확신을 가지고 「四面壁을 이기압에 외하여 유지되는 정교하고 투명한 振動板을 밴트처럼 퍼놓는 주택들이 생겨날 것이다. 잠을 자는 기본 주거들 속의 기후는 평균적인 상태로 완화되고, 벤트처럼덮어버린 공간 내부는 보다 더 생기가 넘칠 것이다. 날씨가좋아지면, 壁들과 지붕이 열려지고, 모든 것이 내부공간이 되어 버린다:……」고 발표하였다.

Michel Ragon은 「인간들이나 모든 방틀이 에덴동산의 상태를 추구할줄 알게될 것이라고 믿어야 할 것인가!」고 논하고 있다.

R·C. 바닥슬래브의 所要 두께 小考

목차

- 1. 대상선정(対象選定)
- 2. 검 토(検討)
- 3. 외국규정비교(外国規定比較)
- 4. 단근보 취급의 한계(단근보 取扱의 限界)
- 5. 결 론(結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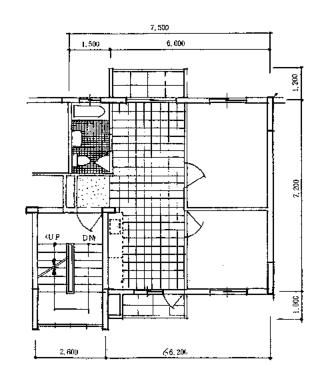
金 平 坤 住宅銀行(技術役)

§ 1. 대상선정(対象選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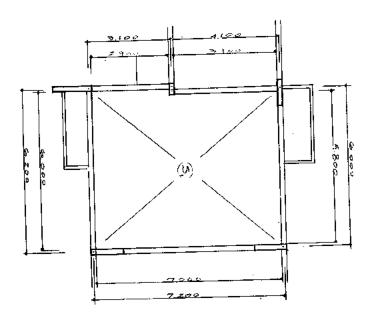
철근콘크리트 라아멘조로 된 5총정도의 아파트건물이라면 이젠 많이 보급되여 구조기술상의 난점도 거의 없게되었으나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생소한 분야로 취급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시공면에 있어서도 캔티래 버슬래보의 주근 배치를 잘못하여 기단으로부터 부러져 떨어지는 따위의 실패는 옛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이보편화 된 반면에 그 취급에 있어서 무지나 태만으로 인해 소홀히 한것같은 인상을 주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되는 바이는 국가, 건축계, 설계자등등 모두를 위해 시정되어야 할일이라 아니 할수 없다. 인명피해를 비롯한 막대한 物的損失과 불명예를 초래한「와우의 교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혀져가고 있는데 대한 경종의 뜻을 점하여 선정된 실예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알기쉽게 다루어보고져 하는것이 본 소고의 취지이다.

대상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49.97 (15.1평)인 지상 5층의 아파트로서 건설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다. 〈그림·1〉참조—문제는 (최소 단변의 길이)×(장변의길이)=5.8 × 7.0 의 슐래브—〈그림·2〉의 S₁가 두 제12 m로 설계 되어있는바 이 두째의 적정여부를 한국의현행 법령과 구조규준으로서 검토한 다음 미국, 독일,영국,호주,일본 등 여러나라의 제 규정을 비교검토함과 아울러 單筋보로서 취급可能 여부를 판별하는 순서로 전개코저 한다.

이 설계도서에 첨부된 구조계산서는 1975년에 작성된 것으로서 해당되는 관련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평면도



(그림2) 보틀 평면도

A : 허용응력도

철근: f_t=1,600kg/cm², f ^y=2,400 kg/cm² (항복 강도) 콘크리트: F_c=210 kg/cm² (4주 강도) f_c=70, f_s=7, f_t=14.7

B : 설계용하충

지붕:D.L.몰탈바르기10.5cm	0,210
방수총	0.010
슬래브 12cm	0,288
천정마감	0,030
L.L.	0.180
T.L.	$0.718^{t} / m^{2}$
아파트 D.L.몰탈 3 cm	0.060
슬래 브 12cm	0.288
간막이	0, 180
L.L.	0. 180
T.L.	0,708t/m²

C. 슐래브 설계

Si: 6,000×7,200 안목치수 5,650×7,000 $\lambda = 1.24$ $\kappa = 2,37/3,37=0,702$ $\mu = 5,65/12=2,65$ $M \times_1 = 2,65 \times 0,702=1,860_t \cdot m$ $\omega_8 = 0,708$ (주: $M \times_1 = 1,317 \cdot m$ 이 해당) $\phi = 13$ $\omega = 1,27 \times 1,4 \times 90/1,86=86,121 → @ 120$ $\omega = 1,325$ (주: 0,938·t. m 해당) $\omega = 1,327 \times 1,4 \times 80/1,325=1$

지붕 및 아파트

t = 120

ø 13−@ 120 ø 13+ø 10−@ 120

ø 13-@ 120 ø 13+ø 10-@ 120

§2. 검 토

현행 관계법령 및 구조계산 규준에 명시된 슬래브 두째 의 구조제한 규정에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먼저 대한 건축학회의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규준 (1972년 제정, 1975년 보완) $4 \cdot 1 \cdot 5$ 에 의하면 "슬래브의 두께는 다음표에 표시한 값이상 또는 8 cm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langle \Xi \cdot 1 \text{ 참조} \rangle$ -이 규정에 따르면 $\ell x = 5.8$ ", $\ell y = 7.0$ "일 때 $\lambda = 1.207$ 이므로 슬래브두께 t = 15.66cm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로 $\ell y = 7.0$ "일때 t = 12 cm 보카할 수 있는 ℓx 의 한재를 역산해 보면 3.97"가 된다.

(표·1) 슬레브 소요두꼐

지 지 조 건	주변고정	켄티레버
λ≤2의 방향슬래브	$\frac{\frac{\lambda \cdot \ell x}{16 + 24 \cdot \lambda}}$	
λ>2의 1 방향슬래브	$\frac{2x}{32}$	10

다음으로 建築法施行令 제75조에 의하면 "바닥환 슬래 보의 두께는 8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당해 바닥환의 단 변외 길이의 40분의 1이상으로 할것"으로 되어있다. 때 라서 단변의 길이가 5,8m일때는 14.5cm 이상의 두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두께 12cm로서 커버할 수 있는 ℓx 의 한계는 4.8m로된다. 위 결과로보면 시행령의 구조 제한이 합의 규준보다 완화되여 있으나 退長比에 따른 제한이 없는 불합미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이절에 대하여는 학회규준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물론 규준이란 건물의 안전보장상 최소규정으로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불가면의 原則인 것은 아니나 본건은 구조계산사 뿐아니라 침부된 설계도 서의 어느곳에도 이에 대한 연급이 없었다.

또한 문제의 "시민 아파트"에 이 Case와 배우 유사한 설계가 있었는데 와우사건이후 대폭적인 보완공사를 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균혈발생, 확대등 계속적인 하자보고 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뿐 아니라 - 사민아파트 전단종 합보고서 - 수차에 걸친 안전전단 결과에 따라 이미 철거 되었기나 불원간 철거될 지경에 이루렀다는 사실을 살기 하여야 할 것이다.

§ 3. 외국 규정비교

107.5, 152→@ 120

3 · 1 미국

우리나라에서 구조계산규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널리 사용되었던 ACI - Code (1963)의 해당 부분을 옮겨보면 - ACI 318 - 63의 2002(e) -

"어떤 경우에도 슬래보 두째는 3늘인치(주:8,85cm) 보다 작아서는 아니되며 또한 슬래보 樹枝을 180으로 나 눈값보다 작아서는 않된다"로 되어있는바 본건에 대하여 는 25% /180=14,22cm보다 작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 ly=7.0m일 때 최대가능 lx 를 역산해보면 3.8m가 된다. 이 code는 1971년에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나만 비교편의상 기호는 원문과 다른 부분 이 있다.

ACI 318-71의 9・5・3・1 -辺及比 λ가 2이하인 줄래브의 최소두께는

$$t = \frac{ly (800 + 0.005 F_y)}{36,000 + 5,000 \rightarrow (\alpha_m - 0.5(1 - \beta)(1 + \frac{1}{\lambda}))} \dots \dots (a)$$

이며 또한

$$t = \frac{ly (800 + 0.005 F_y)}{36,000 + 5,000 \lambda (1 + \beta)}$$
 (b)

보다 작아서는 아니되며

$$t = \frac{ly (800 + 0.005Fy)}{36,000}$$
 (c)

보다 쿨 필요는 없다.

단 αm: 슬래보지지보의 α의 평균값

α : 슬래브와 보의 강성비

B: 슬래브 전주장에대한 연속단 길이의 비율

단위 : 파운드ㆍ인치

위식에 본건을 적용하기위하여 우선 단위 환산을 하면

 $ty = 7.0 \text{m} \rightarrow 275.6^{\circ}$

 $Fy = 2,400 \text{kg} / \text{cm}^2 \rightarrow 34,140 \text{ p. s. i.}$

(c) 식에 적용하면

$$t = \frac{275.6(800 \times 0.005 \times 34, 140)}{36.000} = 7.431^{\circ\prime\prime} = 18.9 \text{cm}$$

(b) 식에 적용하면

 $5.000\lambda = 5.000 \times 7.0/5.8 = 6034.48$

 $1 + \beta = 1 + (14.0/25.6) = 1.547$

$$\therefore t = \frac{275.6 \times 970.7}{36.000 + 6034.48 \times 1.547} = 5.901'' = 15.0 \text{cm}$$

(a) 식은 슬래보와 지지보간의 강성비를 고려한 식이며 그 계산값이 어떻는 슬래보 두께는 (b) 식의 값보다 작아서 는 않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본건은 그 두께가 적 어도 15cm 보나는 케야되며 18.9cm보다 클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 ly=7.0m일 때 t=12cm로서 cover 할 수 있는 lx의 최대값을 추적해 보면 결국 1방향 들대보. 취급이 되어 ACI -71의 9·5·2·1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잉단연속인 경우는 lx/28에 해당되므로 lx의 최대값은 3.36m가 된다.

3 · 2 독일

1959년도 DIN 1045 § 22.2에서 해당 부분을 보면 "슬래보의 최소 두께는 7 cm로 한다. 슬래보의 유효출성는 양단 단순자지일때 스팬의 35, 연속이나 고성일때 Moment Center間 최대거리의 35 이상이어야 한다. 이 Moment Center間의 거리는 스팬의 송를 취할 수 있다. 로되어 있다. 또 DIN 1045 § 14.3의 피복 규정은 슬래보에 대하여 1 cm이상(한국은 2 cm)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는

$(580 \times \frac{4}{5}) \times \frac{1}{35} + 1.0 + 1.0 = 15.26 \text{ cm}$

이상이어야 하는것이며 t=12cm(d=10cm) 일 때 최대 lx를 역산해 보면 4.375cm로 된다. 현행 DIN 1045의 17. $7\cdot 2$ (1972년도반)에 의하면 양단연속인 때는 $\alpha=\ell^1/\ell$ =0.6이지만 일단연속 타단지지일 때는 $\alpha=0.8$ 에 해 당하므로 DIN 1959와 다름이 없다.

3 · 3 영국, 호주 및 인본

영국의 B·S·CP 114—1969와 호주의 ASCA 2 — 1963 의 5·3 (1966년도 주정판에도 이 클래브 두깨에 관한부 분은 면동이 없었음)은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나를 바가 없으면 1/t가 다음 값을 넘지 않으면 강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방향에걸칠때, 단순지지	L/30
" , 연속	L/35
2 방향에걸절때, 단순지자	L/35
" 연속	L/40
켄티레버일 때	L/12

따라서 L = 5.8+0.2=6.0 m 일때 t = 600/35=17.14 cm 이퍼 t=12 cm로 가능 최대값은 4.0 m 이다.

일본건축학회 가준은 현행 한국건축 학회가준과 동일 하며 일본건축학회의 구가준은 한국의 현행 건축법 시행 령과 같게 되어있다.

3 · 4 비교

아상 결과 값을 정리하면 나유의 (표·2)와 같이 된다. 이표를 보면 대체로 본건 슬래브 두께는 15cm 이상이 되어야 겠고 두께를 12cm로 한것은 어느나라 Code에 비추어 보아도 규준 미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ly가 7.0m 일때 가능한 lx는 대략 4.0m정도임을 알 수 있다.

(표·2) 각국 규정에 따른 플래브 두께

Code	대한건국학회규준-1975	한국건 축법시행령
슬래 보두꼐	(일본건축학화규준)	(일본학회구기준)
최소소요두께 (cm)	15. 6	14.5
<i>t'</i> =7.()m 일태가능학	[ຼ] 3. 97	4.8

대상 슬래브는 5.8×7.0m (안목)임. 6.0×7.2m (c.t.c)

§ 4 단근보 취급의 한계

슬래브의 배근은 보통 폭 b=100cm, 유효춤 d인 단근보로서 산정된다. 이는 슬래브 단부에서 配筋上 복근으로 되드라도 슬래브두께가 얇아서 (보통 10~15cm 정도) 압축근이 中立軸근방에 位置하게되므로 유효하다고 볼수없기때문이다. R을 平衡鉄筋比 ptb에 있어서의 許容됩모멘트係数라 하면 d와M사이에는 다음관계식이 성립한다.

$$d = \frac{1}{\sqrt{R}} \cdot \sqrt{\frac{M}{h}}$$
(a)

여기서 R는 다음의 R'과R2중 작은값이 됨으로

$$R^{1} = f^{\text{ml}} \cdot \frac{k(3-k)}{6} \cdot \dots \cdot (b)$$

중립축 비는

$$k = \frac{kd}{d} = n \cdot P^{s} \left\{ \sqrt{1 + \frac{2}{n \cdot p^{s}}} - 1 \right\} \cdots \cdots (d)$$

또한

$$P_{ts} = \frac{1}{2} \cdot \frac{1}{f_{t_{m}} (1 + \frac{f_{t}}{n \cdot f_{s}})} \quad \dots \quad (e)$$

우리나라 규준이 계정되기 이전에 쓰였던 일본건축 학회 규준에 따르면 $f_*=60(F_*=180$ 에 해당) =1,600, n=24일때 $\sqrt{\frac{1}{R}}=0.0289$ 였고 $f_*=70(F_*=210$ 해 $_*)$, $f_*=1,600$, n=22일때 $\sqrt{\frac{1}{R}}=0.0264$ 였음은 널리 알려진 바인데 아직도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적지 않게본다.

처음으로 1970년에 개정된 일본전축학회 규준과 1972 년에 세정된 한국건축학회 규준에 따른 각종계수를 계 산하고 그 결과를 対比한 것이 $(표 \cdot 3)$ 이다. 이표의말 미에 t=12cm(d=9cm)일때 단근보취급이 가능한 최대 Moment를 역산한 값이 기록되여 있다. 설계시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본건 원 구조계산서의 슬래보계산이 정확하였다면

M_{*}=1.86° 는 W_{*}=0.708에 대하여 1.317° · =에 상당하므로 이 값은 〈표·3〉의 어느값과 비교하여도 벌써 단근보 취급의 한계를 넘어서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ws=0.708 t/m²(지붕바닥에서는 0.718t/m²이다)에 대하여 최대휨모멘트를 정산해 본다.

 $M_X = \frac{1}{12} \times 0.4812 \times 5.8^2 = 1.35 > 1.16 ((표 + 3) 참조)$

(Ⅱ) 연속성을 고려할때

(A. C. I. METHOD-2)

$$lx = 5.8 + 0.2 = 6.0$$
 $ly = 7.0 + 0.2 = 7.2$

(c. t. c) \therefore m=6.0/7.2=0.833

(그림, a, 참조)

연속단 Mx = -0.071 × 0.708 × 6.0 2=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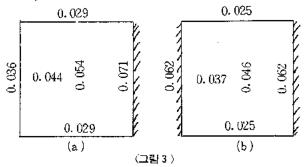
중 앙Mx=+0.054×0.708×6.02=1.38

양단연속이라보면 (그림b)

연속단Mx=-0.062×0.708×6.02=1.58

중 앙Mx=+0.046×0.708×6.0²=1.17

결국 위 계산값들은 모두 단근보限界를 넘고 있음이 재확 인 된다.



(표·3) 각종 Fc, n에 대한 계수

	Fc (kg/cm)	fm	n	Ptd (%)	k	R	$f\frac{1}{R}$	t = 12cm (d = 9cm) 일 때 단근보취급 함계의 M (tm)
한국규준	180	72	15	0.9067	0.4030	12.559	0.0282	0.9698
	210	84	15	1.1565	0.4406	15, 786	0.0252	1.1622
일본규준	180	60	15	0.675	0.3600	9, 504	0.0324	0.7697
	210	70	15	0.8668	0.3962	12, 036	0.0288	0.9766
일본퓼준	180	60	24	0.0888	0.4737	11. 967	0.0289	1.0186
(구)	210	70	22	1.073	0.4905	14.359	0.0264	1.279

$$d = \frac{1}{R} \int \int \frac{M}{h} \qquad n : e^{\frac{1}{2} |a| \cdot \frac{d}{1} \cdot |a|}$$

§ 5. 결론

- 1. 対象으로 選定된 아파트설계에서 안목치수 5.8m× 7.0m 인 R.C. 바닥 슬레브를 두께 12cm로 한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모서 잘못된 설계로 결론 지율 수 있다.
- 가) 대한 건축학회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 규준에 미 달될뿐아니라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
- (나)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등 여러나라의 code 에 비추어 보아도 기준미달이 된다. 참고로 여러나라 규준에 따른 슬래브 소요두께를 보면 본문의 〈표·2〉와 같다.
 - (다) 단근보로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다.
- (라) 이 규준미달에 대한 해명내지 다른 적절한 方法에 依한 안전성입증 제시가 없다.
- 2. 본건은 슬래브 소요두께를 확보하여야 할것이나 근 본적으로는 기둥 또는보의 배치를 직절히 하므로서 슬래 브의 단변길이를 적어도 4.0m 이하로되게 하였어야할 것 으로 본다.
- 3. 단근보 취급의 한계를 검토할 때는 대한건축학회 철근 콘크리트 구조 계산규준에 따라 산정된 본문〈요·3〉 의 값을 쓰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부언

이상에서 R. C. 바닥슬래브의 두께가 부족한 設計例를 다루어 보았는바 이밖에도 이런 따위의 하자가 있는 구조 설계를 종총 보게됨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위의건은 국가 재정이 지극히 어려운 우리의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國民住宅資金 Case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하자가 있는 설계도서가 설계, 당국의 점토 및 주무부의 심사등 여러과정을 거치면서도 지적내지 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매우 重大한事実이라 아니할 수 없다. 構造計算書는 建築許可上의 要式行為정도로 적당히 취급하는 습성이 아직도 잔재해 있음을 방관만하고 있을 것인가.

설계자의 양식이 앞서야겠음은 불론, 어떤 방법으로든 위와같은 부정적 소지는 하루속히 제거되어야 하겠 음을 통감 한다.

주요참고 도서

- 1. 철근 콘크리트 구조계산 규준 : 대한건축학회 :19 72 및 1975.
- 2. 시민아파트 건물진단 종합보고서 : 서울특별시 : 19 70.
- 3. Building Code Req for R.C. (ACI-318): A.C. Inst.: 1963 및 1971.
- 4. The Stru, Use of R. C. in Buildings (B. S. CP11 4 Part 2): British Standard Inst 1969 5. S. A. A Code for Conc in Buildings (ASCA 2): Standard Association of Australia: 1963.
- 6. BETON—Mnd Stahlbeton bau(DIN 1045): Deutschen Normenausschu *β*:1959 및 1972
- 7. 鉄筋コン 7 リート 構造計算規準・同解説:日本建築 学会:1970.

建築資材 展示会를 보고

争 鳳 源 源建社 代表

- 1. 建築資材 選択의 重要性
- 2. 建築士와 資材의 質的向上에 대하여
- 3. 일반 需要家들의 資材選択 傾向
- 4. 現代住宅 施工上에 나타난 資材選択의 向方
- 5. 바람직한 建築資材 選択法
- 6. 建築資材 生産者들에게 바라고 싶은점
- 7. 資材展示会에 바란다면

1. 建築資材 選択에 重要性

현대의 건축술로 어떠한 設計라도 다 소화되어 建築物이 지어지고 있고 設計되여 가고 있으나 資材選択의 묘를 기하지 못하여 設計者의 의도를 충분히 反映못하는경우가 흔히 빚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建築資材의 시장의 狭小와 需要家의 폭이 좁아 상관관계를 이루기에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設計者로써는 資材選択시 材質이나 종류, 色相, 強度통 선진외국에 비해 빈곤한 형편이어서들 곤만을 겪어야 하고 意図대로 選択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일일이 수입에 依存해서까지 実現하자니 거리감이 있고 経済的, 時間的 여유가 뒤따르지 못하는 現实이여서 현재 施行하는 방법이 없는것으로 안다.

建築資材 選択에 重要性 중에도 특히 마감材料의 選択 分野에 대하여 重要性을 強調하고 싶다. 구조체 材料는 장구한 時間에 변천도를 보아서 알듯이 큰 変動이 없는 것으로 안다. 물론 特殊建築分野에서는 例外이겠으나 마 상材料 変遷에 우리 인간들은 興味와 因心이 크고 또 많 는 変遷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러리라 본다.

아무리 合理的이고 우수한 設計라도 設計者의 意図대 스마감材料 選択이 정확치 못하다면 정확치 못한만큼 불 천 내지는 좋지못한 建物을 얻는 結果를 초래하게 된다.

建築資材 選択은 우선 建築士들의 資材発展像에 대 한 「근 情報를 면감히 흡수 소화하여 反映함으로 시대에 「자지 않은 建築物을 만드는데 重要한 役割을 해주어야 는것으로 믿는다. 만불의 憲長인 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간 삶의 안석처를 또 시시각각으로 変遷 発展되는 인간환경에 適応키위한 대 작업을 하는 建築士들에 責任은 실로 重要한 것으로 본다. 어려운 작업중에도 資材選択에 묘는 묘를지나 중압감마져 느끼게 된다. 아차 실수로 選択이 잘못되고 建物어 잘못 지어졌을 때 반영구건물의 壽命 파비례하여 악명을 듣게 되리라 본다.

그러기에 建築士들의 資材選択에 重要性은 強調되어야하고 최신 資材発展像 내지 情報를 입수하는데 게을러서는 안되겠다.

혼히, 실수하는 것은 設計者나 시공자 建築主가 한결 같이 潜在意識 내지는 고정 観念으로 구태의연계 사용하고 새로운 우수자재를 反映 못하는 경우 좋은 작품을 만들기는 어렵게 되지않나 본다.

우수합材 選択은 우수한 建築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금번 서울지부가 試図한 資材展示会는 다방면에 도움이되리라 본다. 건축술의 미래발전상에 대하여도 많은研究의 資材発展이 뒤따른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하여 폭넓게 選択에 묘를 기하여 後悔가 없어야 되리라 본다.

우리나라도 과거와는 달리 많은 우수資材 生産이 되고 있고 K. S표시 제품은 외국으로 輸出되는 過程까지 이르 렀음을 알고 脊掛를 가지고 選択에 임해야 하겠다.

2. 建築士와 資材의 質的向上에 대하여

建築士와 資材의 質的向上관계는 피치못할 함수관계가

成立하리라 본다. 建築士들의 觀心이나 研究가 바로 建築資材生産에 直結되고 그래서 発展되어 가는 것이 정상적인 発展過程이 아닌가 본다.

設計上 필요해서 注文製作을 하고 우수성이 인정되어 자판되어 진다고 하면 많은 호응도가 따르고 生産해서 企 業에 상태를 따지는 뒤진 기업경영 보다는 안전한 企業 成長에도 겨여될 것으로 안다.

資材生産者인 企業人의 머리도 누구못지않으리라 보지 만 실무자어고 尊政을 한 미래까지도 책임을 져야되는 建 築士들의 助言내지 자문을 받아 生産에 임하는 過程은 企 業에 안전도를 높이는 意味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設計者로서 늘 아쉬워하는 것은 資材生産者들이 실수요자들의 의사를 反映못하고 質利的인 면만을 고려하여 生産하는 경우를 본다. 실수요자들의 요구하는 趣向色相, 材質,形狀,強度통,공통점을 잘못 참쳐서 生産함으로 外面당하는 경우를 본다. 예를 든다면 외국資材용내를 낸다던가해서 우리나라 생활환경 習性등에 맞지않는 資材를 生産함으로 재고를 산더미처럼 山稻해 놓고 企業은 파란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주변에서 본다.

외국의 生活関性, 환경과 우리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固有한 文化와 生活 환경 潜性인, 있기에 무조건 外国의 예대로 건축술도 따를 수는 없으리라 본다.

현재에 악덕업자도 있겠고 미래의 発展에 저해를 갖어 오는 行為도 악영향이라고 한다면 資材生産이나 設計時 慎重히 다루어야 한다고 하는 責任감을 어떻게 할것인가 ?

資材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研究하고 発展시켜야 되는 責任이 있으리라 본다. 무책임하고 물지각한 부류들의 불 량資材生産은 사회적으로 糾弾받아야 되고 저지되어야 하겠다.

일시적인 作業이 아니고 반영구건물이기에 더욱 責任은 무겁나. 금번 협회의 資材展示会때에는 안내서 표지에 "불량자재 排擊하고 우수자재 사용하자"라고 써있는데 그보다는 우수자재 현장하고 우수자재만을 사용하여 建築하도록 誘導하면 자연 불량자재는 排擊이 되리라 본다.

"애써 지은 불량건물 울면서 혈계된다"라는 글도있다. 허는것을 怠慮할것이 아니라 잘지을 것을 염려하는 것만 이 예방 표어가 되지않을까 본다. 그러자면 불량자재는 選擇이 않되어야 하겠고 設計도 우수해야 되겠다.

還言하면 研究発展된 우수자재는 展示会를 통해서나언

론기관 또는 建築設計時에 積極 勸獎실시 되는 方向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행정권을 発動하더라도 법으로 더욱强 기한 지도와 제재가 겸하여 시행되어야 하겠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는 있으리라 본다. 일반 수요가안進 築主나 시공업자들이 한결같이 協調할 수 있는 啓導가 필 요하게 된다. 그런점에서 볼 때 建築土나 행정관서 에서 는 展示会나 그의 지상 또는 방송을 통하여 啓導 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다. 몰라서 선택못하고 보지 . 못해서 이해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이해가 될 수 있는 질 을 더야 하겠다.

이런점에서 지부에서 主管한 금번 展示会는 높이 評価되고 또 発展시켜 나가야 될 科業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 많은 資材를 더 넓은 場所에서 展示함으로 더 많은 觀覧 客을 맞아서 많은 이해가 되도록……

금번 전시회도 예상 보다는 많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評価되나 아쉽다면 建築士들의 더 적극적인 관람으로 참고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새로운 展示되어 있음은 누구보다 먼저 알고 設計에 敏感히 反映해야 되리라고 보아서 "백문이 불여일건" 이란축어도 있듯이……덧붙여 生産者에게 바란다면 우리나라生産業者중 많은 分野가 零細하기 때문에 経営에 자신이었고 그러나 보니 급히 利益을 追究하는 狀態로 돌입한다.

장매를 기억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축면에서만 급급한 주위만을 생각하여 生産에 임하다 보니 研究하고 発展할 여유가 없고 악덕업자화 하다가 짧게 문을 닫아 버리는 傾向이 있다. 広告책자에 많은 선전비를 들여 1년도 못 되서 도산하는 경우 우수자재가 生産되었으리라 볼수가 없다. 一時的인 生産으로 계속 生産이 막혔기에 設計者 들에게 困難을 겪게하는 경우도 흔히 본다.

제속 공사나 增築의 경우 기존建築資材를 못구해 애를 먹는 경우가 예가 되겠다. 각 分野별로 專攻하고 分業研 연하여 発展 향상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와야 하겠다. 선 진외국의 隊列에 서려면 建築資材의 発展이 따라 주어야 하겠고 建築士들의 研究発展하는 힘이 생산업체와 協業 諮問하여 이끌어 주어야 하리라 믿는다. 직접 이해관제가 없다고 소홀히 할것이 아니라 建築 장래発展을 위하여 建設에 일익을 責任진 우리로씨는 觀心있게 관찰하고 研究하고 적극 生産者들의 諮問에 임함으로 급 성장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해야 하겠다.

3. 일반 需要者들의 資材選擇 傾向

일반 需要者들의 資材選擇에 대한 觀心이 높아지고 있음은 우선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값싼 資材타령이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 반영구 建物로써 위험하기 짝이없다. 또 구태의연한 사상에 사로 잡혀서 옛날대로 남하는대로 등의 무관심은 옳바른 建築이 되기에 거리감이 있다.

다른 建物보다 잘짓기 위하여 욕심은 있으면서 資材選擇에는 인색한 것이 우리들의 주변이 아닌가 싶다. 철저히 研究되고 다듬어진 設計에 틀림이 없는 資材選擇이 된따라 주어야 하겠는데 建築主의 무관심과 비 협조와 아집으로 建物을 버려놓는 경우가 흔하다.

실수요자인 建築主는 選擇을 하는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서 設計表示 대로 購入하는 과정을 할뿐이다. 얼 마나 정확하게 設計대로 選擇하느냐 하는것이다. 設計대 로 選擇치 않고 다른것을 고집한다면 잘 될 수 가없다.

設計 이전에 設計者와 建築主가 충분히 외논하고 견학하고 協議를 거치는 過程은 있을 수 있으나 設計者 에게 지정을 한다거나 고집을 말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흔히 자기집이라는 權限으로 設計分野까지 범해오는 모자라는 建築主들이 있는데 建築主 자신에 손해일 수밖에 없다. 응분의 설계비를 지출하여 創作인 좋은 設計를 얻는 過程이 설계의로 과정인데 옮지않은 閱述으로 좋지않은 改計請果가 된다면 얻을것을 못 얻는격이 되니손해가아난가?

要約하면 建築主는 設計하고저 하는 建築物에 與件만을 賦與하고 設計는 建築士가 하는 것이고 보면 材料 選擇問題도 마찬가지로 意見만을 提示하고 選擇權은 建築士 에게 넘기는 것이 合理的인 方法일 것이다.

建築士가 選擇設計하여 주었을 때 이해를 하는편이 옳은 建築主의 태도이고 建物에 特性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본다. 建築主는 設計量 이해하기 위하여 材料에 대한 넓은 常識을 가질 필요가 있을것으로 본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生産되고 있는 建築材料가 정확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량품이 나돌아 選擇時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專門家도 속을 수 있는데 実需要者인 建築主 자신은 더욱 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에 監理者와 협조하여 選擇하는 方法이 無難하리라 본다.

4. 現代住宅 施工上에 나타난 資材選擇의 向方

내실이 强調되고 있고 또 그런 方向으로 建築主들의 要求나 設計에 反映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傾向은 선진외국에 비해 外部裝飾에 급급하고 內部마감공사는 소홀히 하는편이라고 함師하고 있다.

経済的인 実歷이상으로 外形에 神経을 쓰고 資本投資 하는편이다. 実際面에서 考察하면 技能面이 가장 強調되 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外形보다는 內障面이 徹底하게処 理되어야 하겠고 資金도 投資되어 야 하겠다.

安息処로써 편히 사용할수 있도록 形式이다. 建築様式이 문제가 아니라 実生活에 技能的으로 安息処를 提供해준 수 있어야 所期의 目的達成을 할수있겠다. 아무리 보기좋고 멋있는 外形을 갖추었다고 해도 內部가 不便하게 꾸며졌다면 말할것도 없이 미련을 自招하는 적이 된다.

우리들의 周辺도 좀더 內室을 기하고 處勢를 버릴수 있었지 未來에 살수도 있는 훌륭한 建築을 이루어야하리라본다. 우리 周辺에서 보듯이 미니 2층이라 해서 지면 선을 1층높이 만큼 올려 짓는 행위나 불란서적 자붕이라하여 뾰족자붕을 만들어 不必要한 空間構成을 하여

経済的인 掛書와 좁은 도시생활 환경을 더욱 응지화 하는등의矛盾을 공공연히 恣行하고 있다.

검도 없이 그리고 배연하게 많은 세월을 두고 원망을 듣게 된다면 아벨 하지도 않은지 모르겠다. 아직은 우리들의 経済的인 与件이 圓漏치 못한 実情이라 하더라도 建築行為는 半水久的保存이 가능한 実情이므로 좀더 将来 性을 감안하여 좋은 建築이 되어야 하겠다.

점차 꾸미는 한이 있더라도 計書에 의하여 完璧한 工 法으로 마무리 되어야 하리라 본다. 一時的인 与件만을 主題로 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것이다. 앞으로

『일반 需要家들의 資材選択 傾向도 徹底히 將來性을 감 안 選択되어야』하겠다.

5. 바람직한 建築資材 選択法

應荒되고 名移한 외국예를 받아들어는 傾向은 없어져야 하겠고 장래까지를 감안한 우리현실에 적응할 수 있게 선택되어야 하겠다.

建築資材의 発展과 건축술의 発展으로 많은 변화를가져 왔다고 보는데 住視해야될 사항이라면 역시 建築主의 태도라고 생각된다. 建築主가 経済全般에 全權을 誇示하 면서 任意로 建築資材를 選択하는 傾向이 짙어서 設計者 의 意図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극히 조심스럽고 建 築発展에 沮害를 갖어오는 原因이 되기도 한다.

전공을 해도 建築資材의 範圍가 너무 넓어 실수할 수있 겠는데 비전문가가 적합하게 選択하리라고는 밀어지지가 않는다. 可能하면 設計者의 意図대로 選択해야 되겠고 設計者가 選択設計된 作品대로 遵守하여 施行하는 결이 가장 현명한 方法이 되리라고 본다.

完全하 錯誤없이 施行하려면 設計를 익히고 물고 矛盾이 除法된 후 施行하고 設計者의 意図를 살리기 위해 建築主는 資材의 規況과 새로운 개발품목의 多樣한 建築材를 잘 보고 들어서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規実을 잘 모르는데서 이해 못하는 점이 생기니 意見対立이나 임의 変更事項이 생기지 월도록 事前에 予防이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設計者는 물론 최근의 資本開発 状況을 정확하게 파악 해야 되겠고 設計한 作品에 적합하고 妥当한 資材選択을 하기 위해여 많은 노력의 경주가 있어야 되겠다.

建築主들의 非常한 관심사로서 많은 자식을 갖은 建築 또들에게 失疑을 주어서도 않되겠다. 년중계속적으로 신 경을 써서 누구보다 먼저 최신資材에 대한 情報를 알고있 어야 되겠다. 建築設計者 본연의 자세를 확보하고 올바른 設計反映의 견이되고 建築主들의 결잡이가 되려면 역시 設計者 자신의 많은 노력과 공부를 계속해야 될것으로 믿는다. 그래야만 옳바른 資材選択法이 施行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建築主들의 희망인 안식처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밀고 의뢰할 수 있는 바탕이 되리라 본다. 최소한 비전문가인 建築主물 보다 못하다는 평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6. 建築資材 生産者들에게 원하는 점

간단히 요약하여 부탁을 한다면 시대에 適應하고 將來 性까지 보장 이되는 질에 資材生産을 하여 주었으면 좋겠고 최소한 국내 生産材料의 불신감을 불식하고 선진 외국 대열에 설 수 있을 때를 조속히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장래 資材開発을 위하여 研究하고 投資하여 뒤따라 가는 生産業者가 아닌 앞서가는 生産者가 되여 선진 대열에 속히 자리를 굳힐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었으면 한다.

우리나라 전시에 하꼬방을 짓듯 그나마 수명이 1년에 몇번씩 출몰하는 生産者들의 失態를 벗어 날수 있어야 하 겠다. 一時的인 수입에 依存하고 投機的인 업태로 수지를 맞히려는 성급한 계산으로는 좋은 資材를 만들 수 가 없으 라라 본다. 지구력 있고 研究에 研究를 거듭해서 完璧한 資材를 生産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줄안다.

물론 生産者 單独的인 研究보다는 需要者 흑의 現実을 잘알고 선진대열의 정도를 알고있는 設計者의 諮問을 얻 어 生産에 임하는 것도 기업운영 全般에 도움을 가져오리 라 본다.

會社自體 機構로 연구실도 필요하겠고 그외 研究에 필요한 廣範圍한 材料 蒐集에 게을러서도 안되겠다. 대부분의 建築士들은 実際前에서 資材에 많은 研究와 與心이 있고 또 開発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필연성과 아쉬움을지니는 터라 쉽게 諮問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을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資材生産者와 設計者가 좀더 밀착되어 힘을 합한 研究 結果로 生産에 입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믿는다.

본인의 経験으로 미루어 実效를 거둘 수 있는 아이디어 라고나 할까? 자본투자(資本投資)에 비해 더 좋은 結果 를 가져올 수 있는 方法이라고도 생각된다. 급성장의 꿈 을 갖기보다는 드문드문 황소걸음의 成長이 안심되고 더 빠른 企業成長이 되지않을까 생각도 해본다.

노력한 만큼의 이익을 추구하는 誠実한 企業들이 되어서 잘크고 健在하여 세계적인 生産業体로 키워 나갔으면하는것이 우리들의 바램이다. 또 생각을 곁드린다면 独

占企業化하여 목리를 꿈꾸기 보다는 分業化하여 보다 빠른 発展을 기하고 協業이 이루어져서 각자가 노력한것 만큼의 댓가를 원하는 안정된 企業倫理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7. 資材展示会에 바란다면

出品業體量에게는 물론 더 많은 PR이 되여 企業에 도움이 되어야 하겠고 主管하고 수고한 협회는 일반 需要家들이 많이 보아서 建築士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 建築士 자신의 도움도되어야 하겠다.

展示場이 挟小할 만큼 더 알차고 멋있게 전시카되어야 하리라 본다. 届日選定書부터 展示方法, 종별분류동 確 実하고 자신있는 展示会를 主管하여 주었으면 한다. 처음으로 지부가 주관했고 장소도 局限되여 마음껏 展示 를 할 수 없었다고는 하나 그럴수록 더욱 확실하고 一目 瞭然게 展示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본다.

누구도 다녀간 사람이면 참고되고 유익한 展示会를 말이다. 生産者인 出品業體는 더욱 자신있는 生産品을 展示해야 하겠고 主管하는 협회는 좀더 필요한 展示会가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더라 본다.

매스컴의 P·R작업부터 시작하여 대관청문제도 現場에서 이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하겠고 建築土 자신들의 参與意識도 더욱 强調되어야 하겠다.

建築主 자신이 피부로 느껴 이해할 수 있도록 現場에 안내되여 대화를 할 수 있다던가 또는 스스로 觀覧게 하여 이해를 얻도록 한다는 새로운 覚悟와 보다 徹底한 展示会 계획이 竪立되어야 하리라 본다.

住宅 建築許可 制度改善策 実施에 対한 小考

姜 奉 辰 国宝建設団代表

政府에서는 歴史的인 維新課業達成者 為む 施政의 一環으로 国民生活과 密接한 関係가 있는 庶政을 刷新 하고 從来 民願事務와 結付해서 発生했던 各種의 不條理를 剔決除去하려는 施策을 果敢하게 推進하고 있다.

이와같은 일은 維新課業의 早期達成과 国家百年大計 를 為해서 至極히 바람직한 것으로서 오히려 晩時之歎을 禁 합길이 없다.

特히 이러한 庶政의 刷新과 不條理의 除去에 対한 政策 은 一時的인 ロ号政策이 아니라 恒久的인 継續政策 으로 서 民族総和団結과 国家安保的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는 것을 그 理念的 바탕 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重大한 意義를 지닌 施策을 効果的으로 達成 하려는데는 무엇보다도 먼저 国民各自의 自覚과 協調가 있어야 할것은 勿論이려거니와 아울러 各種法令의 整備化 作業도 併行해 나가야 할것이다.

序上의 趣旨에 立脚하여 今般 政府에서는 從來 建築許可를 둘러싼 不美스러운 여러가지 形態의 不條理를 根絶하고 明朗한 国民生活과 清新한 社会気風을 振作 시키기為하여 国務総理指示 第20號(1975. 12. 15字)로 「住宅建築許可制度改善策」을 마련하여 全国 一獨司 施行 하기에 앞서 干先 示範的으로 1976. 1. 1부터 水原, 全州, 普州, 春川等 4個市에 実施한 結果「建築許可의 迅速化」、「行政의 簡素化」및「不條理의 除去」等 面에서 政府가 当初 意図했던바와 같은 所期의 成果를 거두었음에 힘을 얻어 이 制度를 다시 1976. 7. 1부터는 準備態勢가 未備했던 서울特別市와 建築士가 1人밖에 없어 実施不能 했던 서울特別市와 建築士가 1人밖에 없어 実施不能 했던 서울特別市의 建築士가 1人밖에 없어 実施不能 했던 서울特別市의 建築士가 1人밖에 없어 実施不能 했던 서울特別市의 大學第 5個郡에 擴大実施하게 된 것이다.

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都市計劃整備等 先行해야할 事項에 対한 措置을 今年末까지 끝내도록 하고 議政府市도 年末까지 準備를 갖추어 來年1月1日부터는 全面的으로 実施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住宅建築許可制度改善策」이 全国的으로 擴大実施 하게 되자 大多数의 建築士들은 이 制度의 根本趣旨가「建築許可의 迅速化」,「行政의 簡素化」및 「不條理의 除去」等에 있음을 認識하고 그 妥当性을 十分 認定하여 이 制度実施에 順應하고 있는 反面에 実施 運営面 에 있어서의 実施要綱의 未備点과 그 内容에 不合理性을 内包하고 있음을 指摘하고 이에 対한 是正을 要望하고 있다. 그中에서도 가장 論難의 焦点이 되어 있는것이 連帯責

実施要綱 3項에는 連帯責任建築士의 組를 編成함에 있 어

任建築士의 組編成制度이다.

- (가) 原則的으로 5人以上으로 하되 不得己한 경우에 市道知事가 3人以上으로 編成하게 할 수 있고
- (나) 1, 2級建築土混成으로 編成할 수 있으나 建築 土法 第4條에 該当하는 建築物의 連帯責任建築士 는 1級 建築士(다른組의 1級建築士를 包含)로 編成하되 서울, 釜山, 大邱에서는 3人以上 其他 地域에서는 2人以上 으로 하고
- (다) 連带責任建築士의 事務室을 組別 共同事務室로 하 거나 同一建築物內에 設置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 (가)의 組編成人員数에 対하여는 建築士의 分布状態를 考

應해서 現実的으로 可能하도록 하기 為한 規定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되면 原則에 立脚해서 組을 編成한 地域에서는 5人組 및 6人以上組가 連帯責任을 지게 마련 인反面에 地方長官들의 載量에 立脚해서 組를 編成한 地域에서는 3人組 및 4人組가 連帯責任을 지게되어 660m학 는 同一條件의 住宅建築에 있어서 連帯責任을 分擔 하는 建築士의 人員数가 各各 다르다 하는것은 建築行政의 統一性으로 보나 法의 衡平原則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다.

따라서 組編成人員数에 対해서는 要綱을 고쳐서 地方長官의 載量權을 없애고 一律的으로 下限線인 3人으로 내리는 것을 多大数建築士가 要望하고 있는 実情이다.

(나)의 1, 2級建築士混成組 編成에 対하여는 現実的 인 面에서 볼때 이들 要綱 그대로 施行 하는데는 여러가 지 難点과 隘路가 많다고 한다.

2級建築士의 業務限界인 300m²以上인 建築物에 対한 連帯責任을 지는 1級建築士의 人員数를 서울, 釜山, 大 邱에서는 3人以上, 其他地域에서는 2人以上이란 下限線 을 定해서 1, 2級建築士混成組를 編成할 수 있게 하고 1級建築士가 不足한 地域을 勘案해서 다른組의 1級建築士의의 責任提携를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実地問題에 있어서 建築士 同一人이 두개의 組編成에 加擔하는 結果가 되고 担当建築士는 일일이 他組構成員의 連帯責任 建築士를 찾아다니며 署名捺印을 받아야 하는 苦痛과 반겨로움을 겪어야 하게 되어 있을뿐 아니라 現在 全国의 1級 建築士分布狀態를 보면 35個市中 1級建築士 1人 밖에 없는 市가 10個市나 된 現実에 비추어 볼 때 이 規定은 마땅히 是正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現実情에 맞도록 하기 為하여 混成組의 1級建築土構成要件을 緩和 하여 全国一律的으로 1人以上으로하고 建築土法 第4條에 該当하는 業務遂行은 그 1級建築土가 担当하도록 하고 連帯責任은 担当建築土가 所属된 組에서 지도록 是正해 출것을 要題하고 있다.

(다)의 連帯責任 建築士의 事務室을 組別 共同事務室 로 하거나 同一建築物内에 設置해야 한다는 規定에 対하 여는 많은 建築士가 難色을 表明하고 있다.

連帯責任 建築士와 担当建築士 相互間의 連帯責任 事務處理上으로 봐서는 共同事務室이나 同一建築物内에 한 군데 모여서 業務을 遂行 하는것이 能率面과 経営面 에서 바람직 하다는 当為性을 認定 하면서도 한便으로 現実的 인 面에서 腦路가 많음을 指摘하고 있다.

建築士 事務所가 어디까지나 営利를 圖謀하는 業体는 아니드라도 生業의 하나인 以上 事務所의 立地的 條件이 良好한곳에 設置 하므로써 業務遂行과 顧客誘致에 有利 할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변두리 뒷골목에 設置한 경우와 部心地나 許可廳隣近에 設置했을 경우를 생각 해보면 自明한 埋致이다.

建築事務室의 最少限 規模를 5坪乃至 10坪으로 잡고 共同事務室로 할 경우에는 5人組인때 25坪乃至 50坪의 事務室이 必要할 것이며 3人組인때는 15坪乃至 30坪의 事務室을 새로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욱 個人 事務室單位로 同一建築物內에 設置할 경우 에는 3室乃至 5室이 同時에 들어갈 수 있는 建築物 이 있어야 할 것이다.

現実面에서 볼 때 賃貸料関係, 立地的 位置関係 또는 同時入住可能空室有無関係等 여러가지 條件에 合当할 다 한 事務室을 求得하기란 至極히 困難한 実情이라고 指打하고 있다.

또한 共同事務室로 할 경우 個個人의 業務上 機密維해 제도 難点이 있을뿐 아니라 汎建築物에 適用하는것도 어디고 一定規模·以下의 住宅建築에 限한 連帯責任을 지하는 하는 한 보통하는 하는 하는 하는 하는 있다.

그러므로 建築主個個人의 從前事務室을 그대로 使用하면 저 該当建築物에 対한 相互連帯責任만 지도록 組만 編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드라도 建築士中에서는 合理的인 業務処理의 運営上의 当為性에 立脚해서 自発的으로 共同事務室을 設置하던가 同一建築物內에 함께 事務室을 設置하려는 建築士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事務室設置는 建築士의 自律的인 處理에 맡기기로 하고 要綱의 事務室規制에 関한 規定은 削除하는것이 妥当하리라고 생각 된다.

위에서 論及한 共同事務室의 概念에 対하여는 文字그대로 建築士業務는 各個人 経営体를 前提로 하고~다만組構成員이 事務室만 共同으로 使用하는 形態를 指稱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一定한 規約下에 合同経営体로運営하는 所謂「合同事務所」와는 根本的으로 다르다할 것이다.

그러므로「簡易節次에 의한 民事紛爭事件 處理特例法」에 依據 設立한「合同法律事務所 에게는「公証人法」에 規定한 公証業務를 遂行할 수 있는 権限과 特惠를 주고 있는것과 같이 建築士에게도 어떤 法的 根據를 아련하여이 法에 依據 主務長官의 認可를 받아 設立한「合同 建築事務所」에 限하여는 660㎡ 以下의 住宅建築뿐만 아니라모든 建築物에 對한 許可聽의 権限을 大幅移讓하고 또 稅制面이나 其地 業務面에서의 特惠를 주도록 하면 굳이事務室을 共同으로 하거나 同一建築物內에 設置해야 한다는 規制를 하지 않드라도 스스로 解決된 問題일뿐 아니라行政簡素化를 促進 시키는 一石二鳥의 効果가 있을 것이다.

每年의 建築許可統計에 依하여 住宅建築이 차지하는比率을 보면 建築面積上으로는 住宅建築이 全体建築의 75~80%이며, 棟数上으로는 85~90%로서 住宅建築이 断然首位를 차지하고 있는 実情에 비추어 今般 実施 하는 「住宅建築許可 制度 改善策」의 施行은 建築行政의 一大改革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이와같이 建築行政의 劃期的 轉換点을 갖어오는重且大한 性格을 지닌 것인만큼 建築士는 누구나 至大한與心을 갖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 改善策実施要綱에는 上記한 連帯責任 建築上의 組編成問題 以外에 建築許可業務 處理規定, 設計圖書의 作成 및 捺印規定, 工事監理規定, 中間檢查의 実施規定, 竣工検查規定 및 合同検查班의 編成規定等 여러가지 條項에도 未備한 点과 不合理한 点을 是正補完해야 할 素地量

多分히 內包하고 있으나 次次 改善 되리라 밀고 言及을 省略 하거니와 한가지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수 없는 것은 事前에 建築士의 意見을 綜合할 수 있는 公廳会라든가建 築士를 参席시킨 要綱制定審議会와 같은 機構를 通해서 制定 했더라면 좀더 좋은 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생 작된다.

비록 法的 뒷받침이 없는 行政指示로 実施 한것이라 할 지라도 이미 施行이 既定事実化된 以上 이를 遵守해야 하 며 順應해야 할것이 国民의 道理일 것이다.

그러나 上記한 바와같이 여러가지 不合理하고 未備한 点과 法的根據가 없는 條項等에 対해서는 慎重히 調查檢 討해서 改善補完해야 하며 또 関係法을 早速히 改正해서 法的根據에 立脚한 施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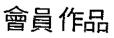
新刊案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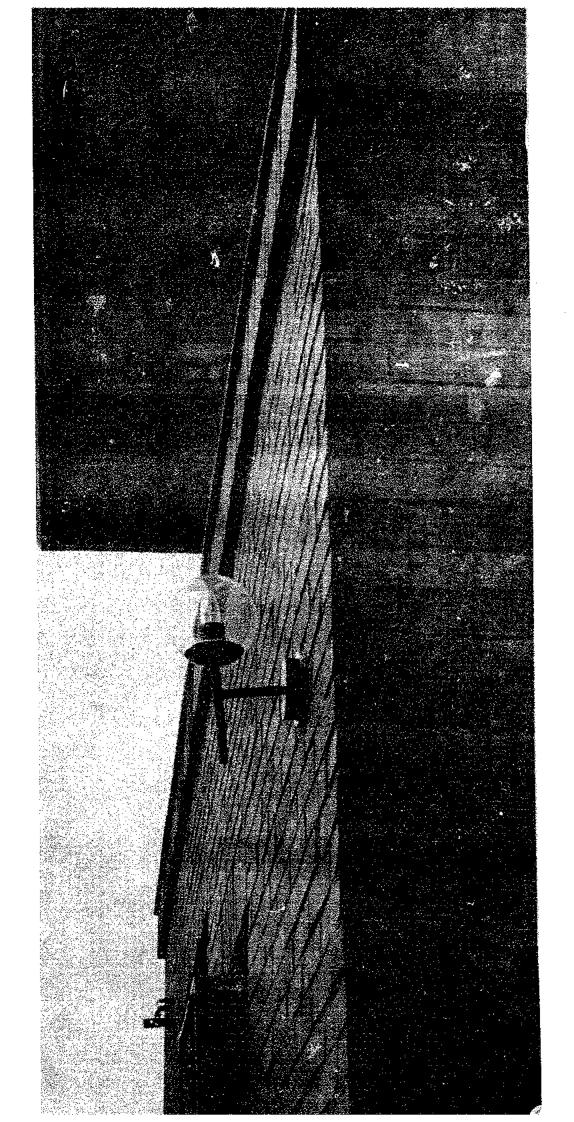
韓国上代建築의 研究

原著 米田美代治 譯 申 栄 勲

東山文化社編正方菊判 185面定価 4,800원

TEL. 73-9492





카톨릭 의대부속 성바오로 병원

설계:김동규 (김동규 전축설계사무소)

주 소: 중구 태평로 1 가 62의 3

소 재 지:서울투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의 56

대 지 면적: 1.646 (M²) 건축면적: 1.134 (M²) 기준총면적: 1.134 (M²) 연면 전: 13.149 (M²)

총 수 : 지하 2층 지상 10층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설 비:생난방 위생 전기 및 소화성비 기타용 도:의과대학 부속 종합병원으로 261병상

공사착공일: 1975. 3. 1

〈설 비〉

위생 도 기 : 대변기는 양변기 또는 화면기, 4번기, 세면기.

욕조 등 설치.

전 기 설비 : 22,900 볼트 독교수전하여 별대에서 전압을

낮추어서 3상4선식으로 조정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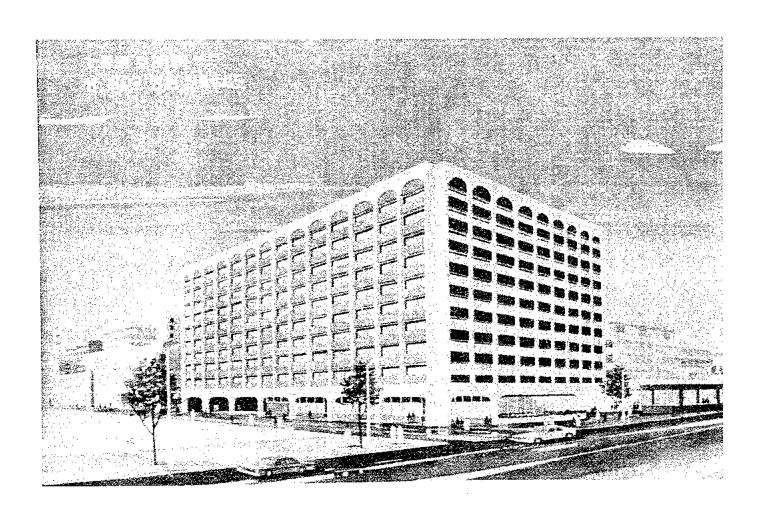
냉난방설비: 환교일 유니트 사용으로 병난방 결용. 상수도설비: 시 상수도에서 분기하여 수조에 연결하고

. 이 경기 도에야 군기에 이 기고에 근행이다. - 옥상 물탱크살로 종수하여 각층에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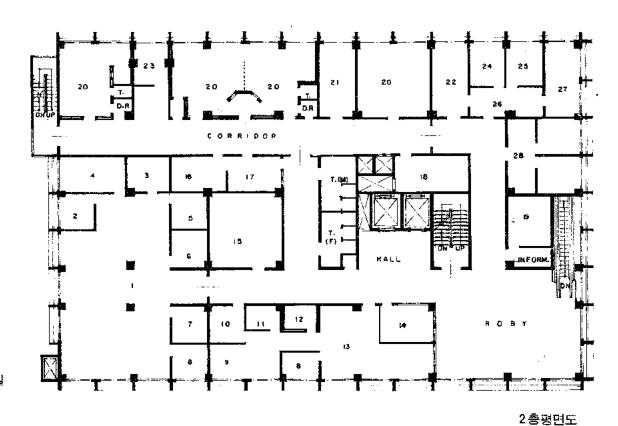
정 화 조 1400인조 정화조 선설로 시하수도에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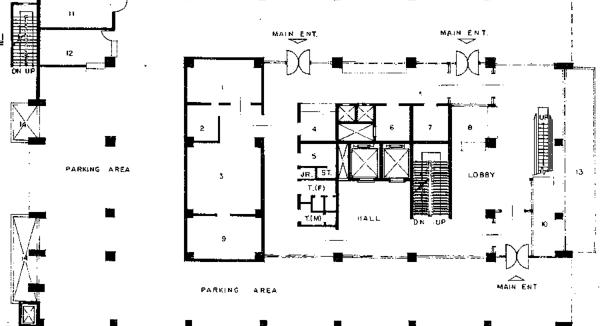
홈 통 : ø 100 mm 천파이프로 시하수도에 연결

각종철물 :국내 생산품으로 최성급품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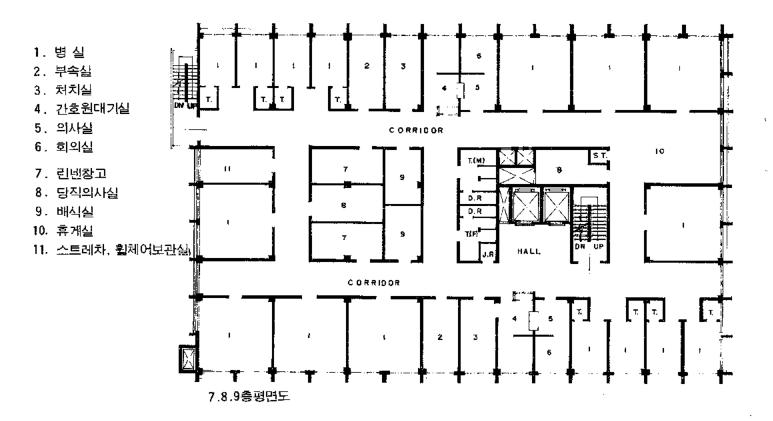
- 1. 실험실
- 2. 조직학
- 3. 소독학실
- 4. 세균학실험실
- 5. 개스분석실
- 6. 당직실
- 7. 회의실
- 8. 사무실
- 9. 작업실
- 10. 중유기실
- 11. 부균실
- 12. 냉동창고
- 13. 약 국
- 14. 입퇴원접수실
- 15. 원무과
- 16. 관독실
- 17. 당직·접수
- 18. 필립창고
- 19. 의무기록실
- 20. X레이 촬영실
- 21. X레이 과장실
- 22. 정형외과진찰실
- 23. 암실
- 24. 진찰치료실
- 25. 진찰치료실
- 26. 정형외과
- 27. 골절실
- 28. 주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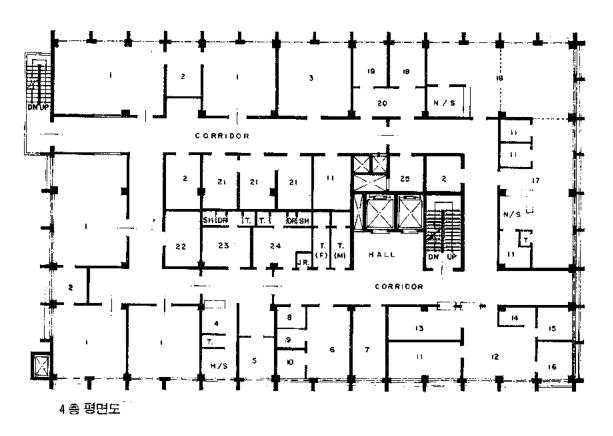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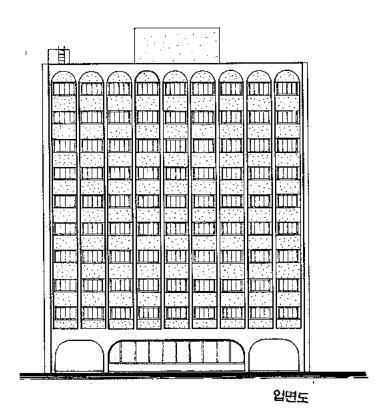
1. 응급환자 수술실

- 2. 간호원 대기실
- 3. 관찰병실
- 4. 접 수
- 5 부속실
- 6. 약 국
- 7. 당직의사실
- 8. 안 내
- 9. 관찰병실
- 10. 매 점
- 11. 깨스보관실
- 12. 운전수대기실
- 13. 화 단
- 14. Dry Area



- 1. 수술실
- 2. 부속실
- 3. 회복실
- 4. 조종간호원실
- 5. 의사실
- 6. 골절실
- 7. 화상환자치료실
- 8. 간이 X -레이실
- 9. 석고실
- 10. 부목실
- 11. 중앙소독실창고
- 12. 중앙소독실
- 13. 공급실
- 14. 소독실
- 15. 장갑실소독실
- 16. 간호원실
- 17. 중환자실
- 18. 중환자실
- 19. 사무실
- 20. 마취과
- 21. 간호원작업실
- 22. 준비실
- 23. 간호원갱의실
- 24. 의사갱의실
- 25. 배식실





WARD

WARD

WARD

WARD

WARD

ST. ST. WARD

WARD

WARD

ST. ST. WARD

WARD

WARD

ST. ST. WARD

WARD

WARD

WARD

ST. ST. WARD

WARD

WARD

WARD

ST. ST. WARD

WA

단면도

호남화력발전소

설 계:김 창 서(협화전축설계사무소)

위 치:전라남도 여천군

구 조:철근콘크리트 기초

철골조, 외벽 Metal Siding

건물면적 : 1층 7.230% m²

연면적 14.077* m²

건물높이 : 최고높이 G.L+32.5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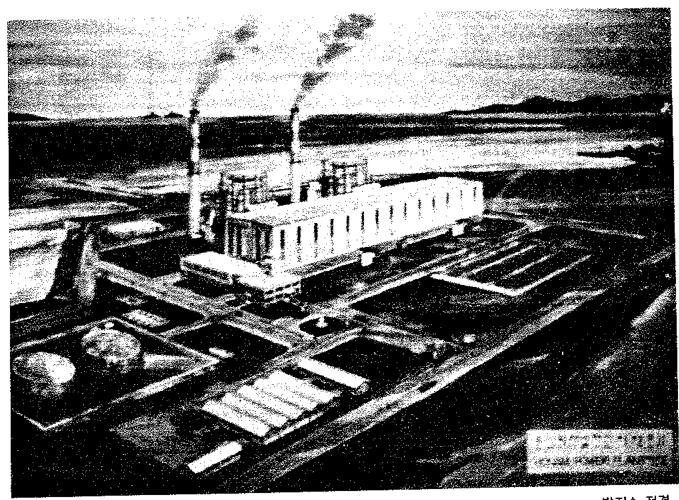
처마높이 G. L+32.º m

건물체적 : 40.243.26 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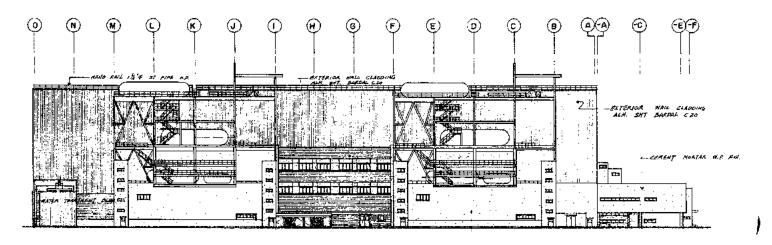
시 설:80\$ Crane 1대

5第 Crane 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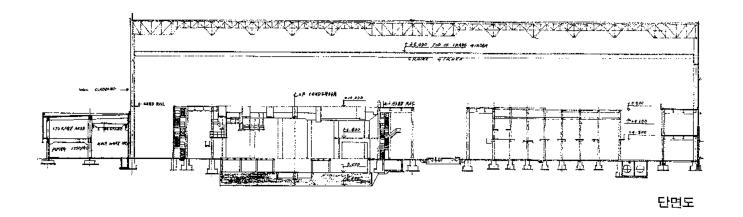
발전용량: 30만 KW 2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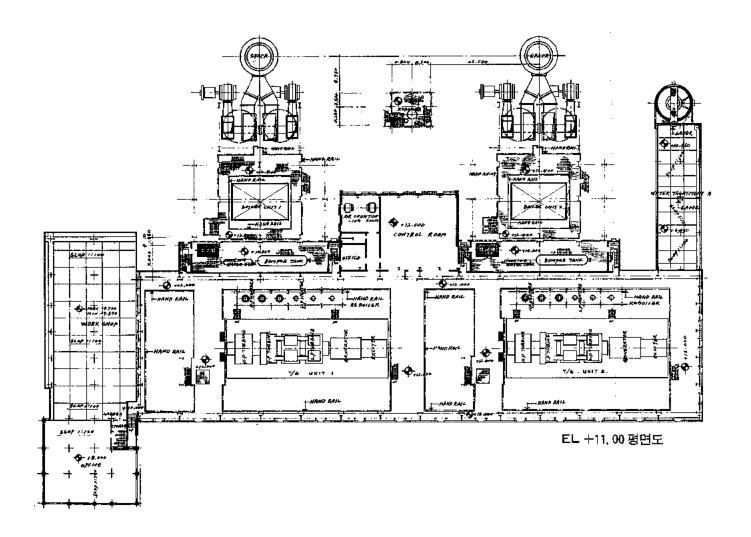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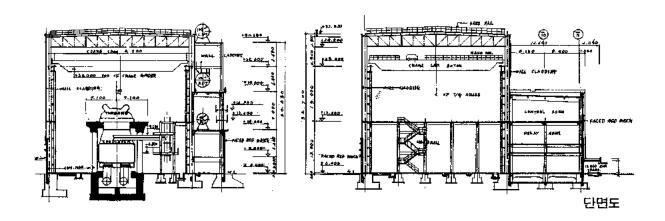
발전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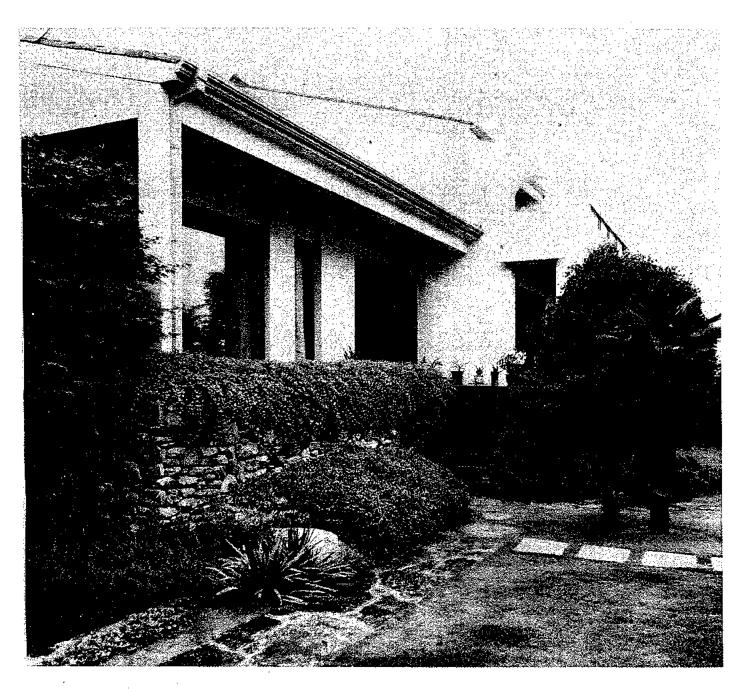


측면도









건물전경

P氏住宅

설 계:黄 一仁(建元社建築研究所)

위 치:부산시 초량동

대 지:150坪

건축면적 : 1 총 42坪

2층 9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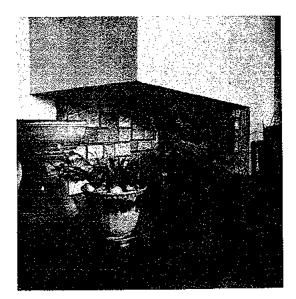
지하 8坪

計59坪

구 조:조석조

설계개요: 동쪽으로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지은 주택으로 동쪽으로 시선을 열었으며 집 가운데 채광 정원을

두어가지고 채광과 통풍을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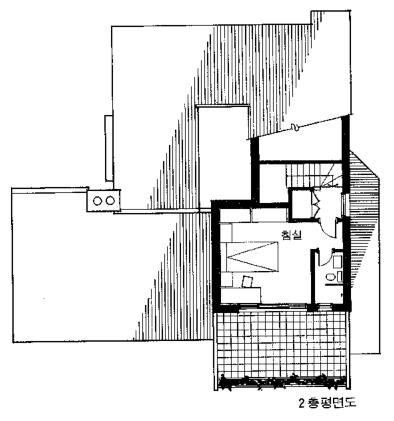
벽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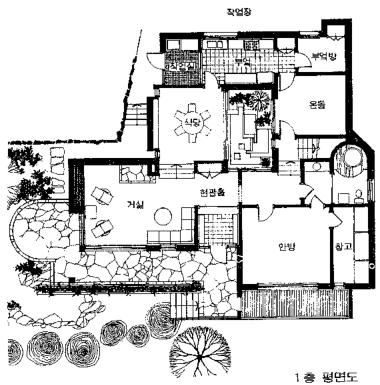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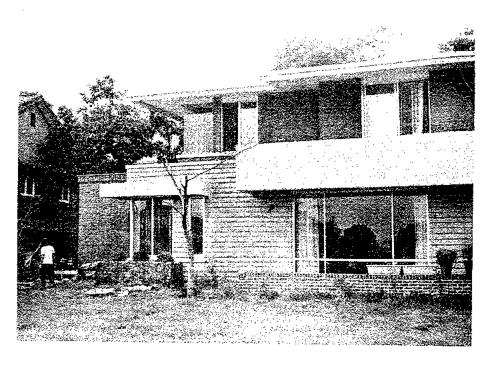
거실에서 본 식당



테라스







정능 B氏宅

건물개요

설계:김형석(피아전축기술공사)

위 치:서울성북구 정능동

대지면적 : 720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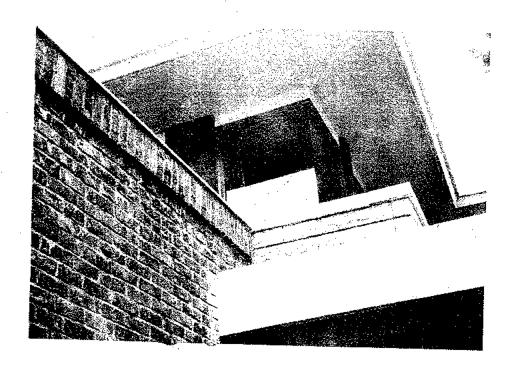
건축면적 : 지하 115.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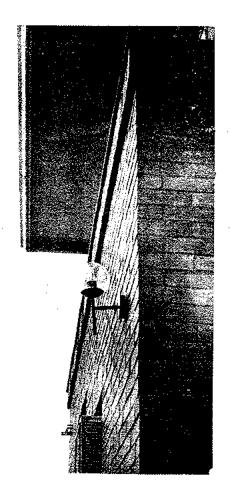
I총 115.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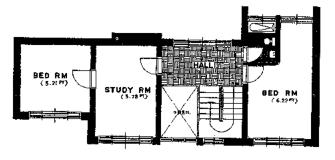
2 🏯 82.5M³

연면 적: 231M° 구 조:연화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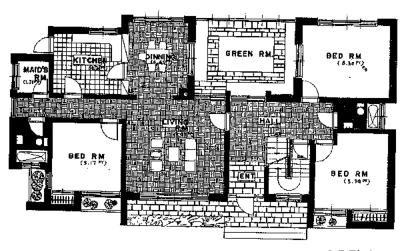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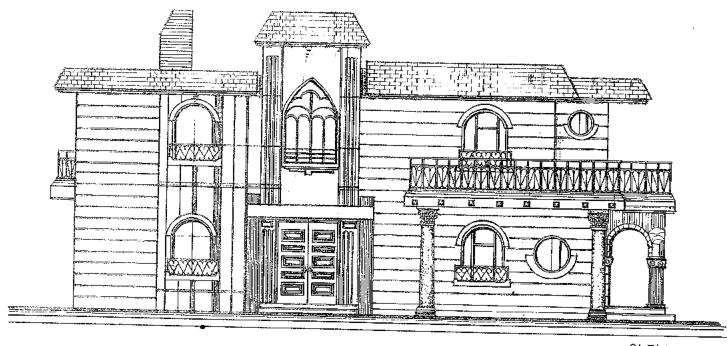




2층 평면도



1 총평면도



입 면 도

정운동リ氏宅

건물개요

설 계:조성만(가야중합건축설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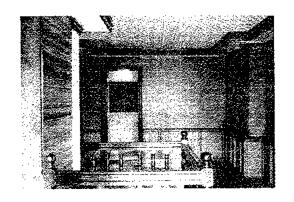
위 치 : 종로구 청운동 대 지 : 398.95㎡ 건축면적 : 147.74㎡ 연 면 적 : 23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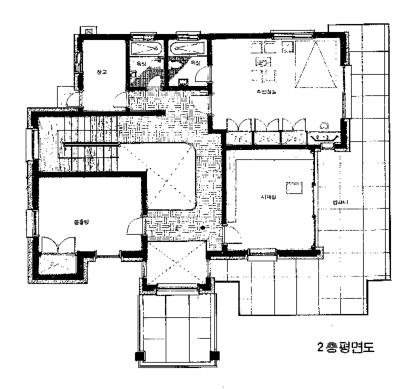
건 폐 율:37% 용 적 율:5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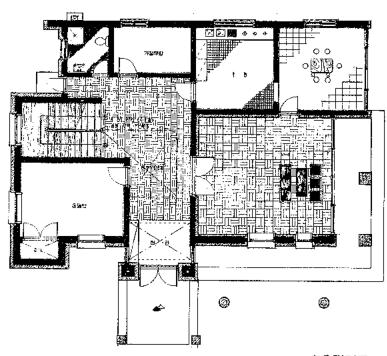
설계개요:

주위에 독특한 고대중의 건물양식의 가벼을 변형 자용하였고 내부의 웅장과 아늑하게 설계 계획하여 실내에서의 외부진방에 부담없게 설계 계획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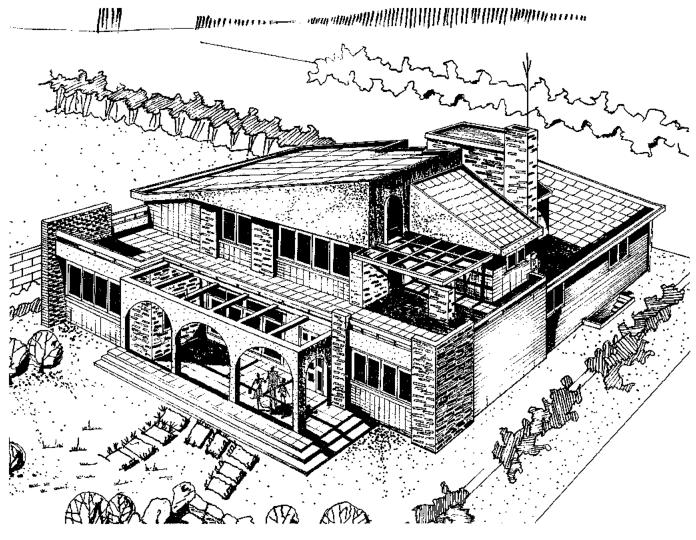








1총평면도



투시도

L氏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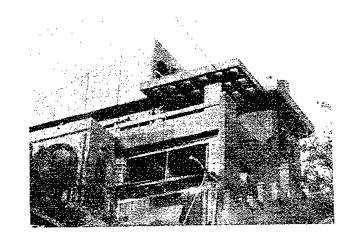
설 계:鄭正治(合同建築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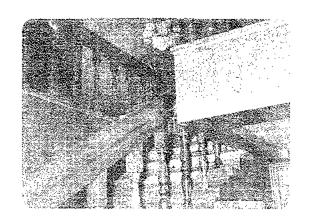
위 지 : 서울서대문구 북아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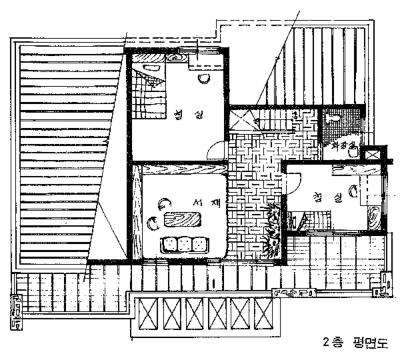
대지면적 : 560 m² 건축면적 : 1 총 153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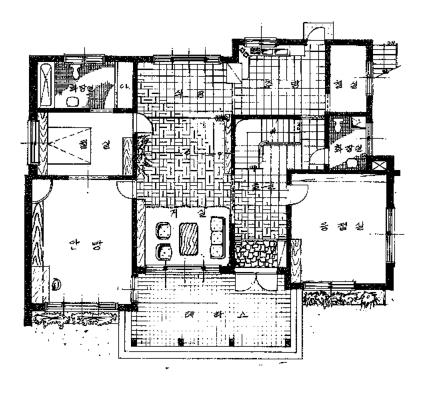
> 2 춤 79M² 지하층 30M²

연면 적:262M² 구 조:조_적조









1층 평면도

住宅 建設促進法 施行規則 改正令

1976, 9, 6

住宅建設促進法施行規則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제1 조 (목 적)이 규칙은 주택전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의 현황보고) 한 국주택은행은 법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자금 의 조달과 운용에 판한 현황을 별지 제 1 호세식에 의 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 까지 재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 조 (주택건설 계획수립 동) ①시행령 세 4 조의 2 제 1 항외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계획은 별지 제 2 호 서식 에 의하여 수립한다.
 - ② 시행령 제 4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외한 쿠택조사 는 별기 제 3 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 제4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시행령 제22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사업 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대지조성사업 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②시행령 제22조 제 1 항 제 3 호 단서 "건설부령 으로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1에 계기하는 도서를 말한 다.
 - ③ 시행령 제22조 제 1 항 제 3 호의 대지조성공사 설계 도서는 별표 2 와 같다.
 - ④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 공사 인 경우에는 제 1 항의 사업계획서에 건축대지 증명서를 사업주체가 "기타의 사업자"인 경우에는
 - 본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 ⑤ 시장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가 시행령 제22조 제 2 항외 규정에 외하여 작성되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소방법 기타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등 관한 외견서는 별지 제 6 호선식에 한다.
 - ⑥건설부장관은 시행령 제22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측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대한주택공사로 하 여금 사업계획숭인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서에 동사업 계획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 부·처·청의 장 및 지방자치단채의 장에게 송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서 류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서류를 예비검토하여

- 전설부장관의 협의요청윤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의 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사업주체가 시행령 제22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당해 사업계획이 도시 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계획결정을 요하는 것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22조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나움 각호의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도시계획도면
- 1. 지적도 (도시계획시설표시) (축척 1/1, 200)
- 3. 도시계획시설조서
- 4. 도시계획결정에 참고가 되는 도서
- 제5 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 제 1 항 단서에 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이라함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 감 다만, 자체자금의 경우에 한한다.
 - 2.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범위안에서의 조정.
 - 3.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_ 사항에 대한 변경.
- 제6조 (전용면적의 계산) 시행령 제19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 3조 제 1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다면적으로 계산하되, 복도·계단·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소등 2 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 제7조 (국민주택의 공급조건 등) ①시행령 제21조외 규정에 의한 국민주백의 공급은 공개모집에 의하되 1 세대 1주택으로 한다. 다만, 군사원호보상법과 국가유공자 및 월남기순자 특별원호법에 의한 원호대상자, 한국주택은행에 주택저금을 한 자, 철거민· 재해민에 공급하는 경우, 대도시인구분산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경우와 특수분양 또는 특수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수 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복리시설의 분양 또는 임대는 공개모잡의 방법에 의하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

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담당 경찰관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 제8조 (무주택증명) ①국민주택에 입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등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가옥대장등본
 - 2. 가옥등기부 등본
 - 3. 가옥에 대한 재산새 비과세증명
 - 4. 무허가 건물 또는 철거예정가옥임을 증명하는 서 류.
 - 5. 가옥배매계약서 사본(매매계약대급이 완납된 것에 한한다)
 - ② 혼인으로 인하여 분가하는 세대주가 구민주택에 입 주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호적초본 (혼인신고확인증) 및 가옥대장등본을 사업주체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제 9 조 (입주자의 모집) ①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공개모 집할 때에는 다음 자호의 사항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 다.
 - 1. 주택소재지
 - 2. 건설규모
 - 3. 세대당 주택면적 (아파트와 연립주택인 경우 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할 것) 및 대지면적 (아파 트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명시할 것)
 - 4. 신청자의 자격
 - 5.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6. 분양 또는 임대의 구분
 - 7. 분양가격과 입주금(계약급, 중도급 및 잔금을 명시할 것) 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8. 입주자의 선정시기 및 방법(선착순 또는 추첨)
 - 9.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현황
 - ②사업주체가 제 1 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그 공고문의 상단에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 의 국민주택자금을 지원하여 건설 공급하는 것임"율명 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입주자 선정시기) 사업주체는 시장 또는 군수 가 당해 국민주택 건축공사의 공정이 20퍼센트 이상임을 확인한 때에 입주자 선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국민주택의 분양가격 및 입주금 등)
 - ①국민주택의 분양가격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에 의한다. 다만, 분양 가격 승인 이전에 분양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상의 예정가격으로 분양하되,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분 양가격을 승인받기 전에는 예정가격의 80퍼센트 이상 을 분양대금으로 수령할 수 없다.

- ②입주금은 계약금·충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되 계약금은 입주금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입주금의 60퍼센트 이내로 하며, 중도금은 1월 간격으로 2회 이상분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준공되었거나,입주예정 시기가 2월미만인 경우에는 중도금 및 잔금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국민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세대당 대지면적(아파트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명시할 것)
- 2. 세대당 주택면적(아파트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할 것)
- 3.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역
- ④ 사업주체는 당해 국민주백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자체없이 법 제21조의 구정에 의한 분양가격 중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가격 사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이라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2조 (주택은행에의 통자)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분양 시에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대환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미리 한국주택은행에 그 분양내용을 통지하여야 한 다.
- 제13조 (분양가격등의 승인기준) 시행령 제22조의 2 의 규정에 외한 분양가격 및 가임의 승인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4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기부채납) ①사업주체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준공검사가 있은 후 다음 각호에 계기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이를 관할 시장 또는 군수나 시설관리청(이하 "시설관리청"이라한다)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
 - 1. 부대시설 중 전기·도로·상하수도·통신시설 다 만, 세대별 전용부분과 도로 중 6미터 미만의 도로를 제외한다.
 - 복리시설 중 분양 또는 임대가 불가능한 어린이 놀이터 및 운동장
 - ②시설관리청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을 기부채남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 7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 제15조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 ① 분양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입주자가 관리하고,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복리시설은 임대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관리한다. 다만, 입주자(임대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자치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관리하거나 관리인을 선정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을 받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관리청이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양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분양완료후 입주자 또는 관리인이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임대기간) 국민주택 및 복리사설의 임대가간은 1년간으로 하되, 입주자가 계속하여 임대를 희망할 때 에는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7조 (관리비 등) 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국민주택의 공용부문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수선유자비(분양주택인 경우에 한한다), 청소비,경비원 인건비, 사무원 인건비, 사무비 및 건설부장관이정하는 제잡비 등으로 하되 연간 관리비는 주택분양가격(분양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분양가격에 도매물가 상승지수를 곱한 가격)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실비로 정한다.

②제1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인 (이하 "수탁관리인"이라 한다)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비 징수내역과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수탁관리인이 국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전설부장관, 시장(서울특별시장, 부산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관리비 이외의 전기, 상수도, 급탕 및 난방 시설의 사용요금은 실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리인의 업무) 관리인은 다음 작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수선유지.
- 2.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경비
- 3.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청소
- 4. 분양부금 또는 임대료의 징수 및 납부대행.

5. 전기·수도·전화 등 공공요금의 징수 및 납부대행 제19조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전설기준등)국 민주택의 건설기준과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 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 4와 같다.

제20조 (주택자재 생산업의 면허세부기준) 시행령 제30 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세부기준은 별 표 5와 같다.

제21조 (주택자재 생산업의 면허신청) ① 시행령 제3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 생산업 면허 신청서 는 별지 제 8 호서작에 의한다.

②시행령 제31조 제 1 항 제 8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자재 생산업 면허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자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주면동록초본 또는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그 동기부동본)

2. 대지 시설 및 장비보유증명서(별지 제 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할 것)

제22조 (면허사항 변경신고)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 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그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면허증의 교부) ②법 제27조 제 1 항 및 시행령 제3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주택자재 생산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면허대장에 이를 통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면허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②주택자재 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주택자재 생산 업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의한 주택자재 생산업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건설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특정지역의 범위) 시행령 제31조의 2 제 1항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은 시(서울특별시, 부산시를 포함한다. 외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25조 (면허받지 아니한 자가 생산한 자재의 사용승인 신청) 시행령 제31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 조부용 자재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다

제26조 (주택자재의 품질 및 규격) 법 제28조의 규정에 위한 국민주택용 자재의 품질 및 규격은 별표 6 과 같 다.

제27조 (주택자재 생산업자 실태조사부) ① 건설부장관 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 생산업자 실태조사부를 작성 보관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 생산 업자 실태조사부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 생산업자로 하여금 별 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그 주택자재 생산업외 실태률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시범주택의 건설)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주택을 건설하 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범주택건설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 1. 시범주택건축자조서(별지 제17호서식에 외하여 작성할 것)
- 2. 사업계획서
- 3. 설계도서
- 4. 특수공법 및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명서
- 5. 대지증병서

②건설부장판은 제 1 항의 서류를 받아 시범주택을 건설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시범주택 건축지정서를 교부한다. 제29조 (증표의 서식) 법 제3I조 제 2 항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 (표준설계도서의 작성 및 공고)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표준설계도는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규모별로 7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외하여 표준설계 도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주택의 형별로 공고한다. 공고한 도서를 개정 또는 페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 (표준설계도의 관리 및 운용)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표준설계도서의 관리사항을 기록유지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서의 관리사항을 기록유지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연도말 현재의 그 보급현황(형벌 및 규모별)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민영주택예외 준용) 제 4조 제 1 항 제 3 항 제 5 항, 제 5초, 제 6초, 제 7초, 제 9조 제 1 항, 제 10 조, 제 11조 제 2 항, 제 3 항, 제 14조 내지 제 19조의 급정은 민영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최

-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 더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승인신청을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발표 1]

[品本 1]	_ 건 축	공 사 실 계 또, 선
도 거 의 종 류	孝 教	표 기 하 여 아 한 차 항
위 치 조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도면으로 한다.
가층 평면도	1 1	(1) 辛 考
	50 200	(2) 벽의 위치
		(3) 개구부 및 망화문의 위치

医 4 9 参 署	4	표 기 하 여 야 할 사 항		
the second secon		# 시 하 여 야 할 사 <u>항</u> (4) 직통계란 또는 피난계단의 위치 및 똑		
	1	(5) 복도의 위치 및 쪽		
		(6) 비상용 승강기 및 승강장의 위치 및 쫙		
	<u> </u>	(7) 기타 승강기 애스카레이타의 위치		
		(8) 전물의 쪽 및 길이		
달 병 조	$\frac{1}{20} - \frac{1}{30}$	(1) 축 최		
COMMAND THE COMMAN	7 20 20	(2) 기실의 바닥높이, 각층의 반자높이 및 전축물의 높이		
**************************************		(3) 벽의 제료 및 높이 (4) 난간벽의 구조 및 높이		
		(5) 계단 또는 경사로의 단면		
		(6) 변소의 부분상세		
일번도(2면)	1 1	(1) 축 청		
	$\frac{1}{50} - \frac{1}{100}$	(2) 개구부 및 외벽의 구조		
***		(3) 굴뚝 및 옥상 돌출구		
마 감 포		반자•벽 등 건축물 과 부분의 마감재료		
소방문에도,	일 의 ·	(I) 옥내 소의진설비		
	i di	(2) 스프링 크라설비		
		(3) 물 분무소화설비		
		(4) 옥외 소화전설비 (5) 성과 작소설의		
4		(5) 연결 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도	일 의	확재속보설비		
피난구, 유도등설치도	임 의	유도등 및 유도표시		
자동화재경보설비도	일의	(1) 자동화재탐지설비		
1		(2) 비상콘셀트 설치		
관련법령저촉여부전토서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함.		
[岩莊 2]	· · · · · · · · · · · · · · · · · · ·			
	패 지 :	조 성 공 샤 설 계 도 시		
도 서 의 종 류	<u> </u>	철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대지조성공사의 위치도	$\frac{1}{25,000} - \frac{1}{50,0}$	도시지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한다.		
	25, 000 5 0, 0	(1) 축척 및 방위		
27. 422 (Balleton and Marketon and Marketo		(2) 사업지구 표시		
대지조성공사의 지형도	$\frac{1}{100} - \frac{1}{1,200}$	공사전 및 준공후 지형도의 비교		
	100 1,200	(1) 축척 및 방위		
		(2) 등고선 (3) 하천, 구기		
		(3) 아전, T 건 (4) 기타 지상의 지형 • 지물 표시		
대기조성공사의 주단면도				
utilent e o nitel	$\frac{1}{300}$	공사전 빚 준공후의 단면 비교		

<u> </u>				·-··					
도 서 의	종 류	축	철	亚人	हे हो	여 야	한	사	항
대지조성공사의	병면도	$\frac{1}{100} - \frac{1}{1,200}$		(2) <u>도</u> (3) 子	복 및 방위 로등 부대시 조물(석축, 법지구 경계	옹벽 등) :			:
건축계획도		1, 200		명면과	· 중고를 표/ 백공사에 힌	시할 것.(국		자치 단	네 및
관계법령저촉여·	부검 도서		6호서식에 의한다						
[增盛 3]	1. 국민주택분양가격승								
구 분	구	성	<u>\$</u>	全	нJ				<u>II.</u>
가. 직접비	(2) 전축 (3) 부대 (가) : (나) (다) (라) (사) (나) (나) (나) (나) (나) (아) (아) (아)	소지비 조성비(재료비 및 ·공사비(재료비 및 공사비 전기공사비(재료비 급수위생공사비(재료비 난방공사비(재료비	노무비 및 노 ¹ 및 노 ¹ 및 노 ¹ 및 농열비) 무비) 노무비) 구비) 무비)	설등 별 시설에	가를 포함함 도로 임대 소요되는 : 제외한다.	또는 분%	냥할 수	있는
나. 간 접 비 2. 가임승인기	(나) (다) (라) (마) (바) (사)	합비 제세공과금 융자금에 대한 건 분할등기비 즉량비 광고로(선전비 포 이 윤 기타 일반관리비	제합비.	<u>율</u> 은 21퍼션	<u>[</u> 트 이장	로 합니			
•		주택가격의 15퍼센	트 이내	로 한다. 1	다만, 정부	의 대도시	인구분산	정책에	기여

하기 위한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임 대 로:다음 각호의 산춘기준에 의한다.

(1) 원 금:법인제법시행명 제49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물 및 설비의 내용년수에 따라 산출한 감가상자비의 상당액으로 한다.

(2) 이 자: 융자급의 이자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재 해 보 험 됴 :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보험료율에 의한다.

(4) 수선 유지비: 연간 주택가격(대지비를 제외한다)의 0.5퍼센트 이내로 한다.

(5) 대 손 충 당 급 : 연간 (1)내지 (4)의 합산금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크루트 그리	[별표 4]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기준
--------	--------	-------------------------

(是五 4)	<u> </u>	·백과 구역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기준	
구 분	시 설 종 류 등	기 준	11 그
1. 대 지	(1) 대지의 최소목(2) 대지의 가격	전축물이 있는 대지부분 단독 및 연립주택: 8미터 이상 아파트: 50미터 이상 평당가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와 2의 규정에 의하여 직용되는 토지의 최고등급 의 70에 해당하는 등급의 과세표준액 이하 다만, 대지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대지가격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2. 건축불	(1) 전축불의 배치	 (가) 건축물(아파트에 한한다)길이는 당해 건축물의 가장 가까운 기리에 있는 건축물(아파트에 한한다)까지의 거리의 4배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배치는 4면이 폐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아파트의 거실(거실의 채광이 북도등을 통하여야 될 경우에는 복도 등)에 면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그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은 그 높이에 상당하는 수평거리 이상을 아파트의 각 부분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j
	(2) 전學비	평당건축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 한다)는 매년 건설부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표준건축비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평 면	부엌 1실, 변소 1실(각 세대에 접하여야함)과 크기가 2미터×3미터 이상인 2개이상의 침실 및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두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속건축물의 면적(5) 벽체의 두계	주거용 이외의 부수되는 건축물의 면적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촌주택의 경우에는

구 분	시 설 종 튜 등	기 준	म] ज
	(6) 인접세대 사이의 북의 구조 의 북의 구조 (7) 지붕의 재료 (8) 지붕의 구조	방지동을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연접제 대와 차단하는 벽의 구조는 두께 30센티미 데 이상으로 하여 공간쌓기 하거나 흡음성 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방음조치를 하여 야 한다. 필스테이트나 함석을 사용할 수 없다. 단층의 경우에는 평지봉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나 일시적으 로 중록을 위하여 단층으로 하는 정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하지 아니핛다.
3. 기 타	(9) 조 경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그 공 지면적의 $\frac{1}{10}$ 이상에 최수등 조명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부대시설	 (1) 도 로 (2) 전 기 (3) 상하수도 (4) 통신시설 (5) 보안동 	(가) 단지에 진입하는 도로는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단지내의 길이 10미터를 조파하는 도로는 폭이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단지내의 길이 35미터를 조파하는 도로의 폭은 6미터 이상의어야 한다. (라) 단지내의 길이 100미터를 넘는 도로의 막다른 부분에는 자동차가 회원할 수있는 광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단지내의 길이 100미터 이상의 주간선도로의 변에는 폭 120센티미터 이상의 주간선도로의 변에는 폭 120센티미터 이상의 무간선도로의 변에는 폭 120센티미터 이상의보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사) 도로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또 강하여야 한다. (아) 차도와 보도의 경계는 나형으로 구획하고 보도의 포장은 보도블랙으로 하여야한다. 세대당 4KW/H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한다.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 직접한 것이어야한다. 공중전화를 300세대당 1대의 미율로 가설하여야한다. 다만, 전화가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교환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지면적 1,000평방미터마다 1개소의 미율로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	50세대 이상 집단으로

<u>구</u> 분 시	선 종	류 등	기 준	н] "Д.
	<u> </u> 무편함	 :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1개소를 설치하여	~ <u>~</u>
			야 한다. 다만, 500미터 이내에 우편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하지 아니하다.	
5. 복리시설 (1)	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	ት ላ) ወ)	4	
J. 447/18 (1)	기년이	置くしい	(가) 50세대 이상 집단으로 건설하고자 하 는 경우로서 100세대까지는 1세대당	
			3.3평방미터, 100세대를 초과할 때에는	
			330평방미터에 3세대당 3.3평방미터의	
			비율로 가산한다.	
			(나) 최소폭 : 12미터 이상, 1개소당 면적:	
			150명방미터 이상	
			(다) 거실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5미터 이	
			상 뛰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어린이 놀이터에는 그네, 미끄럼대,	·
			철봉 및 모래판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다음 자호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① 그 네 : 높이 2미터 이상으로 조당	
			3인용으로 설치하되, 200세대마다 1	
			조의 비율로 가산한다.	
			② 미끄럽대:높이 2미터 이상, 상계관	
			의 넓이 2평방미터 이상, 활주면의 넓	
			이 50센티미터 이상, 착지관의 길이 60	
ļ			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철 봉:대형, 중청 및 소형을 1조로	
			설치하되, 200세대마다 1조의 비율로	
			가산한다.	,
			④ 모래판 : 2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50	
			평방미터 이상의 모래관을 설치하고 20	
			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50평방미터에	
			100세대당 10평방미터를 가산한 면적	
			으로 하며, 모래판의 두께는 50센티미	
			터 이상으로 한다.]
(2)	집회소		1,0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1,000세대당 33	
			0평방미터의 비율로 옥내에 1개소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 1,000미터 이내에	
<u> </u>			학교 기타 공중이 집회할 시설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중목	보 당	욕탕시설이 없는 주택이 1,000세대 이상일	ļ
			경우에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00미터 이내에 공중목욕탕시설이	
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제육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되 시	
시	셑		설의 종류는 운동장(2,000평방미터 이상),	
			정구강(1,0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2면 이	

상), 수영장 또는 배구장(1,000세대 이상인 경우는 2 편 이상) 중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1,000미터 이내에 등등의 시설이 있는경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가) 시장 : 1,000대리 이상인 경우에 1 계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00미리 이내에 시장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나) 상가 (수퍼마렐 및 점포를 포함한다)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1계소를 설치하 되(다만, 인근 1,000미리 이내에 시장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6) 텔레비존공정시 물등주액에 한하여 동법로 텔레비존공정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물구거시일 아파트에 한하여 백세대마다, 다스트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의료시설 1,000세대 이상인 경우에 병원(의원을 포함한다), 아구등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00미리 이내에 의료시설이 있는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별로 5] 주택자제생산업대원세부가준 편	구 분	시 설 종 류 등	기	*	H]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1개호를 설치하 되(다만, 인근 1,000미리 이내에 시강 또 는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건축연던적은 660평방미리를 초파 할 수 없다. 정공주택에 한하여 동별로 텔레비존공청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물수거시설 이파트에 한하여 당면도 텔레비존공청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외로시설 1,000세대 이상인 경우에 병원(의원을 포함 한다), 약국 등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00미터 이내에 외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포 5] 주택자재생산업면의세부기준 면 위 세 부 기 준 시 설 별 세 부 기 중 전로소성제품(벽돌볼목) 가. 배함 및 토련시설 (1) 분세기: 1대 이상 (2) 혼합기(토련기): 1대 이상 (4) 절단기: 1대 이상 (4) 절단기: 1대 이상 (4) 절단기: 1대 이상 (4) 절단기: 1대 이상 (5) 문백아: 1대 이상 (5) 문백아: 1대 이상 나. 소성시설 타일술(길이 40미터 이상) 또는 용요(輸際) (문 이상): 1개소 이상 다. 기타 필요시설 (1) 대 지: 6,600평망미터 이상		(5) 시장 등	경우는 2면 이상) 다만, 1,000미터 이 는 경우에는 그러하 (가) 시 장:1,000 개소를 설치하여이 다만, 1,000미터 이 있는 경우에는	중 1 이상으로 한다. 내에 동종의 시설이 있지 아니한다. 세대 이상인 경우에 1 한다. 이내에 시장 또는 상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종 발 전 허 세 부 기 준 면 허 세 부 기 준 기 준 지도소성제품(벽돌블록) 가, 배합 및 토련시설 (1) 분쇄기: I 대 이상 (2) 흔합기(토련기): 1 대 이상 (3) 성형기: 1 대 이상 (4) 절단기: 1 대 이상 (5) 콘배아: 1 대 이상 (5) 콘배아: 1 대 이상 다, 소성시설 터널솥(길이 40미터 이상) 또는 윤요(輪霧) (문 이상): 1개소 이상 다, 기타 필요시설 (1) 대 지:6,600평방미터 이상		설 (7) 오물수거시설	500세대 이상일 경되(다만, 인근 1, (는 상가가 있는 경하다) 건축연면적할 수 없다. 공동주백에 한하여 한 실을 설치하여야 한 아파트에 한하여 매를 설치하여야 한다. 1,000세대 이상인 경한다), 약국 등 1개 나만, 1,000미터 이	우에 1개소를 설치하 200미터 이내에 시강 또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은 660평방미터를 초과 동별로 텔레비존공청시 다. 세대마다, 다스트 슈트 우애 병원(의원을 포함 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에 의료시설이 있는	
선 종 별 시 설 별 세 부 기 준 전투소성제품(벽돌블록) 가. 배합 및 토련시설 (1) 분쇄기: I 대 이상 (2) 흔합기(토련기): 1 대 이상 (3) 성형기: 1 대 이상 (4) 절단기: 1 대 이상 (5) 콘배아: 1 대 이상 (5) 콘배아: 1 대 이상 터널숱(길이 40미터 이상) 또는 윤요(輸業) (문 이상): 1 개소 이상 다. 기타 필요시설 (1) 대 지:6,600평방미터 이상	〔增巫 5〕				z.
점토소성제품(벽돌블록) 가. 배합 및 토련시설 (1) 분쇄기: I 대 이상 (2) 흔합기(토련기): 1 대 이상 (3) 성형기: 1 대 이상 (4) 절단기: I 대 이상 (5) 콘배아: 1 대 이상 다. 소성시설 터널솥(길이 40미터 이상) 또는 윤요(輸業)(문 이상): 1 개소 이상 다. 기타 필요시설 (1) 대 지:6,600평방미터 이상	업 종			-	
문 이상): 1개소 이상 다. 기타 필요시설 (1) 대 지:6,600평방미터 이상				 (1) 분쇄기 : I 대 이성 (2) 흔합기(토련기): (3) 성형기 : I 대 이성 (4) 절단기 : I 대 이성 	} 1대 이상 } }
필요한 시설				문 이상): 1개소 이상 (1) 대 지:6,600평년 (2) 콘베아, 운반차량	} }미터 이상
시벤트가공제품(벽돌, 불 가. 배합 및 혼련시설 유압기 또는 진동기: 1대 이상 다만, 시멘트, 기와 생산업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양생시설 증기양생실 33평방미터 이상(유압기 또는 진동기 5대 중가마다 33평방미터 증가) 또는		산업		다만, 시멘트, 기와 신 니하다. 증기양생실 33평방미터	생산업체는 그러하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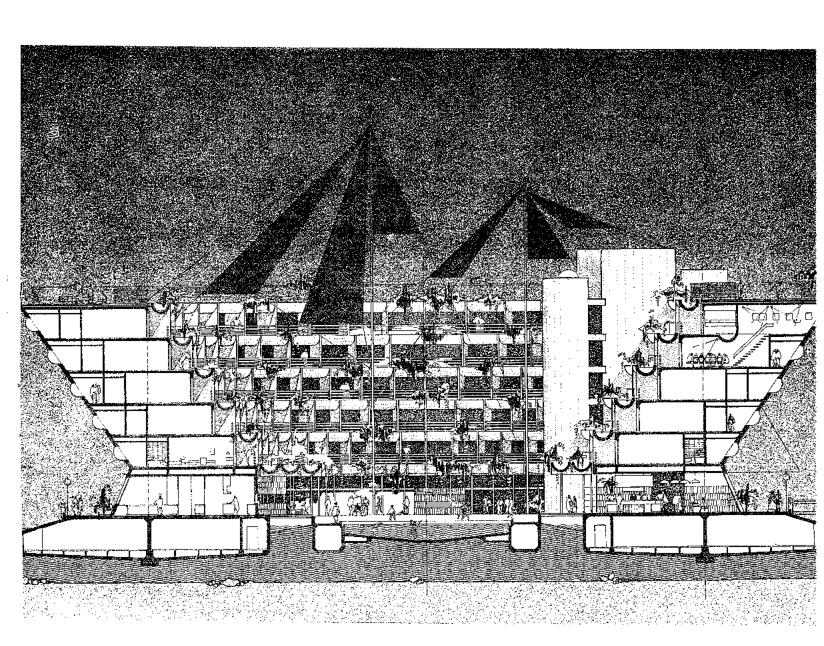
oi 종 별	면	세 부 기 준
ਮ ਹ ਦ	시 설 별	세 부 기 준
	다. 기타 필요시설	수증양생실 66평방미터 이상(유압기 또는 진동기 1대 증가마다 33평방미터 증가) 대 지:990평방미터 이상 유압기 또는 진동기 1대 증가마다 990평방미터 증가 다만, 시맨트기와 생산업체는 660평방미터 이상
P.C판 생산업	가. 콘크리트제조 및 생산장치 나. 반송시설 다. 증기양생시설 라, 기타 필요시설	(1)
랑호제품(창파 창틀, 문 과 문를 생산업) 1. 목재창호	가 전조시설 나 절단 및 가공시설 다, 기타시설	증가건조실 66평방미터 이상 (1) 절단기 1대 이상 (2) 전구조립기 1대 이상 (3) 자동대괘기 1대 이상 (4) 끌기계 1대 이상 (1) 대지 990평방미터 이상 (2) 보일리 1대 이상
2. 콘크리트창호	가. 건조 및 양생시설 나 배합 및 훈련시설 다. 가공 및 조립시설 라. 기타시설	 (1) 보일러 1대 이상 (2) 수증양생실 66명방미터 이상 (3) 증기양생실 33명방미터 이상 (1) 믹사 1대 이상 (2) 형물 1식 (3) 진동기 1대 이상 철공가공설비 1식 (1) 대지 1,500평방미터 이상 (2) 시험실 20평방미터 이상 (3) 강도시험기 1식
3. 알투미늄창호	가 절단시설 나. 가공시설 다. 기타시설	 (1) 절단기 1대 이상 (2) 톱 1식 (1) 드릴 1식 (2) 줄 1식 대지 333평방미터 이상

[閏丑 6)	주택용자자	비의 품질 및 규칙	uszum agus pengumajak Salah 199 0a bi Alah Silah Akhhidaka biran salah Salah	/MAATAMIYAGI 64°A)\-Takaracadecaala.coo.coo.crt as <u>seed</u> (he <mark>efel/200</mark> 0
품명] 市			격	품 킬
소성벽돌					
	子 是	길 이	<u>폭</u>	년위:미리미터) 두 깨	(1) 압축강도 (100키로그람/
	표 준 형	190	90	57	등당센티미터 이삿)
	허 용 최	±3	±3	±4	(2) 흡수율 23퍼센트 이하 (1) 압축강도
					(단위:키로그람/ 평방센티미터)
소성블록	(1) 외 부				18 10 18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7 4		(단	위 : 미리미터)	중중불록
	구 분	길 이	<u>75.</u> 0	두 깨	기본 횡급 볼록 기본 용별 볼록
	표 준 형 150	290	150	90	보기 <u>문</u>
	100	290	100	90	100 60 이상 이상
	<u>허용치</u> (2) 대 부(속빈 그	土4	<u>±4</u>	<u>+4</u>	
	구 분			횡근용 불목(평 근율 삽입하는 숙빈 부분의 최 소지름)	(2) 흡수울 16피센트 이상
		단 면 적 (평방센티미터)	최 소 폭 (센티미터)		
	두께 100미리미터 이상의 블록	30 이상	5 이상	<u>(센티미터)</u> 5 이상	
	- R 150미리미터 이상의 블록	60 이상	7 이상	6 이상	
P.C 판 판 개 및 상판	주택의 형, 규모 및 허용치는 다음과 같		업자가 정하되 그	1 생산품의 치수	압축강도 210킬로그함/성망 센타미터
	구 분	허 <u>벽 판 스리브</u> 픾	(단 용 치 : <u>지 등 판</u> 계)	위:미리미터) 거 푸 집 한 판	
	단의 길이	±5 ±6		±5 ±3	
	판의 두께 접합용 /판길이방향	±3 ±3		<u></u> 1	Ī
	교레이 (두께상단	±3	••• ••••••••••••••••••••••••••••••••••	——————————————————————————————————————	and the second s
	트위치 방향하단	±3 ±3		±3 ±3	
	비 불 림	5 5	_		
	면의 ഥ 리	6 6		·	
	힅 대각선의 길이차	5 6 10 10			T. T

품 명	77-			7.	4	품 질
시덴트 벽 돌	규 본 표 준 형 허 용 치	길 이 190 +3	\	(단위:미리 투 90 • +3	미타) 제 57 +3	압축강도 50키르그람/평방 센티미터 이상
시 멘 트 분 록	(1) 외 부	-2		-2 (단위:미리	-2	압축강도
	II &	질 이	<u>L</u>	이 두	께.	11개3도 40키로그람/평망 센티미터 이상
	표 준 형	390 390 390		190 190 190	190 150 100	
	강 려 형	290 290 290		190 190 190	190 150 100	
	허 용 치 (2) 내 부(숙변 부분 구 분	±2	E H 3	±3	±2	
		기본블록 그 (종군을 삽 (입하는 속 역 빈 부분) 명	항근용불록 성 항근을 산 0	최 소 쌓은후 외부 : 게 나타나 - 는 부분(미 : 라미터)	기타의 . 부분 (미 리미터)	
	두께 150미리미터 이 상의 블록 두깨 100미리미터 이 상의 블록	60이 7이 상 상	6 이상 5 이상	25 이상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
시멘 <u>트</u> 기 와	→ 규 져 구 분	길 이	푹 -	(단위 : 미 두	리미터) 께	1. 휨 파괴하중 80키로그람 이상
	<u>표</u> 준 형 허 용 치	340 ±3		300 ±3	15 +3-1	2. 흡수율 12퍼 센트 이하
복재창호.	(1) 창 틀 녀 수 허			(단위:미 수 허 용	께	함수율 15퍼센트 이하
	117 207 ※치수는 공칭지수로	+3 -1 +5 -1 서 대패길 후 가-	4	42 42 남다.	+2-1 +2-1	
	(2) 문 틀		<u></u>	(단위 : 미 	께	함수울 15퍼센트 이하
	<u>치</u> 수 최. 87 147 ※지수는 공칭치수로	+3 -1 +3 -1	4	수 허 용 42 42 다.	+2 -1 +2 -1	

품 명	ਜ	2	품 질
	(3) 울거미	(단위 : 미리미터) 함수율 15퍼센트
	두 께 치 수 폭과 높이의 형	l용치 대변의 치수 2	<u>}</u> 이하
	30 또는 33	±2 2 0]*	4
	두꼐치수는 공칭 치수로서 대패결	후 가능치수를 말한다.	
	(4) 후라쉬문	(단위 : 미리미터) ○함수율 15퍼센
	두 게	두께의 허용치	_ 트이하 문의 휨
	33, 36, 39	±0,6	강도 I50킬로그
	높이나비의 허용치	<u>±2</u>	_ 웹/핑방센티미
	대변의 안목치수의 차 : 2 미리미터	이상	터 이상
콘크리트	(1) 창 	(단위:미리미터) 압축강도
	녀 비	두 7	게 210킬로그램/평
	치 수허 용 치	치 수 허 용	지 방센티미터 이상
		42(선률상하툴) +2-	1
	220 "	· • · · · · · · · · · · · · · · · ·	"
	※치수는 공칭 치수로서 가공치수를	- 말한다.	
	(2) 문 률	6.1.D 1.0.1.D	압축강도 210킬로
		(단위:미리미터)	그램/평방센티미 티 이상
	ㅂ	두 께	-
	<u>치 수 허 용 치</u>		친
	150 +3-2	42(선들상하틀) +2-	·1
	※치수는 공칭치수로서 가공치수를	말한다.	
알루미늄	구 분	1	중앙의 최대처짐은 스
장 호	1	,]의 70분의 1 이하
	대변의 안목치수의 차:2미리 미터 이하		창문틀짝의 주재료는 SD 6759의 5종을 사용
1	10,010] 3	창문 툴짝의 보조재료
		3	= KSD 6711의 1-4종을 -용하고 KSD 6701은 3
			등으로 사용
[H T 7]	· 포즈사케트시키시키즈	(13) 기초들도(1/100)	
1) <u>포준설계도서작성기준</u> _서 작성내용	(14) 주단면상제도(1/2	0)
	-^^ 구경세공 : 과격:청사진—중관	(15) 전기배선도(1/100	
	티미터×45센티미터)	(16) 급수위생도(1/100	
나, 도면	-	(17) 세부상세도(1/100 (18) 시방서)
(1)	班 지 목 차		
	표준실계도서의 내용 및 특징	2.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지역실정에 맞는 자자	1이 구조
	일내마감표	, T = 1 = 1	1-1 1
	품및 재료총꽐표(노임 및 자재별로 분 ⁻ 주택형별 실별 평수현황	(1) 규격화된 창 및 문	듶 사용
	두의명을 글릴 경기 교정 투시도	(2) 시멘트벽돌, 블록,	기와, 소성벽돌, 블록의
(8)	평면도(1/50)	규격품 사용	
	입면도(1/100)	다. 열관리구조	
	천장툴도(1/100) 바닥툴도(1/100)	(1) 이중창, 이중벽(2) 천장에 보온처리	
•	가역 등도(1/100) 자붕들도(1/100)	(3) 개량 온돌 사용	
l			

海外作品



星状形 휴양호텔

건축가 H.W. Fuss. Bergen-Enkheim 등산객들에 맞추어 저은 독일의 많은 휴양 호텔중의 하나를 여기에 소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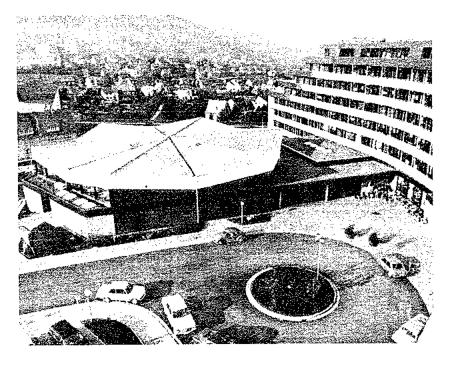
이 계획 안은 자연 풍경과 이미 현존하는 조그만 마을에 1200 침질의 135,000m³ 부피 외 빌딩을 조화시키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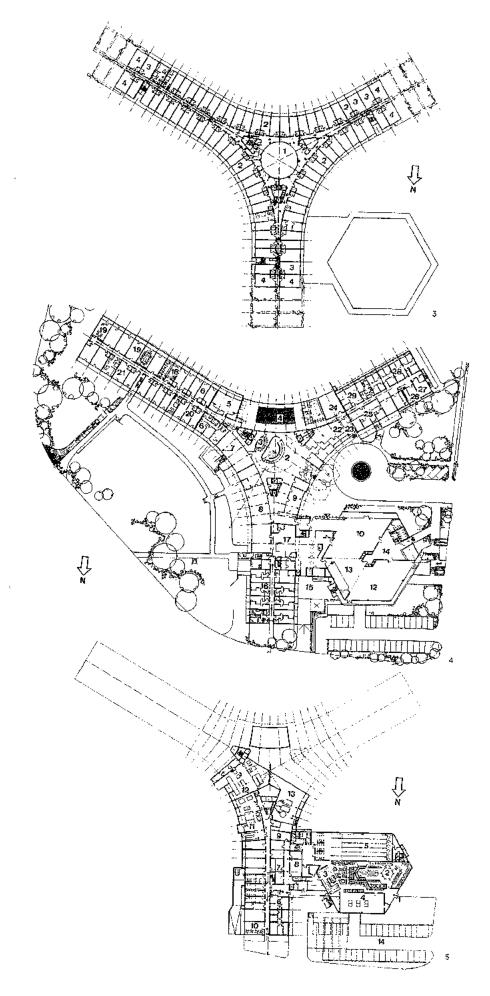
30층의 마천루는 이곳에 안 어울리고星狀 形의 6층 빌딩을 짓기로 하였다.

여행객이 90% 차지하게 되는 519개 아파 트들은 다음의 면적이 필요 하다.

관리를 위해 130m², 라운지로 1600m², 수영풀과 의료시설을 위해 1200m², 상점用으로 300m²바ー아 등의 오락, 스포츠시설로 14 00m², 회의실, 레스토랑, 카페로 1500m², 주방과 저장고를 위해 1,000m², 기계설비로 20 00m².

- 1. 주위의 항공 사진
- 2. 회의실 홀과 북쪽면
- 3. 6층
- 4. 바닥층
- 5. 지하실







20층의 大都市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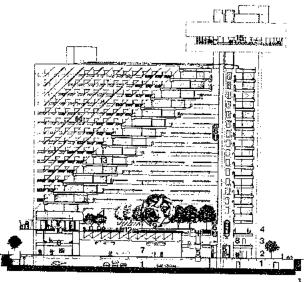
건축: John Portman, Associates Atlanta. U,S,A. 1. 북쪽과 항구에 마주한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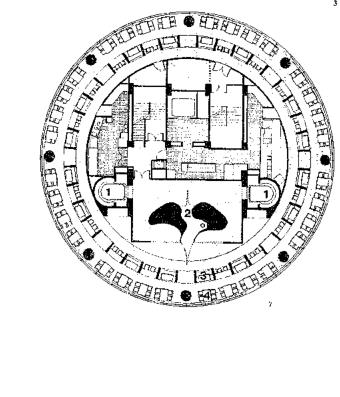
커다란 中壁은 산보할 수 있는 테라스 로 형성되었다. 뒷면에는 Equinox라는 파노라 마식 레스토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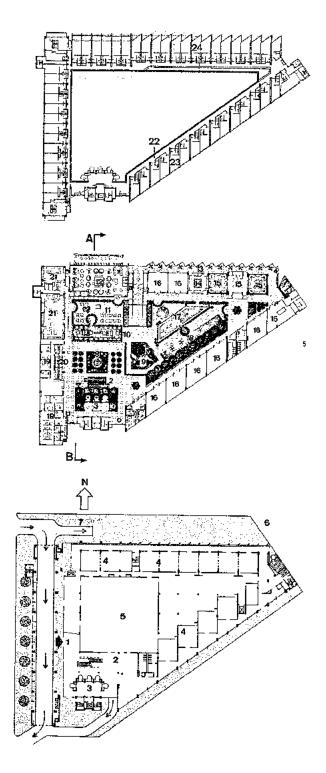
새로운 회사 건물인 동시 은행 건물인 E mbarcadeso centr가 새로운 Hyatt Reg ency 호텔과 함께 센프라시스코만 해변에 . 세워졌다.

그 쑥 뛰어나온 대시는 특별한 건축적 해 결을 요구했다. 흔히 보인 정방형 마천루 호 텔과는 대조적으로 이 건물은 20층의데라스 호텔이며 동시에 거대한 조개껍질 모양율하 고 있다. 거의 모든 방에는 灣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발표니가 있다.

거대한 18층의 中庭홀의 테라스 설계는 제 네바의 Wrold Health Center의 설계의 유사 하나, 中庭은 공직이든 사석인 경우이든 간에 알맞는 거대한 공간이며 도시중심 호텔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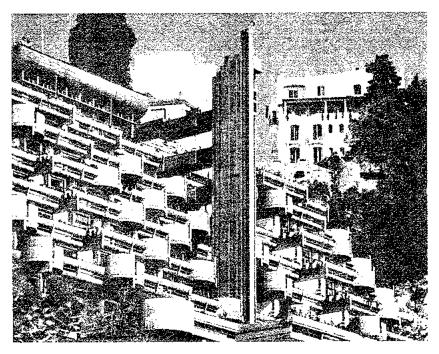
지하실에는 차고가 있다. 이위 지상층 에는 2층의 무도실과 회외실이 있고 中二層에는 더 많은 회외실이 있고 에스카레이터, 6.종류의 카페와 전문 레스토랑이 있는 커다란 中庭홀이 있다.

그 中庭 주위에는 상점과 항구를 내려다 볼 볼 수 있는 파라노마식의 레스토랑이 있다. 20층에도 샌프란시스코 전 도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파노라마식의 레스토랑이 있다.

풍정 홀의 크기 : 길어 : 91m

폭 : 43m 높이 : 43m 공사비 : 4,250만분.

- 2. 호텔 내부의 中庭
- 3. 북남축 단면도
- 4. 5층(이층에서부터 객실이 있다.)
- 5. 中庭을 가진 4층
- 6. 中庭에 있는 지상층
- 7. Equinox 레스토랑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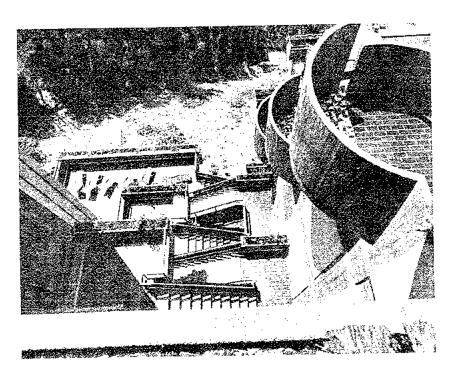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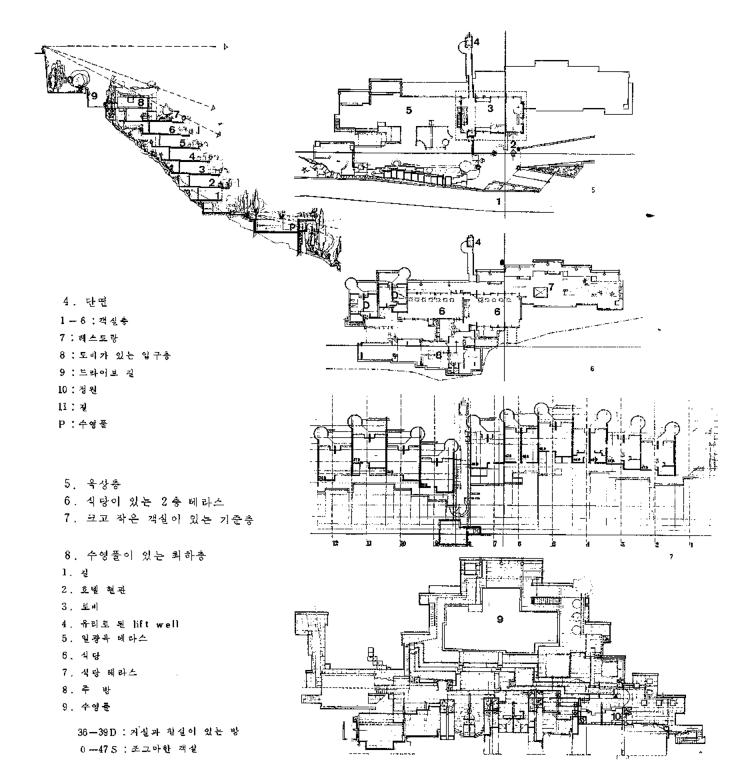


해변가 절벽위의 휴양호텔

건축: Alberto Gatti & Diambra Gatti-de Sanct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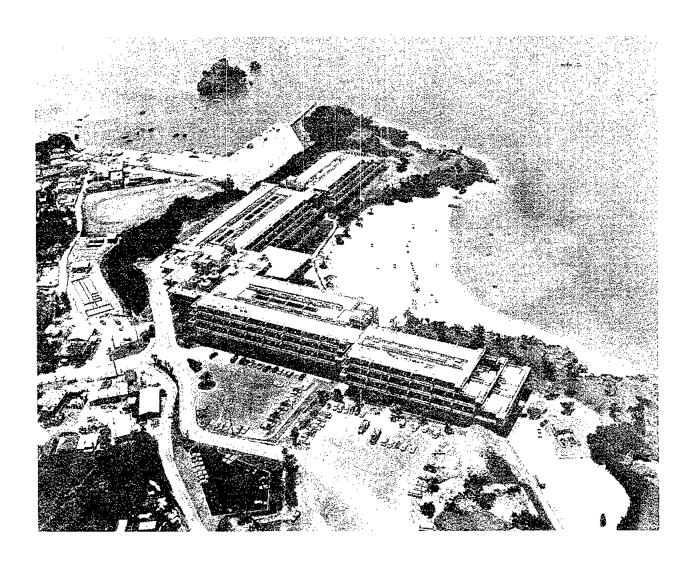
- 1. 절벽위의 호벤전경
- 2. 다른총과 연결되는 파노라마식의 넓은 계단.
- 호텔 옥상의 드라이브 길에서 본 광경.
 꼭대기층의 호텔 현관과 로비 '







- 9. 올려진 기둥과 발코니가 날카로운 윤곽 윤 지닌 건물로 만들어 준다.
- 둥근 발코니, 수영풀과 해변이 내려다보인다.
- 11. 객실이 두개의 전형적인 형태S : 목욕실과 테라스가 있는 조그마한 방.
 - D : 조그마한 현관, 목욕탕, 그럴듯한 테라스가 있고 미닫이 문으로 분리된 침실과 거실이 있는 아파트.
 - 1, 현관
 - 2. 침실
 - 3. 목욕탕
 - 5. 바아
 - 6. 벤치
 - 7. 테라스 벤치
 - 8. 바다로 향한 구멍
 - 9. 책징
 - 10. 책장
 - 11. 안락 의자
 - 12. 찬장
 - 13. 賽
 - 14. 일광육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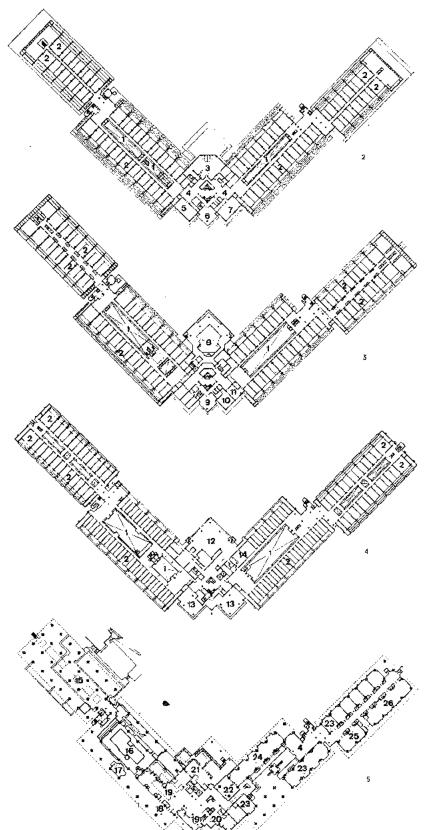


바닷가의 L形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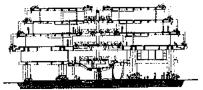
Okinawa-Onna-Mura Hotel Moon Beach.

전축: Koichiro Kuniba, Yukihusa Kuniba, Morihide Kan^bayashi, Naoki Tsuk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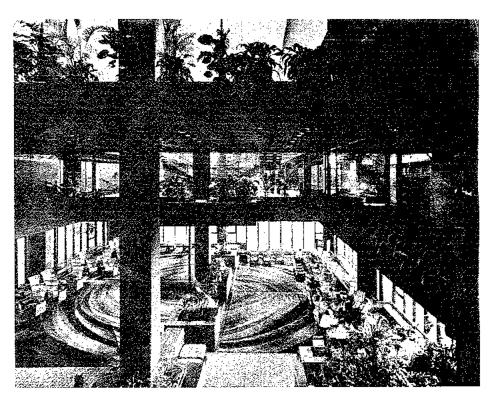
 항공사진 : 오른쪽은 북쪽면, 왼쪽은 남 쪽면



- 2. 4층 평면도
- 3. 3층 평면도
- 4. 2층 평면도
- 5. 지상층
 - 1. 다충홀들의 공간
 - 2. 객실
 - 3. 클럽
 - 4. 상부휼
 - 5, 서양식 연회장
 - 6. 소 연회장
 - 7. 일식 연화장
 - 8. 극장 식당 위의 공간
 - 9. 레스토랑
 - 10. 라운지
 - 11. 희의실
 - 11. 무대가 있는 극장식당
 - 13. 레스토랑
 - 14. 라ー아
 - 15. Piling야 있는 지상총
 - 16. 수영물
 - 17. 미·이용소
 - 18. 호텔 입구
 - 19. 접수대가 있는 넓은 훌
 - 20. 카 페
 - 21. 테라스 카페
 - 22. 주방
 - 23. 상점
 - 24. 카프테리아
 - 25. 오락실
 - 26. 레코드 상점



6. 북서쪽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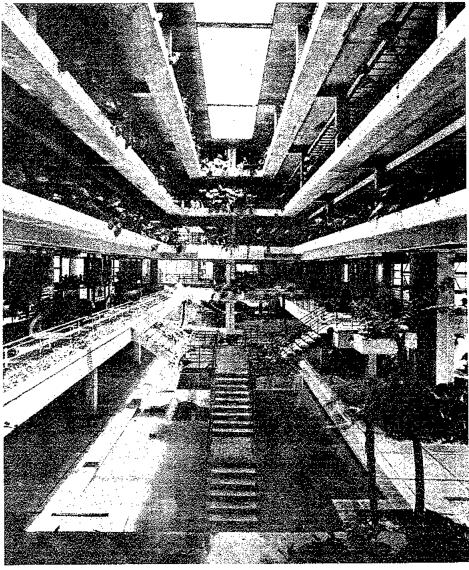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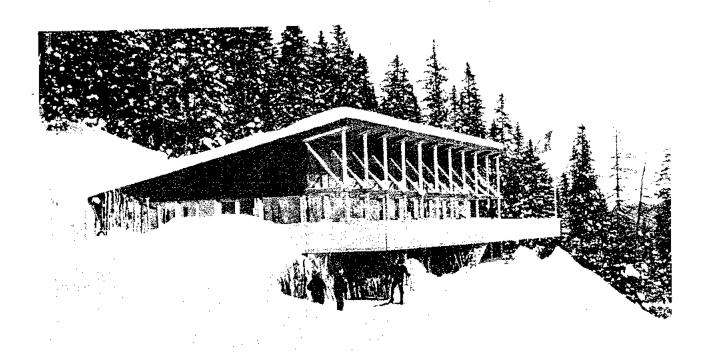
Okinawa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바닷가에 일급 관광호텔이 세워졌다. 여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이다.

그 호텔의 중심부분에는 대단히 큰로비가 있으며 다층의 홀이 있다. 복도로 둘러싸인 이 홀들중 하나에는 수영풀이 있고 다른 하 나에는 풍치를 돋우어주는 풀이 있다. 일련 의 객실을 포함한 2층은 이 건물의 중심인 지상층으로 부터 여러개의 계단들로 연결되 었다.

테라스를 거니는 사람들은 꽃으로 장식된 북도 난간을 올려다 볼 수 있다. 그 건물의 중간에는 바다로 면한 무대있는 레스토랑이 있다. 두개의 연회실과 객실들도 서양식 으로 꾸며진 것도 있고 일본식으로 꾸며진 것 이 있다.

- 7. 2층에서 본 입구 홀
- 8. 객실로 가는 복도와 풍치를 돌우는 풍치는 풀장으로 가는 북서면 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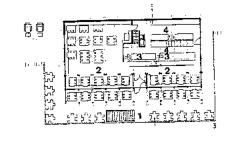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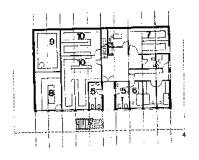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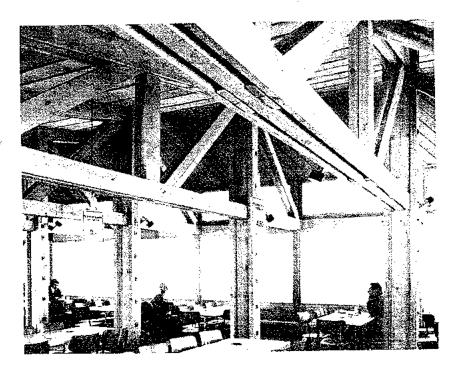
산에있는 스포츠 레스토랑

전축: Walter Schlegel, Trübbach CH Mitarbeiter David Eggenberger.

- 1. 전체 광경
- 2. 레스토랑
- 3. 레스토랑충
- 4. 지하실







- 1. 테라스
- 2. 레스토랑
- 3. Self-service 카운터
- 4. 주 방
- 5. W. C
- 6. 임원질
- 7. 장 고
- 8. 기구, 장비실
- 9. 오일 탱크
- 10. 휴대품 보판실

建築法 質疑応答(5) 建設部建築課

解説:韓 奎 峯

48. 用途変更과 駐車場의 設置

(質疑要旨)

適法하게 建築許可를 받아 建築한 既存建築物에 駐車場 이 없을때 法 第22條의 2의 規定에 関係없이 用途変更을 할 수 있는가?

(質疑者:大韓建築士協會)

(回信内容)

建築444.1~17051(76. 8.24)

令 第22條의 駐車場設置基準에 不適合한 既存 建築物이 建築当時의 法令에 適合하게 建築된것이고 令 第 142條의 規定에 依한 当該 地域의 建築制限에 適合한 建築物로 用 途変更을 하는 경우로서 令 第22條 第1項에 該当하는 建 築物 相互間의 用途変更・同 第2号에 該当하는 建築物相 互間의 用途変更 및 第1項에 該当하는 既存建築物을 同 第2項에 該当하는 建築物로 用途変更할 때에는 駐車場을 設置하지 아니하여도 用途変更이 可能함 —끝—

(解 説)

法 第48條에서 "用途変更"을 "建築"으로 規定하고 있으나 이는 令 第142條(用途制限)의 規定에 適合한 用途로使用하려 하는가를 책크하기 為하여 許可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商業地域에서 駐車場의 設置義務規定이 없을 当時에 建築한 캬바레를 展示場으로 用途変更하고자 할 때에는 駐車場의 設置를 義務化할 수 는 없다. 이는 駐車場의 需要가 類似한 建築物 끼리는 用途変更許可의 前後 어느쪽이는 "駐車場이 없는 状態"나 "駐車場의 需要"가 같기 때문인 것이다.

令 第22條 第1, 2項에는 駐車場의 需要가 類似한 建築物을 分離하여 各項에 게기하였다. 그럼으로 同 第2項에 該当하는 建築物을 第1項에 該当하는 建築物로 用途変更할 때에는 駐車場의 需要가 많은 建築物로 使用 하려는 것임으로 숙 第22條의 規定에 依據 주차장을 設置하여야 한다.

49. 都市計劃施設로 決定된 区域에서의 建築 (質疑要旨)

商業地域에서 停留場地区로 決定 告示된 区域内에 있는 4個의 垈地中 3個의 垈地는 이미 高速뻐스 터미날로使用되고 있으며 残余 1個垈地가 空垈地로 있을때 이 垈地에 商業地域의 用途制限에 適合한 建築物을 建築할 수 있는가?

(質疑者:大韓建築士協会)

(回信内容)

建築444.1~16628(76. 8. 7)

貴問의 空垈地가 이미 都市計劃上 停留場施設로 決定된 区域에 包含된다면 当該 停留場施設에 適合하지 아니 한 建築物의 建築 또는 用途変更하는 것은 不可함. —끝—

50. 增築面積과 工事監理

(質疑要旨)

既存建築物을 平面으로 增築할 때 增築部分의 延面積은 工事監理의 対象이 되지 아니하나 既存의 部分과 습하면 그 延面積이 工事監理対象이 될때 이 建築物은 令第7條 의 規定에 依한 工事監理対象이 되는가?

(質疑者:大韓建築士協会)

(回信内容)

建築444.1~16628(76, 8, 7)

既存建築物에 붙여 增築하는 部分의 面積이 工事監理対象面積 以下인 建築物은 숙 第7條의 規定에 依한 工事監理対象 建築物이 아님. —————

(解説

工事監理는 構造의 安全上의 重要性과 違法建築의 防止

를 目的으로 그 対象範囲를 定하고 있다.

그럼으로 回信內容과 같이 既存建築物에 붙여서 平面으로 增築하는 경우는 既存建築物의 構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함으로 既存面積과 습한 面積에 依하지 아니하나 垂直으로 增築하거나 令 第167條 第2項 但書의 規定을 適用하여 建築할 때에는 既存 또는 隣接垈地上의 建築物의 面積을 습한 面積을 基準으로 監理対象 如否是决定해야 할 것이다.

※ 一般的으로 보아 숙 第167條 第2項 但書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는 外観上 및 構造的으로 하나의 建築物 이다.

51. 工業地域內에서의 教會建築

(質疑要旨)

都市計劃区域內의 工業地域에서는 建築法 施行令 第142條 "別表 6" 第 9 項의 規定에 依據 宗教用建築物은 建築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都市計劃法 第16條 및 第25條 의 規定에 依據 一団의 工業用地造成事業으로 造成된 工場의 垈地內에 同会社에 근무하는 중업원의 福祉 施設인教會를 建築할 수 있는가?

(質疑者:全羅南道)

(回信内容)

建築444.1~16223(76. 8. 11)

令 第142條 "別表 6" 第 9 項에 宗教用建築物은 工業地域內에 建築할 수 없다고 規定하고 있으나 이는 工場地帯의 公害가 大衆이 集結하는 教會等의 宗教用 宗教集會場에 주는 被害를 防止하려는 취지인바 貴質疑上의 教會가 工場이 있는 同一垈地內에 從業員만을 為한 宗教集會場으로서의 工場附属建築物이라면 그 建築이 可能한 것임.

52. 街角剪除의 例外

(質疑要旨)

丘陵地를 開発하여 宅地化한 垈地로서 令 第140條의 2 의 規定에 依據 가로 모퉁이 部分에 建築線을 指定 하여 야할 垈地가 가로 모퉁이 部分에 階段이 있을때 街角剪除 를 하여야 하는가?

(質疑者: 大韓建築士協会)

(回信内容)

建築444.1~16222(76. 8.11)

令 第140條의 2의 規定에 依據 道路의 모퉁이 部分에 建築線을 定하여 街角剪除를 하여야 하는 垈地라 하드라 도 道路 모퉁이 部分에 車輛通行이 不可能한 階段等의 施 設이 있을 때에는 同 第140條의 2의 規定에 依한 建築線 에 関係없이 建築할 수 있는것임.

(解 説)

令 第140條의 2에서 回信內容과 같이 例外規定을 定하고 있지않으나 質疑와 같은 경우의 垈地는 街角朝除를 하

드라도 自動車의 円滑한 소통을 為한 同規定의 취지에는 無関한 것임으로 街角剪除를 하여야 할 바로 그 位置에 自 動車 通行이 不可能한 階段等의 施設物이 있을 때에는 例 外로 한 것이다.

53. 土地의 形質変工事 施工中의 建築許可 (質疑要旨)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依據 上地의 形質変更 許 可量 받아 施工中에 있는 垈地에 同 工事를 竣工하기 前 에 建築許可를 받을 수 있는가?

(質疑者:建築主)

(回信内容)

建築125~15946(76. 8. 9)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依據 土地의 形質変更 許可를 받아 施工中인 土地라면 土地의 形質変更許可의 建築許可를 同時에 할 수 있도록 建築法施行規則 第1條 에 規定하고 있으므로 土地의 形質変更이 竣工되기 前에 建築許可를 받을 수 있습니다.

54. 開設되지 아니한 都市計劃道路에만 接한 垈地 (質疑要旨)

開設되지 아니한 都市計劃道路에 接해 있으나 通路 가 없을때에도 이 垈地에 建築許可를 받을 수 있는가?

(質疑者:建築主)

(回信内容)

建築125~16554(76. 8.16)

貴問의 垈地여 接한 道路가 都市計劃으로 決定 告示된 道路라 하드라도 建築法上 適法한 道路이나 都市計劃으로 決定 告示된 道路가 開設되기 前에 同垈地에 出入할 수있 는 通路가 없으면 建築할 수 없습니다. (끝)

55. 共同所有인 垈地에 各人의 所有署 区分하여 建築할때의 地下層 및 駐車場의 設置規定等

(質疑要旨)

- ① 2人 共同所有로 登記된 商業地域内에 있는 하나의 堂地에 2人이 共同建築主로 하나의 建築物을 建築 하는 경우 各人의 所有部分을 防火壁으로 区劃하여 区分하였을 때에도 두사람의 所有를 습한 延面積을 基準으로 駐車 場과 地下層을 設置하여야 하는가?
- ② 工場의 垈地内에서 警備用建築物에 事務室을 점하여 建築할 때에도 垈地境界線과 建築線에서 一定한 距離를 되 어야 하는가?
- ③ 令 第159條의 規定에 不適合한 垈地에 大統領令 第8090号(76. 4. 15)로 建築法 施行令이 改正 公布 되기前에 建築許可量 받아 施工中 垈地를 追加 確保하여 設計変更(増坪)을 하고져 할 때 可能한가?

(質疑者:建築主)

(回信内容)

建築125~16553(76. 8.16)

① 質疑 ①에 対하여

공유지분인 내지상에 2 人의 建築主가 共同建築主로 하나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 同建築物에 対하여 法 第22條의 2 (駐車場의 設置) 및 第22條의 3 (地下層의 設置) 의 規定이 適用되는 것이며

② 質疑 ②에 対하여

令 第168條의 2의 但書規定에 依據 工場의 警備用建築 物은 例外規定을 두고 있으나 貴質疑와 같이 事務室을 점 하는 警備用建築物은 例外 規定이 適用되지 아니합니다.

③ 質疑 ③에 처하여

(解 説)

令 第167條 第 2 項 但書의 規定을 適用하여 建築할 때에는 防火壁으로 区劃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各各의 垈地를 適法한 垈地로 보는것임으로 外観上 하나의 建築物이라는 点에 関係없이 各 垈地上의 建築物을 単位로 그 延面積에 따라 駐車場 및 地下層의 設置規定을 適用하는 것이지만

質疑內容 ①과 같은 경우에는 外観上으로는 勿論 이고 機能上으로도 하나의 建築物을 하나의 垈地에 建築하는 것임으로 建物을 所有別로 区分하였다 하드라도 建築物 全体의 延面積에 따라 수 第22條 및 第113條에 適法한駐 車場과 地下層을 設置하여야 한다.

56. 街角剪除를 하여야 할 垈地上에 施工 中인 建築物의 地下層設置를 為한 設計変更 許可

(實疑要旨)

令 第140條의 2의 規定에 依하여 道路의 모퉁이 部分에 建築線을 指定하여 街角剪除를 하여야하는 垈地이 나 76. 4. 15. 建築法施行令이 改正 公布되기 前에 建築許可量 받아 施工中인 建築物에 地下層을 設置하기 為하여 設計変更을 하고자 할때 이미 施工된 部分을 撤去하여 街角剪除를 하지아니하여도 地下層設置를 為한 設計 変更許可를 받을 수 있는가?

(質疑者:建築主)

(回信内容)

建築125~16638(76. 8. 17)

改正 公布되기 前에 建築許可를 받아 施工中인 建築物에 地下層設置을 為한 設計変更을 하려는 경우 地下層의 높 이 · 처마높이 · 建築面積等의 変更없이 地下層만을 設置 한다면 設計変更이 可能합니다. (끝)

57. 막다른 道路와 垈地안의 通路

(質疑要旨)

그림과 같이 A垈地에 建築하고자 할때 B垈地의 通路 가 1 m에 不過한 경우라면 이 通路의 中心線에서 一定한 距離를 후퇴하여 建築하여야 하는가?

166 (C) 436-62(A) 436-172 (B) (實疑者:建築主) (回信内容)

建築125-17262(76. 8.26)~

貴質疑上의 垈地 "B"는 道路에 2 m以上 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法 第27條 第1項의 規定에 依據 建築할수없는 垈地이며,同"B"垈地로 通하는 通路가 垈地의 一部라면 이는 建築法施行令 第111條의 規定을 適用하여야하는 垈地안의 通路인바 "A"垈地에 建築할 때 同通路의中心線에서 通路所要幅의 1/2에 相当하는 距離를 후퇴할 義務가 없는것이며 "B"垈地의 所有者가 適法한 幅의 通路를 確保하여야 합니다.(끝)

(解 説)

(끝)

堡地안의 通路는 法 第 2 條 第15号의 規定에 依한 道路 가 아니며 따라서 道路로서 숙 第138條의 規定을 適用하 는 것이 아니라 通路의 길이가 10m以上일 때에는 同第13 8條에서 定하는 막다른 道路의 幅과 같은 너비의 通路를 確保하도록 숙 第111條에서 準用規定으로 定하고 있다.

그럼으로 "B" 垈地의 所有者 個人을 為하여 "A" 垈地의 所有者가 희생할 수 없는것이며 "B" 垈地의 所有者가"A" 또는 "C" 垈地의 所有者로 부터 通路에 必要한 面積을 賈 入하거나 양도를 받아야 할것이다.

"B" 生地와 같은 모양의 垈地를 所有한 者가 "A" 또는 "C"로 부터 땅을 뺏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予 想되기도 하나 建築法은 公道로 自己의 땅을 提供 하도록 規定하고 있을 뿐이지 — 個人을 為하여 自己의 땅을 提 供토록 強要하는 것이 아님을 分明히 하고 싶다.

58. 工事監理의 責任限界

(實疑要旨)

※ 質疑한 內容에 関係없이 回信內容을 中心으로 質疑 要旨를 作成하였음.

- ① 建築主가 工事監理者에게 工事着工日時를 通報하지 아니하고 着工하여 許可事項대로 施工하지 아니 하였을때 工事監理者가 責任을 져야 하는가?
- ② 工事監理 途中 監理者에게 不得己한 事由가 있어 工事監理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에 違反事項이 発生된 경우에도 監理者에게 責任이 있는가?

(質疑者: 建築士?)

(回信内容)

建築125~17313(76. 8. 26)

① 質疑 ①에 対하여

工事監理의 業務限界에 対하서 令 第2條 第3項에 規定하고 있는바 同業務에 関聯되는 工事가 始作되는 始点부터 工事監理에 임해야 할 것임으로 着工申告에 関係없이 工事着工의 如点부터 工事監理의 責任이 있으며 建築主가 工事監理者에게 着工日時를 通知하지 아니하고 着工하였을 때에는 建築主가 法 第55條의 規定에 规定에 의가처벌되어야 할 것임.

② 質疑 ②에 対하여

工事監理 途中 建築士에게 不得己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라 하드라도 工事監理의 契約을 解約하지 아니하였을 때 監理의 業務에 속하는 工事에서 違反事項이 発生하였다면 建築士(監理者)에게 吹責事由가 있는 것임.

(解 説)

建築主가 工事監理者에게 着工日時를 알리지 않고 着工하였을 경우는 法 第6條 第2項 및 숙 第7條의 規定을 違反한 것임으로 法 第55條의 規定에 의거 処罰되어야할 것이며 建築許可 申請書에 工事監理者로서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工事監理의 契約이나 着工中告(서명・날인) 에 関係없이 建築法上으로는 工事監理者로 보아야 한다. 그 럼으로 建築許可時에 設計者 및 工事監理者로서 署名・捺印한 建築士가 当該建築工事의 監理를 担当하지 않을것임을 許可庁에 通報하지 않는限 着工時点부터 工事監理者가되는 것이다.

質疑者인 建築士(?)가 願하는 解釋으로 予想되는 "着工申告를 하기前이고 建築主로 부터 着工日을 通報 받지 못할 때에는 建築士에게 責任이 없다"라고 解釋한다면 工事着手 7日前에만 着工届을 提出하면 되도록 規定(法第7條)하고 있으므로 令 "別表12" 第1項 내지 第4項 에 規定한 監理者의 重要業務는 監理者가 없는 状態에서 7日동안에 適法하지 않게 이루어 잘 수도 있을것이며 同第1項 내지 第4項에서 定한 業務를 工事監理의 業務限界에 包含한 意義가 없게 되는것이다.

建築士가 工事監理를 하기 前에 発生한 違反事項에 対하여는 事例에 따라 다를것이나 一般的으로 建築法에 依한 테則에는 該当되지 아니할 것이다.

59. 道路幅의 基準에 未達된 垈地上에 있는 既存建築物 의 用途変更

(質疑要旨)

既存建築이 있는 垈地가 一面은 8 m道路에 接해 있으나 他 一面은 2 m道路에 接하여 이 2 m道路의 中心線에서 2 m 후퇴하지 아니하고 建築된 既存建築物 (許可를받아 建築한 것임)을 用途変更할 수 있는가?

(質疑者:建築主)

(回信内容)

建築125~17451(76. 8. 28)

用途変更하고자 하는 貴 質疑上의 建築物을 숙第142條의 規定에 適合한 用途로 用途変更하려는 경우라면 貴 質疑上의 垈地에 接한 道路의 幅이 基準幅에 未達된다 하드라도 用途変更은 可能합니다. (끝)

60. 商業地域안의 高層地区內에서의 再築

(質疑要旨)

商業地域이고 눌이 9m以上으로 建築하여야 하는 40坪 垈地上에 있는 既存 1層建物이 火災로 滅失되었을 경우 3層으로 再築할 수 있는가?

(質疑者:建築主)

(回信内容)

建築125~17575(76. 8.31)

- ① 貴質疑上의 建築物이 商業地域内에 있고 垈地面積의 最小限界에 未達되는 垈地로서 火災로 滅失되었다면 令第 142條 第10項 第 3 号 "나" 日의 規定에 依據 令 第 2 條 第 4 号의 規定에 依한 再築은 可能하나
- ② 最低高層地区가 접친 垈地라면 위 第1項과 같은 再築도 不可하니 令 第167條 第2項 但書의 規定에 依해석建築하는 것을 検討하기 바랍니다.

61. 垈地의 基準面積에 適合하게 할 수 없는 特殊性 (質疑要旨)

住居地域內에 있는 基地가 当初 148m²였으나 都市計劃 事業으로 道路로 팔려 86m²가 남았을 경우 이 基地에 수 第142條 第11項 第1号의 規定을 適用하여 建築할 수 있 는가?

(回信内容)

建築125~17618(76, 8, 31)

實質疑와 같이 当初 148m²인 住居地域內에 있는 垈地가 都市計劃事業으로 道路가 拡張됨에 따라 垈地面積이 86 m²로 되었다면 수 第142條 第11項 第1号의 規定을 適用하여 建築할 수 있습니다.(골)

(解 説)

垈地面積의 最小限度에 適合하던 垈地가 都市計劃 事業으로 垈地의 一部가 짤림으로 因하여 基準面積에 未達될 때에는 隣接 空垈地의 有無에 関係없이 基準面積의 70% 以上이 되면 許可权者의 재량으로 許可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

그러나 当初부터 基準에 未達되는 垈地가 都市計劃 으로 잘려서 基準面積의 70%以上이 되었을 때에는 "隣接空 垈地의 有無에 関係없이"가 適用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집을 지을 수 있는 垈地를 억울하게(?) 내 땅을 道路로 짤리고 집을 못 짓게 되는 事例를 "特殊한 事情" 으로 解釋한 것이다.



서울특별시지부 사무소이전 및 명칭변경

서활독멸시시	부 사무소이전 및 명칭변경 					
姓 名	名 稍	所 在 地	電 話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月日
황 종 현	 공안건축설계사무소	성동구구의동252-15	55) 7863	2 — 1330	279	76. 9.
박 태 신	북부건축사합동 대통건축	도봉구수유동190-9	(99) 0973	2 - 16	314	76. 9.
임 영 순	대도건축연구소	성동구구의 동 252-16	(55) 2435	2-1341	281	76. 9.
안 병 윤	흥일전축기술공사안병윤건축	성동구구의동246-16	(55) 9588	1 - 1316	513	76.9.
강 진 성	1 -	용산구후암동	(42) 4579	1 — 221	41	76.9.
구 용 환	성미건축(연)	중구성당동292-18	54) 3672	1 — 863	640	76. 9
최인현	1	동대문구신설동102-4	(94) 7857	2 — 296	112	76. 9
강 용 원	- · · · • •	도봉구수유동191-75	90) 8098	1 -415.	641	76. 9
김희태	1	영등포구영등포동 2 가330	(64) 3523	2 324	83	76. 9 .
B 최 대 정 해 조	선진건축설계사무소	총로구종로1가84-1	(73) 5735	1-1209	645	76. 9.
3 01 7	(五) (4) (4) (4) (4) (4) (4)					
김 호 진	고려건축설계사무소	성동구구의 동251 - 31	56) 8812	1 - 1053	424	76. 9
신 길 응	홍일건축기술공사	성동구구의동246—16	56) 2488	2 — 950	234	76.9
전 우 대	기술공단대건전우대설계실	서대문구용앙동83— 2	(39) 0880	2 - 1174	262	76.9.
이 정 구	기술공단대견이정구설계실	서대문구응암동83-2	(39) 1330	2 - 894	277	76.9.
김 창 근	기술공단대건김창근설계실	서대문구응암동83-2		2 - 305	96	76.9.
과 대 안	기술공단대전곽대안설계실	서대문구응압 동 83 2	39) 0132	1 — 909	303	76. 9
이 큐 남	<u>우</u> 천사건축사	서대문구미 근동32 0	(75) 7196	I — 115	130	76.9.
이 택 용	용진건축(연)	동대문구신설동101-8	94) 9494	2 - 1 55 I	443	76, 9
김 창 서	 협화건축설계사무소	중구을지로 2 가180	(776) 3200	1 — 567	208	76.9
이 태 겸	태광건축사	성동구자양동197— 4	(55) 6847	1 - 10	135	76.9
한 창 우	*************************************	강남 구 천호동410-194		1 - 281	90	76. 9
이 준 의		관악구사당동708-555	(87) 3754	2 1549	326	76, 9
박 정 병	1 "	관악구 봉천동399 - 1	(87) 3684	1 - 890	680	76, 9
정 해 준		강남구반포동63— 7	57) 2151	1 - 393	653	76, 9
이 석 길		동대문구상봉동102-69	(97) 2834	2-1541	401	76. 9
이강수	 경도건축사무소	 영등포구당산동3 가22823	(64) 4413	1 - 430	112	76.9.
하 경	강동건축사합동우성건축	강남구천호동410—194	Ì	1-289	38	76.9.
문 영 길	•	영등포구영등포동2기652	(64) 0893	1-1018	394	76. 9 .
손 동 의	1 *	강남구반포 동63 — 7	(57) 2151	2 - 800	229	76. 9.
김 형 곤		영등포구당산동 3 가228-23	(64) 4413	1 — 73	378	76, 9.
한 창 진	 한정건축	 중구장충동 1 가26—13	(29) 4415	1 - 215	25	76. 9 .
이종갑	,	용산구한남동738-24	(44) 8189	i	523	76. 9 -
주 영 백		중구을지로 1 가101	(28) 8826	1 - 994	413	76. 9.
-		중구다동131	777) 1293	1	1	76. 9.
^김 등 대		서대문구흥은동265-15	(38) 5048	1 - 70		76. 9.
이용의		동대문구신설동36-22	(53) 7557	1 — 44	632	76. 9.
V 8 크 정 해 웅		과악구신림동74-1	(69) 3405		313	76. 9.
이 철 오	·	서대문구남가좌동344-1	(34) 7549		330	76. 9.
김 동 표	1	- 관악구봉천동419-3	(87) 3572	2 - 971	252	76. 9.
한 층 실	1 -	중구무학농11		2 - 302	86	76. 8.25
원 태 상		영등포구개봉 동 403-196		2-1098	397	76. 8. 25

서울특별	시지	부 전입회원								
姓名	Ä	名 66	所 在 地	電話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月 日			
신 명	<u>\$</u>	동성건축설계사무소.	강남구학산동16-61	(57) 3201	2 — 224	446	76. 8.23			
서울특별	서울특별시지부 전출회원									
김남	巾	영일종합김남규건축사연구소	영등포구당산동3 가387-1	(63) 3542	1 451	638	76. 8.25			
서울특별	서울특별시지부 재입회 회원									
장 민	-1⊁	지구건축공사	강남구학동35-3	(57) 1064	2 978	373	76. 9. 3			
서울특별시지부 재개업 회원										
정 덕	한	대방전축	중구율지로 1 가194		1 -398		76. 9. 3			
부산직할	시지!	쿠 사무소이전 및 명칭변경								
박 기	조	백양건축사무소	동래구복천동369	(52) 4524	2 -1010	131	76.8.5			
송 태	운	동남건축설계사무소	동래구복천동380— 5	(53) 9038	2 1680	217	76. 7 . 29			
조 정	슝	대한건축설계사	남구광안동1010 - 10	(7) 3545	2 - 837	101	76.8.6			
 김 팔	호	신도설계 사	중구충무동 1 가 2	(22) 1174	1-1134	128	76. 7. 24			
구 종	섭	홍익건축설계사무소	서구괴정· 동 745	(43) 1939	1 — 780	94	76.8.2			
박 윤	채	남부설계사무소	중구충무동1 가2	(22) 8379	1 - 137	4	76. 8. 1			
박 상	수	신아건축설계사	동래 구복천동 374— 1	(53) 1117	2-1515	171	76. 7 . 31			
윤 석	복	삼성건축사무소	동래구복천동374-3	(53) 9775	2 - 727	90	76. 7 . 7			
김 인	7	시민건축사무소	동래구복천동374— 3	(52) 3375	2 1495	190	76, 7, 7			
송 용	부	하동건축설계사	동래구복천동374-4	(53) 6628	2-1161	158	76. 8. 17			
정 병	₹ <u></u>	내 설계사	중구충무동 1 가 2	(23) 2683	1 — 123	18	76, 8, 19			
<u> </u>	 부 시	 		[1					
!	일	속초건축사사무소	속초시금호 동 482—96	2497	1 - 198	속초 1	76. 7.12			
박 종	삼	속초건축사사무소	속초시급호동482-96	2497	1 - 358	속초2	76. 7 . 12			
배기	웅	속초건축사사무소	속초시금호 동 482-96	2497	2 - 521	속초3	76. 7.12			
이 상	철	종합전축설계공사	강 능 금학 동99 — 3	4694	2 — 48	강 능 18	76. 7 . 28			
민 병	협	종합건축설계공사	강능시금학 동99 3	4694	1 —1487	강농17	76. 7.20			
손 준	섭	종합건축설계공사	강능시금학 동 99— 3	4694	1 - 166	강능13	76, 7, 20			
염 상	욱	종합건축설계공사	강 능 시금학동99— 3	4694	2 — 755	강 능 11	76, 7.20			
김 재	철	종합건축설계공사 -	강능시금학 통 99— 3	4694	2 -1268	강능21	76. 7 . 20			
원 호	창	합동건축사무소	원주시학성 동211-1	4956	1 - 197	원주10	76.7.1			
이 실	, පු	합동건축사무소	원주시학성 동 211-1	4956	1 — 751	원주11	76, 7. 1			
박 승	만	합동건축사무소	원주시학성동211-1	4956	1 - 167	원주12	76. 7. 1			
심 명	택	합동건축사무소	원주시학성동211 — 1	4956	2 - 70	원주 9	76. 7. 1			
김 화	영	합동건축사무소	원주시학성동211-1	4956	2-1269	원주13	76. 7. 1			
박 재	쿡	선기건축설계사무소	삼척읍남양리17-65	3636	2 —1270	삼척 1	76. 6.15			
전라남도	지부	사무소 이전 및 명칭변경								
김성	봉	동아건축연구소	광주시동구금남로 1 가19	(2) 5538	2 -1725	35	76.7.20			

전라남도지부 사무소 이전 및 명칭변경

ţ	生 1	2	名 酶	所	在	地	11.		免許番号	登録番号	作月1	1
강		영	공간건축설계사무소	광주시동구	금남로 1 7	7 -119	(2) 1	.738	2-1243	25	76. 7.2	20
김	상	석	공간건축연구소	→ 광주시동구·	금남로 1 7	1 19	(2) 1	738	2 - 1311	26	76. 7.2	20
l _주	효	승	상아건축설계사무소	광주시동구	금남로 1 기	' -19	(2) 5	538	2 - 1247	21	76.7.2	20
김	성	<u>현</u>	시대건축사무소	광주동구대	인 동 324~	11	(4) 2	163	2 — 64	2	76. 8 . 1	.6
정	욕	진	샅우건축공 사	광주시동구	대인동324	-11	(4) 2	163	1 — 174	2	76. 8.1	16
서	정	민	동양건축설계사무소	광주시동구	대인 동 324	-11	(4) 0	791	2 — 591	23	76.8.1	.6
박	정	홍	태화건축설계사무소	광주시동구	대인 동 324	11	(2) 1	442	2-1108	18	76.8.1	.6
최	영	대	우비건축연구소	광주시동구	대인동324	-11	(2) 1	442	2 – 1315	33	76, 8.1	.6

경상북도지부 사무소 이전 및 명칭변경

박	몽	墨	현대건축설계 연구소	대구시중구동문동1 — 2	(4) 4046	2-1050	47	76, 8, 16
하하	성	푹	덕영건축연구소	대구시중구동인동1 가238- 2	(5) 8334	2 - 993	48	76. 8.20

서울特別市支部 新入会員



本 籍 서울특별시

姓 名權祥雲

名 稱 신원전축기술공사

所 在 地 서울중구북창동11-2

電 話

免許番号 2-1339

登録番号 2-448

年月日 76.8.17



本 籍 경 기 도

姓 名張莨秀

名 稱 지구건축공사

所 在 地 서울강남구학동35-3

電 話 57-1064

免許番号 2-978

登録番号 2-373

年月日 76.8.26 8



本 籍 경 기 도

姓 名李壽衡

名 稱 선건축연구소

所 在 地 서울 중구남창동62-5

電 話 28-3115

免許番号 1-1278

登録番号 1-725

年月日 76.9.7.



本 籍 경기도

姓 名金容大

名 稱 미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서울관악구봉천동443-50

電 話

免許番号 1-523

登録番号 1-723

年月日 76.8.19

釜山直轄市支部 新入会員



籍 부산직할시

姓 名 姜 信

名 稱 영신건축설계사

所 在 地 부산시동래구복천동380-5

電 話 53-7931

免許番号 2-1613

登録番号

年月日 76.8.

月間協会動靜》

제18회(정기) 이사회

일 서:1976. 9. 4. 10:00시

잠 소:협 회회의실

출 석:최 장:이규복

총무이사: 박성규

이 사:성일영, 김두섭, 김진성, 정효환

감 사: 박래운지 부 장 : 이봉료

부의안건: ① 기체 결의에 관한 전

② 때비비 사용 승인에 관 한전

③ 기타사항

제 4회 기획소위원회

일 시:1976. 9.10.11:00시

장 소:협회 회의실

耋 석:회 장:이규복

총루이사 : 박성규

이 사: 검투섭, 정효환

감 사:박래운

지부장: 박홍우(충남), 최춘화(전남)

부의안건: ① 통합예산에 관한 전

② 기 타 사 항

제 5 회 기획 소위원회

일 시:1976, 9, 14, 11:00시

장 소:협회회의실

鑫 석:회 장:이규복

총무이사 : 박성규

이 사:김무섭,정효환.

감 사:박래운

지 부 장 : 박홍우(충남), 최춘화(전남)

부약안건:① 통합예산에 관한 진

② 기타사항

제 9회 편찬위원회

일 시:1976. 9. 15. 16:00시

장 소:협회 회의실

출 석:위원장:경두섭

위 원:이경희,김인석,유경철,이문보,김진일

부의안건:① 8월호 합평

② 9월호 편집계획안 검토

(3) 기타사항

제19회(건급) 이사회

일 시:1976. 9.16.16:00자

장 소: 협회 회의실

출 석:회 강:이규부

총무이사: 박성규

이 사:성일영,김진성,정효환.

감 사 : 박래운

지 부 장; 이봉로(서울)

부의안건: ① 서울시의 업무지도 지시에 관한 전

②기 타 사 항

日本建築士会連合会 掘井会長外 建築士34名来韓

大韓建築士協会 招請으로 日本建築士会連合会 掘井会長을 団長으로 하는 日本建築士 34名이 지난 9月10日 来韓하여 서울, 大邱, 釜山等地의 再開発事業地区 및 住宅団地等을 視祭하고 14日 離韓했다.

同訪韓団 一行은 訪韓 첫날인 10日下午 6 時 宿所인 市内 에버서더호텔, 주앨동에서 本協会 李圭福会長을 비롯한 全任員陣과 漢陽工大 金與一教授, 建設部 韓罕羅氏과 자리를 같이 約3時間에 결처 韓日建築士 第3次 懇談会量 가졌다 懇談会席上에서 李丰福会長은 歡迎辞를 通해 日本建築士訪韓団의 来韓을 與心으로 歡迎하며滯留하는 期間 諸般 便宜를 提供하겠으며 両国建築士들은 信賴되 相互理解를 바탕으로 하는 人士交流의 積極化, 情報및 資料交換率 懇談会의 年例行事化를 正式 提議하였다.

이와같은 李圭福会長의 提議에 対하여 掘井 日本 建築 士会連合会長은 答弁을 通해 本会 李会長의 提議을 全的 으로 歡迎한다고 前提하고 両国建築士들은 建築의 質的向 上을 위해 共同努力을 기울여야겠으며 韓国建築士 協会의 運営制度等을 日本에 導入할 計劃이라는 그의 所信을 밝혔다.

日本建築士会連合会 掘井会長과 同連合会 中島 專務 理事는 訪韓 2 日極인 11日 上午 10時 本会로 李圭福 会長을 公式訪門 2 次会談을 가진후 李圭福会長과 同途 建設部로 金周南次官을 礼訪 歡談하였으며 同日12時 本会李圭福会長은 日本建築士 訪韓団 34名 全員을 韓国会館으로 招待午餐을 베풀고 両国建築士들의 友宜를 더욱 두렇게 하였다.

日本建築士 訪韓団一行은 11日 住宅公社側의 案内로 蚕室아파트 団地를 視察하고 이어 삼호아파트団地와 롯데호 델 建設現場을 두루 돌아본후 12日에는 本会慶北支部 외 周旋과 案内로 三益맨손아파트 東信B地区아파트 망우公園等을 視察하고 13日에는 慶北에서 佛國寺등을 見学한後 釜山에서 UN墓地,東明木材等地를 本会 釜山市支部周旋과 案内로 視察하였다.

臺北市建築師公會 韓國視察團 來訪

臺北市建築師公會 理事점,總務幹事인 葉冠團長外 21名 은 지난 8월 17일午后,金浦空港에 到着 來韓하였다.

이날 空港에는 本會會長을 代身해서 서울市 李奉魯 支 部長과 幹部陣들이 迎接하였으며 18일 11:00시 本會를公 式訪門한 一行은 李圭福 會長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事務 處長으로 부터 本協會 現況을 청취, 長時間 韓國建築士法 및 報酬料率에 많은 觀心을 表明하고 兩側諸般情報交換을 갖은위, 日程을 맞추었다.

特히 一行中에는 臺灣建築職 公務員이 3,4名이 同行하여 異彩스러웠다.





寫眞説明: ①日本側의 播井團長과 人事을 交換하는 光景 ② 앰버서더호텔에서 갖은 懇談會場而





寫眞説明: ①豪北市建築師公會訪韓國長과 交友하는 本會會長 ②本會事務處長으로부터 現況을 청취하는 訪韓建築師들의 모습

대한건축사협회 대상시상 및 응모요강

1. 추천 또는 응모 작품

1974년 10월 이후 주로 국내에 준공된 건축물의 선계 (정원, 기타 공작물을 포함한다)로서 기술 및 예술의 전 보 향상에 기여하는 우수한 작품,

2. 추천 또는 응모 방법

- 가, 회원이 추천 또는 응모하는 것.
- 나. 본 협회의 지부에서 추천하는 것.

3. 출품 도서 및 자료

- 가. 사진 및 주된 주면과 설명서(도면은 청사진도 무방 함)
- 나. 심사상 필요할 때는 보다 상세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음.
- 다. 자료의 작성비는 본 협회에서 부담하지 않음.
- 4. 접 수 시 간 1976년 9월 25일-1976년 10월 15일
- 접 수 처
 본 협회 사무처

6. 심 사

본 협회 여사회에서 추천 의뢰한 인사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접수 마감 후 심사 위원 명단 발표).

7. 수상자 발표

1976년 10월 26일 (수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본 협회 산하 각 시도 지부에 동보하는 동시 회지 "건축사"에 발 표).

8. 시상구분

대한 건축사 협회 대상

1 젂.....상쾌, 금메달

9. 시 상 일

1976년도 정기 총회 석상

10. 출품자료반환

출품 도서 및 자료의 반환을 희망할 때는 추후 정하는 기간내 **반**환함.

公 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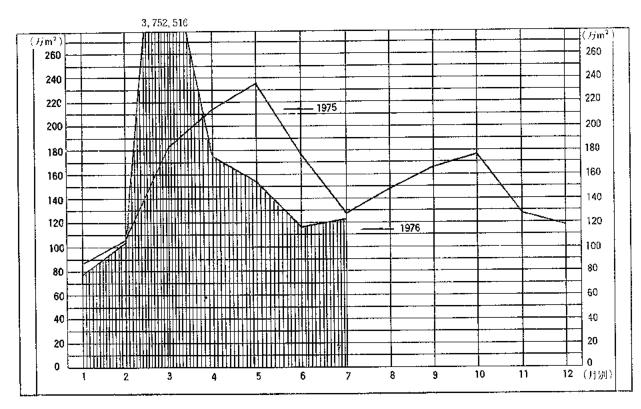
会員任董의 作品을 최저 建築士誌에 되도록 많이 収錄되자 널리 그 作品을 募集하으니, 会員여러분의 많은 利用을 바람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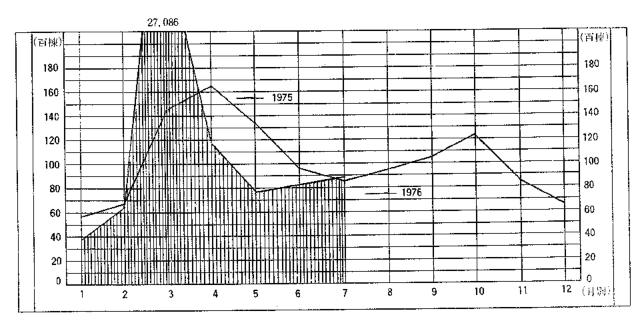
全国建築許可統計

(1976年7月分)

月別建築許可(延面積)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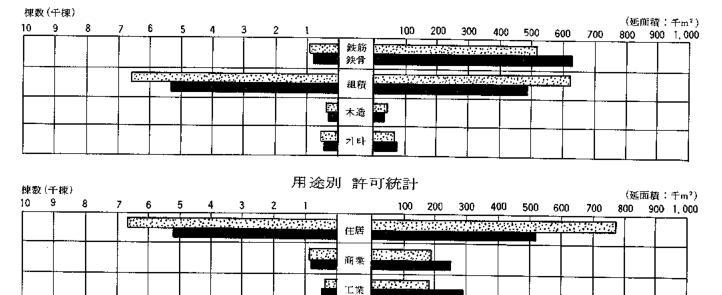
月别建築許可(棟数)統計



(1976年7月分)







文教 社会 기타

